뿌리에게 [뿌리에게(1991)]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네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가려무나   
  
척추를 휘어접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네 뻗어가는 끝을 하냥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릅 꿰어 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지는 해

저무는 표정까지도 어두웁지 않구나   
붉은 해여,   
끌려가는 뒷모습조차 비굴하지 않구나   
녹슬은 사슬소리 내지 않으며   
저 어둠의 언덕 너머를 향하여   
제 발로 힘있게 걸어들어가는구나   
내가 한점 시름에 매여   
거리를 떠돌고 있을 때   
나의 눈물을 덥혀주는 이여,   
상처난 몸을 부끄럽게도 온통 물들이는 이여,   
끌려가면서도 오히려   
울먹이는 구름을 위로하는 네 사랑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 같지를 않구나   
타오르다 거리에 버려진 사랑이여,   
문득 뒤돌아선 너의 빛나던 얼굴이   
내게는 마지막 채찍이 되어 남아 있구나

철로가에 핀 목련

석탄가루 꽃가루 함께 날려오는   
철로, 그 어두운 지축 위에서   
달빛처럼 흔들리는 너,   
흔들리면서 꽃을 벌리고   
흔들리면서 꽃을 떨구는 너,   
그러나 처음부터 순결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순간도 진정할 수 없었던   
그 어둠으로 인하여   
끝내 지쳐 피어나는   
눈물 같은 저 꽃으로 인하여   
비로소 눈부시구나,   
네 하얀 살점 열어 보이는   
은밀한 시간 위로도   
검은 기적소리 지나가고   
너를 만지면 이내 석탄가루 묻어나지만   
너의 향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처럼   
저만치서 홀로 빛나는구나

연가(戀歌)

흐리거나 추운 날을 가려  
나 그대에게 가리  
천정 위에서 우는 먹구름과  
들쥐처럼 산을 내려오는 바람 속에서  
그 감추어진, 빈 길을 걸어서 가리  
나무인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던졌던  
지푸라기들이 젖어 있고  
즙처럼 두 눈에 고이는 비는  
나의 가지를 치나니,  
자라온 자취를 굽혀 보여주는 그대여  
내 젖어 있는 시간을 가려  
그날에게로 돌아가리  
바람이 불쑥 칼날을 내어미는 날에도  
바람에 눈이 찔린 나무들이 되어

음지의 꽃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떼,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매미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흙 속에 날개가, 입이 부서져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한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나무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시인,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 등걸을 타고 오른다  
  
그때 매미는 거칠은 나무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여섯 해의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  
신록의 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는 나무등걸을 오르게 된 것일까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떼 날아온 저녁  
사랑은 짧고,  
새로운 에벌레들의 행진,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들에서 떠났네

우리는 들에서 떠났네 그래서 언덕 밑, 다리와 성벽 그늘에 이부자리를 폈네 토굴 속 어둠을 밝히어놓은 등잔,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쪼그리고앉아 숙제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 아이들은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뿌리라네  
  
저녁이면 붉은 눈망울로 우리 거기 모이나니 우리의 등뒤로 저녁노을에 젖은 구름떼가 흘러가네 우리가 치고 있는 가난의 양떼는 누구의 것일까 때가 낀 얼굴과 손들, 젖은 양떼의 냄새, 우리는 들에서 떠나와 또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 것일까  
  
토굴 속은 온통 개구리 울음소리로 가득하고, 논둑을 걸으며 개굴개굴 흉내내던 철없던 시절의 단꿈을 꾸네, 그러나 이윽고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꿈, 천정에 우르릉 금이 가기 시작하고 포크레인이 걸어들어와 우리의 꿈자리마저 덮치네  
  
잠든 얼굴 위로 흐르는 식은땀을 씻어내리다 보면 어느새 천정에 흐르던 어둠도 가시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네 꿈인 듯 멀리 들판이 보이네 들에서 떠나 어디론가 밀려가는 우리의 옷자락이 보이네

시(詩)

누에고치가 꿈꾸던 바다도 이러했을까  
가까운 뽕잎부터 한 물결씩 베어먹고  
하루하루 자라 마침내  
매마른 나무상장에 다다른 누에처럼,  
바다를 삼켜 섬이 된 것처럼,  
싯구 한 줄기 베어 먹었다  
​

바다

바다를 저리도 뒤끓게 하는 것이 무어냐   
파도를 깨뜨리는 뼈 부딪는 소리   
채 마르지 않아 뚝뚝 흘리며   
저 웃고 있는 푸른 살이 대체 무어냐   
욕망의 물풀이 자라나는 기슭,   
떠나온 이보다 쫓겨온 이가 많은 뱃전,   
비틀거리며 발 디뎌온 생활,   
그로부터 파도처럼 밀려온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뼈가 부딪칠 때마다   
물결, 불꽃의 물결 늘 움직여   
왜 자꾸만 나를 살고 싶게 하는지   
왜 이리도 목마르게 하는지   
아는가, 뒤끓는 바닷속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길

길 아닌 곳에 이르러 그대는 몸을 눕혀 나의 길이 된다 한 발 디뎌 서면 이미 길이 아니기도 한 신기루, 나는 멀리 달아나 박쥐들이 사는 광야로 바위 틈으로  
  
 그대가 날 시험하려는가 보리떡 한 덩이로 저 거친 광야를 푸른 보리밭으로 만들 수 있노라고, 그저 믿고 기다린다면 그 위로 풍성한 새떼를 놓으리라고  
  
 희망의 그물 던지며 기다리는데, 땀 흘려도 길은 자꾸 희미해지고 수많은 햇살이 들어박힌 과녁처럼 그을리고 상처난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의 고단한 눈썹 위로 어디 길이 보이나  
  
 길 없는 곳에 이르러 마침내 그대는 가시밭에 몸을 눕혀 그들의 길이 된다 보리떡 깨물며 부르는 노래 있어 엎드려 길이 되는 사람들 속에 보리밭 푸르러가고, 이제는 내가 길이 된다 광야에서 마을까지 닿아 있는 멀고도 가까운 길이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덩굴이 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다   
벌들이 꽃에게로 접근하고 있다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나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도, 우리조차 우리가 살아 있음을 알지 못했으나   
덩굴이 나무를 정복하듯이   
꽃이 열매를 맺듯이   
마침내 이루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숨은 눈을 통하여   
마침내 붉은 열매가   
우리를 넘어서 날아오를 때까지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 바렌찐 라스뿌찐의 소설 제목.

소경의 노래

적어도 나의 어둠은  
그대들이 등 밝히는 밤보다  
더 어둡다  
들판으로 나아가  
노을에 몸 데워진 풀들 쓰다듬으면  
어깨 드러내고 바람소리 내는 걸  
누가 보았을까  
그 누가 듣기라도 하였을까  
내 쓰다듬은 손길 위로  
만물은 녹아내려  
고통의 강물이 흐르는데,  
한눈에 읽고  
빠르게 알아차리는 그대들  
낮에도 어긋나는 시선으로 마주서는  
더이상 놀라며 눈뜰 수 없는  
매끈한 그대들의 어둠보다  
나는 더 어두어진다  
바람도 빠져 달아나는  
그 현람함보다도

석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몸의 피가 더이상 돌지 않게 되었다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입술은 벌어졌고  
두 볼이 굳어지자 거기 맺혔던 웃음마저 사라져갔다  
다음에는 팔과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두 눈은 감겨져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석상은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  
  
  
이제 그는 낡은 사진처럼 걸려 있다  
옛날에 그는 용감한 병사였거나  
사려 깊은 시인,  
또는 신명나는 춤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석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병사는 비행기의 폭격 속에서도 뛰지 않는다  
시인은 잠이 쏟아져서 시를 쓸 수가 없고  
헐벗은 풍경조차 그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어떠한 노래도 그를 춤추게 하지는 못한다  
  
석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벌어진 입술과 굳은 어깨, 닫힌 두 눈,  
일그러진 표정으로 거기에 걸려 있을 따름이다  
  
석상 이외의 걸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운 잭슨

거리여, 우리에게 음악을 틀어줘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애써 해석하고 암기할 필요도 없이  
빠른 박자에 몸을 맡겨 그저 흔들고, 흔들  
알 수 없는 외국어로 흥얼거려줘요  
우리는 음악시간에 그리운 금강산을 배우지만  
그리고 그 노래로 실기시험도 보지만  
금강산이 어디에 붙은 산이지 알 게 뭐예요  
라스베가스, 텍사스, 헐리우드, 샌스란시스코,  
디스코장에 빛나는 이 도시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운 잭슨을 부를 뿐이에요,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바다 저 너머에,  
춤추면서 건너오는 마돈나의 물결을 보아요  
꿈에도 소원은 토옹일,  
코흘리개 시절 뜻도 없이 따라 부르던 노래 희미해져요  
더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줘요  
우리의 귀청이 땅에 떨어지고 두 눈 점점 희미햊면  
우리의 춤은 떠 빨라직 뎌 견딜 수 없어지고  
마침애 터지고 말 거예요,  
그리운 잭슨의 심장 위에서

우산

그날까지 나의 우산은 질기고 질긴 것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기인대회,  
마치 앞날의 선명한 대결을 예고하듯  
빗줄기 굵게 지나가고  
사이사이 돋은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날,  
소나기 내리칠 때마다  
어깨에 어깨 걸었던 우리들 위로  
우산이 아나 둘 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욱 극성스러워지고  
내 한 몸 가리기에 급급하다 보면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된 어깨였다, 우산이었다.  
그러나 온몸으로 당당하게 비를 맞고 계신 선생님,  
팔년 전 내가 나의 제자들만 했던 시절  
나의 국어선생님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단상에서 발기문을 읽고 계셨다.  
  
검은 두루마기 빗물에 더욱 검어지고  
전교조 발기문을 교과서 삼아  
국어교사가 된 나를 다시 가르치시던 음성,  
그 음성이 빗발보다 더 거세게  
햇살보다 더 뜨겁게 니의 우산에 내리꽂히던 날,  
비로소 나의 우산이 무엇이었던가 보이기 시작했다.  
  
제 한 몸이나 가리우던 녹슨 내 우산,  
약한 우산을 찌르기도 했던 가시 돋친 내 우산,  
부러뜨려도 부러뜨려도 다시 팽팽해지던  
그 무겁던 우산을 접어 땅에 내려놓으니  
구름보다 먼저 두려움이 가시고  
그날 파랗게 돌아오는 하늘 끝이 보였다.  
  
​

공책 검사

그때는 물자절약이 한창이었지,  
앞표지의 거무죽죽한 꼭두부터 뒷표지의 끝에 이르기까지  
위아래 공백에 금을 긋고 세로로도 반을 나누어  
빽빽하게 우리는 70년대를 메꾸어나갔다.  
  
무엇을 썼느냐 하는 것보다는  
한치의 여백도 얼마나 아껴 썼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았던 공책 검사였다  
  
잘 부러지는 연필에 몇번씩 침을 발라 쓰면서도  
우리의 땅이 연필처럼 부러져가는 것은 몰랐었다.  
자꾸만 찢어지는 공책을 달래어 숙제하면서도  
그 순간 누군가 찢겨지고 있는 현실을은몰랐었다.  
그저 빽빽하게 성실하게 메꾸어가는 것뿐이었다.  
  
이제 80년대를 다 보내고 난 어느날 오후  
아이들의 공책 검사를 한다.  
혹시 다른 소리가 적혀 있지는 않나 검열당하는 시대에  
무언가 또렷한 목소리를 지닌 공책 하나 찾으려고 뒤적거린다.  
  
희고 매끄러운 여백 위로는  
설명을 한 자도 빠뜨리지않고 베껴놓은 우등생의 공책과  
틀린 것조차 그대로 베껴쓴 들러리 공책들,  
  
그 위에 빨간 별표 파란 별표 수없이 따 내리고  
새까맣게 줄을 긋고 외워야만 대학을 가는 이 시대에  
풍요에 길들여진 90년대의 첫장을 넘기면서  
가장 곤궁한 시절, 내 손이 자꾸 떨려온다.  
  
​

꼬리잡기는 더이상 놀이가 아니다

운동장에서는 꼬리잡기가 한창,  
편을 갈라 길게 늘어서서 꿈틀거린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내 머리로 네 꼬리를 삼키려고 하고  
네 꼬리로 나의 머리를 휘감으려 하는 것이니  
몸 긴 짐승들의 애환이여,  
물리지 낳으려고 서로를 물려고만 했구나  
운동장의 남북으로 멀어졌다가도  
다시 밀고 당기던 것이 몇 번이었을까  
때로는 하나로 뒤엉켜 땅에 구르며  
끝이 날 듯 끝이 날 듯 햐였지만  
흩어지는 함성,  
부연 먼지 속에서도 우리는 서러의 꼬리를 겨냥하고  
운동장 너머 메아리만 쟁쟁하게 들려온다  
물고 삼키는 것만 가르치는 이 운동장 위에서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꼬리 잡기는  
오늘도 무승부로 끝이 나고,  
땀에 젖은 우리는 수돗가로 달려간다  
한 세숫대야에 함께 손을 담그고  
이제는 꼬리가 아닌 두 손으로 만나며  
물 한움큼씩 떠서 서로의 얼굴을 씻어내린다  
멀리서 지는 햇살이 붉은 눈시울 적신다

금붕어

어느날 김선생의 책상이 치워졌다  
내 책상 위, 좁은 어항 탓인지  
금붕어가 자꾸 죽었다  
  
쉬는 시간마다 물을 갈아주고  
청정제에 물잎까지 넣어주었는데  
숨이 부족해 결국 떠오르고 만 금붕어 한 마리  
  
교무실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어서인지  
오가며 자꾸 눈길이 가는구먼.  
사랑도 많이 받았던 금붕어  
  
좁은 어항 속 말 못하는 금붕어라도  
제 지느러미 날개 치듯 펼 줄 알던  
그 살아 있음을 우리는 부러워했던 것일까  
  
물이 더러워질까봐 그걸 건져내다가  
문득 그의 빈자리를 건너다본다  
  
떠오른 물고기를 건져내다보면  
그의 빈 책상을 건너다보면  
나는 침묵 속에 점점 배가 불러온다  
더이상 떠오를 수 없도록,  
자꾸 무거워진다

서약서 1

예, 예, 쓰겠습니다  
도장도 찍어 드리지요  
강요라니요, 처언만에요  
본인은 학교 당국이 행하는 인사규정을'  
……저언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예, 예, 받아쓰겠습니다요  
나의 무릎은 접힌 지 이미 오래,  
닳고 닳은 이 미소를 받아주십시오  
붉은 인주자국 가슴에 누르며  
서약하고 또 서약합니다  
아, 아, 그러나 이것이 법이 될까 두렵습니다

서약서 2

이렇게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을 줄 몰랐습니다. 찢겨진 비닐하우스처럼, 서약서 한 장이 이렇게도 아프게 나부낄 줄은 몰랐습니다. 예리한 칼날에 나의 투명하 살이 찢겨진 날, 그러나 그건 서약이 아니었어요, 굴복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쓰라린 칼자국 남아 있지요. 상처가 쉽게 딱정이로 아물지 못하는 이에게, 오래도록 솟구치는 피는 무언가를 키워냅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찢겨진 비닐하우스 속에서도 흙은 부연 김을 뿜어올리고, 그 안개 같던 시간 위로 여리고 눈부신 순이 돋아납니다. 흩날리던 나의 살점 뚝뚝 떼어 바람에게 주어보내고 나는 더욱 앙상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의 서약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살을 아끼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내 안에 자라는 이 푸른 것들이 우거지는 그날까지 기둥만은 뽑히지 않겠노라고.

경례하는 아이들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피어나던 꽃들이 고개 숙이고  
꿀벌처럼 뛰어가던 아이들도  
일제히 멈춰 서서 경례를 붙인다  
나는 태극기 앞에, 자랑스러운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무궁한  
몸과 마음을 바쳐 다할 것을, 충성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구령 소리가 울려퍼지는 동안  
침 끝의 독기는 서서히 마르고  
모든 꽃들이 경례하는 저녁  
누군가 그 꽃들 사이로 움직여  
숙였던 고개를 흔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겨우 힘을 기르기 시작한 꿀벌들아  
침 끝에 꽃가루를 모으며  
멀리 날아갈 준비에 부푼 아이들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바람을 놓아주고  
들풀이 고개 들어 온 세상 풀씨를 날린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무궁한 발전을 약속받은 아이들아  
이제 보이느냐, 국기 게양대 위로  
너희가 날아야 할 푸른 하늘이

어떤 아이들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두세살부터   
영재교실에서 과외를 받는 아이들   
  
유치원에서 피아노, 주산, 태권도, 컴퓨터까지   
하루 종일 바쁘신 아이들   
  
30평은 30평끼리   
17평 주공은 17평 주공끼리   
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짝을 맞추어 잘 노는 아이들   
  
프라이드를 타고 온 친구의 아버지를   
비웃을 줄도 아는 콩코드의 아이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줄 테니 저 공 좀 건져달라고   
벌써 유능하게 사람을 부리는 사장님의 아이들   
  
뛰놀 만한 언덕 하나 없어   
5층 아파트 옥상에서 연을 날리며   
얼레를 풀어 동심을 날려보내는 아이들   
  
그 위태로운 하늘 끝,   
어디선가 날아온 새 한 마리가   
쓸쓸한 어깨 위를 맴돌고 있다

나무 한 그루

학교 뜰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뿌리를 거세당한 채 기울어간다  
세상에 이럴 수가,  
교장선생님은 얼굴까지 붉히며 열을 올린다  
잔인하게도 학생이 이런 일을 할 수가,  
학교 뜰의 나무 줄기에  
누군가 칼로 긁어 상처를 냈다는 것이다  
그건 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흉악범이나 될 게 분명하다며  
누군지 밝혀내어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싹수가 노란 것은 미리미리 잘라내야  
선량한 나무들이 벌레먹지 않는다고 한다  
쓸쓸한 마음으로 나와  
시들어가는 나무 한 그루 쓰다듬으니  
바람결에 우우우 소리내어 운다  
퇴색해버린 이파리,  
난자당한 줄기보다 더 아픈 것은  
묶여진 이 뿌리, 때문이에요  
울고 또 울어도 듣는 이 없어  
나무 한 그루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간다

학교로 돌아오려는 제자에게

오랜만에 네 편지를 뜯는다, 한번도  
너의 얼굴을 잊은 일은 없었지만은.  
  
교실문을 여닫을 때마다  
바람이 닫고 가는 문 뒤에 네가 서 있었다.  
선생님, 저예요, 제가 왔어요.  
저도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어요,  
또렷한 네 음성에 놀라  
떨리는 손으로 수업을 시작하곤 했지.  
​  
한달간의 가출로  
자퇴서를 쓰고 돌아섰던 너,  
노동자들과 함께 보내던 날들이 그립다던  
너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  
​  
너는 그릇에 넘치는 물,  
화분 위로 끓어오르는 뿌리 굵은 나무,  
그리하여 팍팍한 땅에 심겨지고자 하는 나무,  
그러나 네가 돌아오려는 이곳은  
넓지도 기름지지도 않은 땅이란다.  
  
단 한번도 너의 등을 떠나보낸 적은 없었지만  
저 넓은 들판과 거친 물결 속으로  
어느새 너의 떠가는 모습이 보인다,  
바람 한점 없는 이 교실에서는.  
  
​

한 그릇의 밥

집에 돌아와 한 그릇의 밥을 푸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지금쯤 보충수업에 자율학습에 지쳐   
진밥처럼 풀이 죽은 아이들,   
희고 고운 얼굴들이 형광등에 빛 바래고   
조용히 밥그릇에 담겨   
귀가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   
빈 자리 몇 개, 누가 도망갔느냐고   
윽박지르며 묻고 돌아서면   
-- 몇 시간 일찍 간 게 왜 도망입니까   
-- 무단외출 했다고 무기정학입니까   
말없이 대답하는 눈동자들,   
오늘은 가출한 두 아이를 찾아나섰다   
어두운 레스또랑 구석, 오락실, 만화가게,   
미성년자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여관 뒷골목들을 찾아다녔지만   
거리 거리 찬바람만 불어오는 저녁   
두 아이를 담고 있는 그릇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 그릇의 밥을 푸면서   
한 알도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사,   
더러는 발밑에 떨어진 것도 주워담아   
제 입에 넣고 맛있게 씹을 일이다   
내일이라도 두 아이가 돌아온다면   
밥보다 반가운 아이들,   
덥석 껴안고 감사의 눈물이라도 흘릴 것이다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을 받은 것처럼

사표(辭表)

날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속에서  
창 밖으로 타오르는 노을을 보며  
하늘에 대고 몇 장이나 사표를 썼다.  
갓난아기를 남의 손에 맡겨두고 나와  
남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심정,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눈망울을 뒤로 하고  
내가 밝히려고 찾아가는 그곳은  
어느 어둠의 한 자락일까.  
이 어둡고 할일 많은 곳에서  
師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사표를 쓰게 된다면  
그 붉은 노을을 언제 고개 들고 다시 볼 것인가.  
하늘에 대고 마음에 대고 쓴  
수많은 사표들이 지금 눈발 되어 내리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눈길을 밟고 따라와  
교실문을 가로막는데  
나는 차마 종이에 옮겨적을 수가 없다  
붉게 퇴진하는 태양처럼  
장렬한 사표 한 장 쓸 수는 없을까.

국어사전을 찾으며

工産ㅡ공자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설명드리자면  
公産ㅡ모든 사람의 재산을 오로지  
共産ㅡ함께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이니만큼  
空山ㅡ사람이 살지 않는 산중, 광장 어디에서든  
  
나는 국어사전을 뒤적거린다  
ㅡ권, ㅡ당, ㅡ명월, ㅡ물, ㅡ주의자들 속에서  
언뜻 모를 이 단어  
가나다 순서로는  
공산, 공산, 공산, 공산  
  
몇 장 더 넘기면 금강산  
어두운 꿈에서조차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에 가서 길을 묻는다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은 어디에  
나의 할아버지 묻히신 곳, 그 위로  
푸르른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갈까요  
  
금강산 곁에 흐르는  
해금강의 물을 움켜내어도  
더 많은 말들이 출렁거리는 국어사전 속에서  
나는 너를 놓치고  
나를 쓰러뜨리지만  
네 이름 하나를 만나기 위하여  
온 산을 뒤진다  
​  
空山ㅡ말이 무성한, 사람 없는 빈 산에서  
公算ㅡ어느 정도의 오차와 확실성을 가지고  
끝없이 국어사전을 찾으며  
네 이름을 부른다  
국어 사전이 끝나갈 무렵 마침내 통일이여  
  
​

붉은 가시고기

새마을 유아원에 다니는 조카의 그림책에는   
붉은 가시고기 이야기가 나오지   
  
남쪽 나라 사는 착한 거북이들에게   
북쪽에 살던 붉은 가시고기가 찾아왔네   
  
거북이들은 쫓겨온 가시고기를 잘 돌보아주었는데   
붉은 가시고기는 밤마다 아기거북이를 잡아먹었네   
  
한 아이가 어른들에게 이것을 알렸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네   
  
어느날 접선하던 북쪽의 가시고기들을   
이웃들과 함께 무찔렀다네, 용감한 그 아이가   
  
남쪽 나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 후로는 아무도 붉은 가시고기 믿지 않았네   
  
평화로운 새마을 유아원   
용감한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바다   
  
그네의 녹슨 사슬처럼 그곳에 전해오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며 아이들은 붉은 가시고기를 그린다   
  
그것이 우리 형제와 이웃의 얼굴인지도 모르고   
붉은 크레용을 자꾸만 그어대는 착한 거북이들

햄 한 덩어리

햄 한 덩어리 집어들었다.  
단지 국산보다 싸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Made in U.S.A.  
장바구니 속에 넣고  
몇 걸음 걷다가는 뒤돌아본다.  
내 손에 들려진 이 햄 한 덩어리가  
누군가의 어깨를 내리치는 돌멩이는 아닐까  
잠시 망설이게 된다.  
나 역시 무엇이 다른가,  
정부의 수입개방 기사를 보며 열을 올리던  
내가, 물가가 오르고  
장바구니를 졸라매야 하는 까닭에  
이 돌멩이를 집어들게 되다니.  
슈퍼마켓 한복판에 쌓여 있는  
미국산 햄과 소시지,  
육이오 때는 무상원조로 굴러다녔고  
이제는 국산품보다 싼 가격에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는 저 돌맹이,  
영원히 부패하지도 않을 것처럼  
깡통 속에 완전 포장된  
저 고깃덩이가 과연 우리를 살찌웠는가  
생각하면서 발길을 돌린다  
  
​

태풍의 눈

칼라 힐스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고요하기만 한 곳,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도 아랑곳없이  
반성의 바람 한점 불지 않는 곳,  
아름다운 태풍의 눈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달려오는 바람을 보라  
정작 태풍이 할퀴고 가는 곳은  
더 버릴 곳도 찢겨질 것도 없는 땅,  
빚으로 담을 쌓아가는 농가이거나  
일년 내내 땀흘려도  
백만원도 채 못 거두는 들판이었다  
  
그러나 저 바람 속의 완전한 무풍지대,  
오히려 태충에 의해 공고해지는 땅,  
저렇게도 말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  
제국의 온갖 잡티와 벌레들이 번식하고 있다며  
그 누가 믿겠는가?  
  
​

헤이그에서 제네바까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닫힌 귀들이 열릴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눌렸던 가슴들이 일어설 수 있을까  
스스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보여야  
조금씩 깨어 일어나는 시대에 태어나  
이준 열사는 만국평화회의 문전에서 분사하였고  
농민 이경해씨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회의장에서  
우리 농민의 이름으로 피를 흘렸다  
죽음으로밖에는 진실을 설명할 길 없어  
스스로를 찔러야 하는 칼날은 얼마나 통절한가  
헤이그에서 제네바까지  
구한말에서 6공화국말까지  
시대가 바뀌고 적이 바뀌어도  
의인의 칼날은 왜 아직도 변함없이 빛나는 걸까  
  
​

독재자의 변명

손에 쥔 것을 내놓으려 해도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다고, 다른 손에 건네주려 해도 손과 손이 닿지 않는다고, 일단 움켜쥔 손들의 고통은 만질 수 없는 고통보다 더 어쩔 수가 없다고, 자신을 지우려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미 하늘에 새겨진 모양이라고, 칠흑 같은 저 어둔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붙박이별처럼 새겨진 것은 새겨진 것대로의 쓸모와 아름다움이 있지 않느냐고, 이 두 손 털고 훌훌 떠나고 싶지만 이 어두운 시대가 이 끈질긴 역사가 끝내 손을 놓아주지 않을 뿐이라고, 이 말이 변명만은 아니라고……  
  
​

빈 들의 허수아비

누가 나를 좀 내려줘요. 주인이 나를 여기에 박아놓을 땐 참새들의 동태를 관찰, 보고하라는 것이었지요. 참새들의 소문과 그들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참새들이 잘 모여드는 곳이 어디쯤인지 보아두라고, 주인은 나에게 눈과 입을 그려주고 옷과 모자도 주면서 말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옷깃츨 펄럭이며 두 눈을 부릅뜨곤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주인은 낫을 들고 누우런 벼 이삭을 싹둑싹둑 베어나갔고, 그의 그물에는 벌써 몇 마리의 참새가 걸려들었는지 몰라요. 흔들흔들. 나를 버티어주던 장대가 자꾸 몸부림쳐요. 그만 나를 놓아주세요. 여기에 홀로 남아 있자니, 꿈속에서도 남은 나락들의 신음소리와 참새들의 외마디 비명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주인조차 거두어가지 않는 죄 많은 이 몸, 들판 위에 떠돌다 끝내 들판에 버려진 이 홑겹의 마음을 데려다 이제는 빈 들의 모퉁이에 묻어주세요.

마늘을 찧으며

김치를 담그시는 어머니 곁에서 마늘을 찢어 드린다. 어린 시절 한꺼번에 찧다가는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대여섯 개씩 절구 밖으로 달아나던 마늘 생각이 난다. 반도 못 찧어 눈물 흘리게 만들던 마늘 ㅡㅡ 얘야, 마늘을 단번에 넣으면 튀어으르니 하나씩만 넣고 꼭꼭 찧어라. 그 말씀처럼 이제는 기술이 생기고 힘도 늘었다. 마늘 한 개 쿵, 마늘 두 개 쿵, 절구통 속에 차례로 들어가 비명도 없이 으스러지는 마늘을 본다. 탄압이란 이런 것일까? 겨냥은 정확하고도 짧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찧는 자신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그 속에서 마늘은 매운 제 맛도 아랑곳 없이 그냥 숨죽이게 되는 것일까. 속도감까지 붙어 경쾌하기 짝이 없는 둥둥방망이 끝에서 어느새 한 대접의 마늘이 다 찧어졌다. 마지막으로 내리치는데 톡, 쏘는 기운이 눈에 와 꽂힌다. 둥둥방망이 밑에서 절벅거리다 못한 마늘은 으스러진 몸 서로 껴안고 소리지른다.  
  
​

꽃병의 물을 갈며

꽃은 어제보다 더욱 붉기만 한데  
물에 잠긴 줄기는 썩어가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같은 물에 몸 담그고도  
아래에서는 악취가 자라 무성해지고  
위로는 붉은 향기가 천연스레 솟아 오르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꽃을 아릉밥다 말하는 나는  
꽃이 시들까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물을 갈아주는 나는  
산 것들을 살게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바로 눈감게 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조간신문 위에는 십오 세의 소년이  
수은 중독으로 실려 나가고  
그 기사에 우리는 잠시 놀란 얼굴이 될 뿐  
오히려 그 위에 피어난 꽃을 즐기고 있구나  
  
꽃은 꽃대로 피어나고  
줄기는 줄기대로 썩어가고 있을 때  
그 죽음이 우연이었다고 지나칠 수 있는가  
썩어가는 줄기에서 수은 한줌 훔쳐낸다고  
꽃은 순결해질 수 있는가  
  
매일 아침 꽃병의 불을 갈아주며  
무엇 하나 깨끗하게 씻어줄 수 없는  
우리의 노동을 생각한다  
살아 있던 줄기들은 그 밑둥이 잘리우고  
꺾인 줄기들은 모두 꽃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본주의의 꽃이 활짝 핀 방 속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그들도 사라진 것인가  
한번도 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모범 운전사들  
정해진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교대 시간과 교대 시간 사이에서,  
못다 핀 새벽잠과 새벽잠 사이에서,  
가던 길로만 가고  
돌아오던 길로 늘 돌아오던  
그들마저 길을 잃은 것인가  
  
규칙적인 것일수록 믿을 게 못된다,  
기다릴 것 없이 그냥 걸어가자,  
노선도 한 개뿐인 이런 동네에서  
파업은 무슨 파업이냐,  
돌아서는 사람들 저렇게도 많은데  
어두워오는 거리, 흙먼지 속에 남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두가 절망의 뿌리를 캐러 떠날 때  
홀로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기다리는 것마다  
돌아오는 것마다  
완전한 어떤 것은 아니다  
  
절름거리며 돌아오는 그의 바퀴와  
깨진 유리창, 구멍 뚫힌 눈을 보아라  
빈 버스 가득히 겨울 바람을 담고  
고드름을 무성하게 매어단 채 달려오는  
동굴 같은 그의 가슴을 보아라

나뭇잎 하나로 이 세상을

잠든 산들아  
너희 가슴 속 숨겨진 무덤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거기서 두 발로 걸어나와  
잎새 하나에 깃들어 말하리라  
나뭇잎 하나로 즙을 짠다면  
그물맥 접어넣고  
혼과 갈빗대, 뼈마디까지  
문질러서 즙을 짠다면  
잘라, 쓸어, 쪼아, 갈아  
마침내 이 세상을 적시는 친구의 죽음  
너의 죽음, 그 앞에  
세 삽의 흙을 던지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너의 즙이 이 땅의 강물이 되고  
푸른 눈물이 되는 날  
움트는 또 하나의 표적처럼  
저기 저 수없이 반짝이는  
나뭇잎 하나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의 희망을  
돌아오는 너에게 들려주리라  
  
​

그대를 어디에 묻으랴 - 고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며

그대를 어디에 묻으랴   
- 고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며  
  
  
우리에게 땅이 없다   
그대의 시신을 안고 도망쳐 나왔지만   
따뜻하게 묻어줄 땅이 없다   
병원 입구마다 몇 겹의 경찰들이   
에워싼 그런 땅 말고,   
우리가 그대를 따라 걸어가는 행렬이 되고   
열려진 하늘 아래 그대의 무덤을 만들   
몇 줌의 흙, 몇 발자국의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   
그대를 어디에 묻으랴   
그대를 두고두고 어디에서 만나랴   
죽음에 대해 자주 무디어지는 습관을   
어느 곳에 무릎 꿇고 용서받으랴   
망월동에서, 4.19묘지에서   
묻힌 그대들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아직도 땅 없음을 어찌 다른 말로 둘러댈 수 있으랴   
우리에게 땅이 없다   
이제 그대가 누운 세 치의 죽음만이   
우리의 깨끗한 땅이다

종이 한 장 차이

한 마리를 발견한 후로 방에 벌레가 들끓는다고 생각하니 한시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내 손으로 그 많은 벌레를 죽인다는 것은 더욱 끔찍스런 일이다. 그래서 두꺼운 동이를 한 장 골라서 알맞게 접고 그것으로 꾹, 꾹 그저 누르기만 했다. 이것으로 한여름의 가려움증과 수많은 죽음, 종이의 짜릿한 감촉조차 나는 잊었다. 종이 한 장을 내세워 발포 명령자가 자신의 과거를 흘려보내듯이, 그러나 여름이 끝날 무렵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 나의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는 첫 벌레를 다시 보았다. 종이까지 씹어먹는 벌레떼였다.

돌

시냇가에 묻혀 잠자는 돌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이미지를 길어올리는 자가 있고  
교정에 구르던 돌을 주워 던지는 순간  
스스로의 생명감을 느끼는 자 있다  
살아남아 생명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가 있고  
죽어서 생명을  
빛나게 일구는 자가 있다  
  
​

그러나

밤이 오고 있다  
  
  
질주하는 차들은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로변에 누워 있는 것은  
식당의 환풍구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 때문이다  
그 식당은 가장 늦게 문을 닫는 편이다  
음식 냄새가 시장기를 자극하지만  
무디어져가는 감각과 의지를  
그렇게라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냄새에 따라 어떤 음식일지 상상해보면  
식탁을 가졌던 시절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한다  
필요 없는 것들로 불룩한 아이의 주머니처럼  
상상의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 찬다  
음식에서는 이내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하나밖에 없는 담요는 개를 감싸주고  
담요에 싸인 개가 살아 있는 담요가 되어주지만  
밤이 오기 전에  
온기와 냄새를 좀더 비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커피가 식기 전까지 세상은 그럭저럭 마실 만했다  
그러나 밤이 오고 있다  
여우의 눈동자를 지닌 밤이 오고 있다  
물론 그녀는 밤에 움직이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  
길 잃은 개들과 고양이들, 또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달아나는 여우들,  
술 취한 남자들이 갈기고 간 오줌 냄새와  
변태성욕자들, 또 다른 노숙의 달인들에 간해  
동물적인 감각으로 익혀온 바가 있다  
그러니 어젯밤이 지나갔듯이 오늘밤도 지나갈 것이다  
갈라진 시멘트의 혈관에서 냉기가 흘러나온다  
그녀는 자벌레처럼 몸을 굽혔다 뻗는다  
벌거벗은 한 뼘의 땅 위에  
약간의 빛과  
굴광성의 영혼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려는 듯  
환풍구를 향해 길게 숨을 들이쉰다  
잠든 개를 천천히 쓰다듬는다  
이 온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견딜 만하다고 중얼거리면서

손톱

깎아도 깍아도 가벼워지지 않는 형벌,  
제 몸을 깍아내리면서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노릇을 얼마나 계속해온 걸까  
동료가 해직당하고 선배가 잡혀가는 중에도  
무사히 살아 재자리에 붙어 있는,  
잘려나가도 금세 더 길게 자라오르는 손톱처럼  
나는 여기에 남아 있구나  
매달 월급봉투를 헐어 전교조 후원금을 내고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서명도 하지만  
끝내 걸어가지 못한 마지막 한 길 있어  
온몸으로 피 흘리며 깊어가지 못하는  
이 가슴 속, 참회의 낮은 목소리  
깨물고 깨물어도 줄어들지 않네  
어느새 손톱 밑으로 때가 스며들고  
장마철 풀숲처럼 저도 모르게 무성해지는 가슴,  
어떤 낫으로 베어내야 다시 자라지 않을까  
  
​

새벽 다섯시

한 자루의 비를 들고 찾아오는 이,  
이른 새벽 그가 쓸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머리를 쓸어내는 소  
스슥 나의 가슴을 도려내는 소리  
새벽마다 그가 머리맡에서 울고 갔으나  
한번도 그를 듣지 못하였구나  
하늘의 별들은 아직 맑게 빛나는데  
나를 깨우는, 비로 쓸어내는 소리  
자명종 시계처럼 눌러두고 잠들어 있었구나.

나는 펄럭이고 싶다

똥을 털어내고 비누칠을 하면서   
세상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얼룩진 기저귀가   
아기의 똥오줌을 받아내어 아기를 자라게 하듯   
남의 밑에서 세상의 오물을 받아내고   
구린내를 견뎌내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한다.   
비누거품 속에서 자신을 헹구어내며   
다시 기저귀가 되어가는 사람들,   
푸르스름하게 얼룩진 슬픔을 털고   
기저귀를 빨면서   
부단히 더러워지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밝은 햇살 아래 눈부신 기저귀처럼   
하늘 한모퉁이 나도 그렇게 펄럭이고 싶다.   
보송보송한 살 한점 세상에 보태주고 싶다.

해빙

아기를 낳은 후에 젖몸살을 앓았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열과   
수시로 찾아드는 오한 속에서   
밤새 뜨거운 찜질로 젖망울을 풀어주시며   
굳었던 내 가슴을 쓸어주시며   
기도하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땀이 나의 가슴을 흔들어 깨웠다   
가장 깊은 속 완고했던 응어리들이 풀릴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맺혔던 젖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러나 가슴위로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젖이 아니었다   
잊혀져 가던 옛사랑이었다   
어둠에서 나를 이끌어 낸 것은   
주님이 아니라 어머니 속의 어머니   
새벽이 되자 열이 내리고 젖이 풀리면서   
나는 이제야 어머니가 된 것이다

비 오는 날에

내 우산살이 너를 찌른다면, 미안하다   
비닐 우산이여   
나의 우산은 팽팽하고   
단단한 강철의 부리를 지니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이 없었거니   
이제는 걱정이 된다   
빗속을 함께 걸어가면서 행여   
댓살 몇 개가 엉성하게 받치고 선   
네 약한 푸른 살을 찢게 될까 두렵구나   
나의 단단함이 가시가 되고   
나의 팽팽함이 너를 주눅들게 한다면   
차라리 이 우산을 접어두겠다   
몸이 젖으면 어떠랴   
만물이 눅룩한 슬픔에 녹고 있는데   
빗발이 드세기로   
우리의 살끼리 부대낌만 하랴   
비를 나누어 맞는 기쁨,   
젖은 어깨에 손을 얹어   
따뜻한 체온이 되어줄 수도 있는   
이 비 오는 날에   
내 손에 들린 우산이 무겁기만 하다

그대가 오기 전날

그동안 나에게는 열망하는 바가 얼마나 많았더냐   
오랜 줄다리기, 그 줄을 내려놓고   
이제 두 손을 털면   
하늘마저 가까이 내려와 숨을 내쉰다   
  
그러나 나에게는 망설이던 적이 얼마나 많았더냐   
진흙탕 속을 걸어가면서도   
발목 하나 빠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가   
이제 온몸으로 넘어지고 나니   
진흙도 나를 받아 감싸는구나   
  
열망하면서도 뛰어들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활활한 불길처럼 살아오는 오늘   
그대로 하여   
열망과 용기를 함께 가지게 되었으니   
두렵지 않아라,   
눈먼 그대를 내 안에 앉히는 일이

서랍에 대하여

서랍을 열고 나면  
무엇을 찾으려 했었나 기억나지 않는다  
서랍을 닫고 나면  
서랍 안에 무엇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는다  
서랍은 하나의 담이다  
감싸고 품어내는 것, 그보다  
더 넓은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그리움은  
서랍 안에 저녁햇살처럼 누워 있고  
그 그늘 속에 누추한 벌레 몇 마리  
어떻게 잠이 드는지 볼 수조차 없다  
서랍이 입을 내밀고 웃고 있을 때  
닳고 닳은 입술 사이로  
무슨 말인가를 건네려 할 때  
나는 담을 넘듯이  
영혼의 서랍을 열어본다

눈길

사람의 발길이 닿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하는 눈,   
젖은 눈은 금세 상처를 입고   
나는 어제의 길 위에   
또 하나의 길을 내며 간다   
다시 더럽혀진 길들,   
누구도 쉽게 내디딜 수 없고   
마치 습기를 타고 번지는 곰팡이처럼   
소문의 발자국이 무성하게 지나간   
이 흙탕 속에 발을 담그며 간다   
더러는 꺾인 채로 더러는 일어선 채로   
눈 위로 솟아난 들풀 같은 삶   
먼 길을 걸어온 나에게   
건네는 위로 한마디가   
이 눈발이라면,   
눈 위에 길을 내고   
그 길을 다시 덮어가는 이 눈발 속으로   
젖은 발끝만 보며 걷고 있는 나에게   
어디선가 날아온 눈덩이 하나   
등에 와서 박히는, 이것은 무엇인가

기침

끓어오르는 가래는 쉽게 화해하지 않는다.  
단번에 모든 것을 터뜨려주지는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목을 치밀고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가래의 고여 있음을 이야기힌다.  
이 고백이, 기침이다.  
사월인데 어디에 가나 기침소리가 들려온다.  
따뜻하게 흔들리는 꽃잎 속에도  
엎드려 울고 있는 친구의 입김 속에도  
그것이 웅크리고 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될 때부터 우리는 끈덕진 활화산처럼  
기침을 한다,  
오직 더러운 가래를 나누어 가진 까닭에.  
그러나 끝내 감염되지 않는 기침도 있다.  
끓어오름이 없는 외침.  
그것은 미움도 고통이 없이도 활짝 피어나는 헛기침이다.

풍선은 얼마나 무거운가

풍선이 터지는 것은 쉬운 일.  
그러나 터지기 직전의 풍선은 얼마나 무거운가  
환희 들여다보이는데도  
하마 그 부푼 속을 찌를 수가 없고  
그냥 두고 보자니  
그것이 조금씩 시들어가는 동안에도  
나의 절망은 무디어져간다,  
한 줄의 고통을 말하는 동안에도  
연필이 무디어지듯이,  
풍선은 터지기 쉬운 일.  
탱탱한 풍선은 얼마나 무거운가

11월

바람은 마지막 잎새마저 뜯어 달아난다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자비에 대하여   
나무는 눈물 흘리며 감사한다   
  
길가의 풀들을 더럽히며 빗줄기가 지나간다   
희미한 햇살이라도 잠시 들면   
거리마다 풀들이 상처를 널어 말리고 있다   
  
낮도 저녁도 아닌 시간에,   
가을도 겨울도 아닌 계절에,   
모든 것은 예고에 불과한 고통일 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것은 겨울을 이길 만한 눈동자들이다 ..

여의도

우리는, 지느러미 하나 없거나  
등이 굽은 꼽추의 고기들이 사는  
강을 끼고 오래도 살아왔다  
고기들이 잃은 뼈와 지느러미,  
또는 여의도의 갇힌 풀들  
거기서 한쪽 눈을 잃은 우리의 형제들이  
이제 놓은 제방을 넘어오고 있다  
물에 떠나닐 수조차 없게 된  
죽은 고기들이  
강기슭에 와 뒹굴면  
그걸 주워다 양식으로 삼는,  
살아남은 우리는  
강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낀다  
고통도 없이 강을 바라보고  
고통이 고통에 그치고 마는  
태연한 우리는  
더이상 떠날 수 없는 자신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낀다

신춘문예

겨울 한철 불어오는 이 바람은  
부패된 씨앗 하나 들판에 남겨두었을 뿐  
들판의 찢겨진 지푸라기는  
더 이상 썩지도 못하고  
새싹을 틔워내지도 못한 채 나부꼈다  
​  
봄이 아닌 봄,  
옷깃 위에 머물다 가는 이 티끌을  
온몸에서 털어내는 동안  
누군가 몰려와 나의 뒷멀미를 잡았다  
나의 등을 끌어다 마구 두드려댔다  
​  
내가 마신 술에 대하여  
내가 맡았던 꽃향기에 대하여  
모두 용서받느라 봄은 다 지나갔다  
​  
바람이 몰고가는 대로 나부끼던 지푸라기,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물에 빠진 이에게 목숨이 되어주고  
온통 일어나 바람의 음모를 알릴 수도 있는  
이 지푸라기의 힘을  
​  
그리하여 겨울 한철 부는 바람을 뒤로 하고  
흙냄새가 오르는 저 들판에서  
더 거센 바람을 맞아 일어서고 싶다,  
한줌의 썩어가는 너를 만나고 싶다,  
시여,

소원

네가 아들 몫을 하려면 법대에 가라,  
힘없는 아버지의 힘준 목소리가  
전봇대 위의 붙박이별처럼 빛난던 시절  
저는 글을 쓰겠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너도 졸업반인데 살 궁리를 해야지,  
남들은 외국어학원이다 자격증이다 난리인데  
밤늦게 쏘다닌다고 꾸중만 듣던 제가  
아버지에 대한 시를 써서 문학상을 받던 날  
그 시를 읽으시고 한참 생각에 잠기시던 아버지.  
  
포탄이 나믹고 간 기억 속에 평생 감기어 사신 아버지,  
총살당한 할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오던 날  
멀찌감치 미루나무에 기대어 울기만 하셨다지요.  
낯선 땅에 내려와서도 몇번의 실패를 걲고  
자식만은 결코, 마지막 밧줄처럼 잡고 계셨지만  
새가 날아가듯 그 기대와 욕심도 기울어갔지요.  
  
욕심이 날아간 후에는  
그 자리에 소원이 둥지를 트는가 봅니다.  
이제 교사가 되고 시인이 된 저에게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손을 흔드시며 하시는 말씀  
내 소원이 무언지 아느냐  
네가 진실한 입 하나 가지고 사는 거다.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교사가 되고  
상처입은 사람들을 감싸주는 시를 쓰거라,  
아버지의 이마 위로 피어오르는 이 소원이  
얼마나 멀고도 아픈 길 끝에 나온 것인지  
진정으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지 저를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폐허 위에도 풀꽃 한 송이 피어납니다.  
아버지의 돌부리 사이로 갈대 줄기가 자라납니다.  
점점 높이 자라고 대가 굵어지고  
그럴수록 아버지의 폐허에 더 깊이 뿌리내리면서  
아버지, 이제 저는 떠나갑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시는 아버지의 곁을.

울산바위

그 좋다던 설악 단풍 앞에서도  
너는 붉은 눈물 흘린다.  
경상도땅을 떠나 금강산 가는 길에  
여기 설악에 그치고 말았으니  
눈앞에 흐르는 해금강에  
네 눈물이 녹아 흐르는구나.  
산이 깊을수록 단풍은 붉고,  
세월은 오래일수록 아픔이 선명해지니  
울산바위야, 눈앞에 두고도 못 가는 것이  
어지 너뿐이겠느냐,  
녹슨 철로에 묶인 늙은 철마처럼  
아버지도 오늘도 임진각에 가셨다 돌아오는데  
네가 박힌 뿌리는 얼마나 깊은지,  
이제 그 거대한 뿌리를 들어  
오래 침묵하던 길을 떠나야지 않느냐,

아버지의 등

1   
  
밤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업었다 인적 없는 길로하여 간호원의 집에서 주사를 맞히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릴 보며 웃었다   
  
금방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던 어머니가 그의 등 위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웃었다   
  
숨었던 꽃이 하얗게 덩굴 위로 피어나고 얼었던 못물이 풀려 달빛에 반짝일 무렵 솔밭에서 바람은 불어와 살아 있는 내를 실어 온다며, 그는 웃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한다   
야곱의 이야기다   
환도뼈가 쪼개져도 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닥다리에 매달려 있는   
새벽이 되자 나무로 자라 있는   
그 등이 나뭇결처럼 단단해진   
바위처럼 살아 있고   
노래처럼 흐르는   
  
2   
  
그 짧은, 눈부신 밤길을   
빛 하나도 없이 나는 왜 달리는가   
들쳐업고 달리다보면   
나의 등은   
문득 거친 벼랑인 것을   
거기에 날개 단 풀꽃 하나가   
바람에 지쳐 우는데,   
아무도 알 수 없다네   
나의 등과 당신의 가슴이 만나는   
수평선, 그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   
별이 쏟아져내릴수록   
싸움은 나의 일이 되고,   
오늘도 당신을 들래들래 업고서   
다리를 건너네   
저만치 하얀 꽃들이 눈부신 들을   
빛 하나도 없이   
바람 한점 없이   
다리를 건너네

노아의 포도

가을도 머지않은 곳에서 바람이 휘파람을 분다  
노아가 심었던 포도나무가 흔들린다  
포도덩굴은 그의 지혜로운 아들들보다  
더 빨리 뻗어내렸고, 그 자리마다  
들어박혔던 포도알은 이윽고 술틀로 굴러 들어간다  
술틀을 밟고 있던 이들이  
시간의 항아리에 발을 담그고  
그들이 돌아간 저녁 노아는 술을 마신다  
높은 산들이 포도주를 흘렸으며  
들판과 시내가 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을 때  
아버지들의 드러난 허벅지,  
지헤로운 아들들은 눈을 감았다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그러나 뒷걸음질하다가도 보인다  
늘 목격당하기만 하는 옷자락.  
가을도 머지않은 곳에서 바람이 휘파람을 분다  
휘이 휘이 ㅡ 아 무 것 도 보 지 않 았 습 니 다  
아버지, 포도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열쇠

열쇠를 안에 둔 채 잠겨진 방은  
어떤 의미로는 우울하다,  
일자리를 놓쳐버린 아버지처럼  
  
잠겨진 방문은 열려고 흔들어댈수록  
더욱 고집스러워진다.  
사춘기의 빗나간 아우처럼  
  
아버지, 하고 불러보지만 돌아앉으시고  
아우야, 어깨를 다독거려주지만 손을 뿌리친다  
  
눈가가 거무스레 늙으신 어머니.  
방안에서는 낡은 형광등이 껌벅거린다  
희미한 눈빛으로 울먹이고 있다  
  
방은 터널처럼 길고 어두우며  
오랜만에 돌아온 나에게는  
열쇠가 없다,  
멀리서 옛날의 가족 사진이 웃고 있다  
  
​

우리 어머니

자식이 너무 많으신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고집부리고 나면  
웬지 미안해지는 우리 어머니  
  
전쟁고아들이 자라서 자식들을 낳고  
전쟁 아닌 전쟁으로 삶을 꾸려나갈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따뜻한 둥지가 되어주시는 분  
  
용달차 운전하는 길천이가  
애인과 헤어져 위로받으러 찾아오고,  
시집살이가 힘든 금숙이가  
그 품에서 한참을 울다 가는 곳  
​  
놀고 있는 무성이에게  
보증을 서주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장가가는 용주가 지어준 옷 입으시고  
어머니 자리에 대신 앉아 웃고 계신 분  
  
그 많은 자식들과 내가  
형제처럼 사는 세상 만드시려고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  
  
​

종소리에 대하여

1  
밥 먹을 때는 왜 세 번 치지?  
밥ㅡ먹ㅡ어ㅡ 셋 아니가.   
  
그럼 손님 왔을 때는 왜 네 번이야?  
어ㅡ서ㅡ옵ㅡ쇼ㅡ 해서지.  
아니면 또ㅡ오ㅡ십ㅡ쇼 해서든.  
  
떡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잘ㅡ보ㅡ여ㅡ라 이거야, 알겠어?  
  
2  
 고아원 뒷산 개울가에서 우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매일 아침 얼음조각으로 얼굴을 부벼 씻고 어렸던 우리는 형들의 세숫물을 길러 다녔다 그러다가도 식당에서 식사종이 울리면 대야를 던져두고 마악 뛰어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합창기도가 끝나자마자 숟가락은 달르락거리기 시작했다 칠십 개가 넘는 그 소리는 칠십 개가 넘는 종소리가 되어 식당과 우리의 눈동자와 가슴을 끝없이 울렸다 밥 먹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느껴지는 배고픔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의 배고픔을 종은 침묵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무겁고 녹이 슨, 종을 몰래 팔아먹었다 종은 땅바닥에 엎드려 끌려갔고, 이상하다 엿은 배부르지 않고 우리의 뱃속에는 이미 종이 달려 있으니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는 침묵한다 개울가에서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식당에서 울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우리가 긷던 물 속에서, 봄의 습기가 오르는 산골짜기로부터 우리도 알 수 없도록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고향

장이 설 때마다 흥이 오르던  
그는 거지였고  
아이들은 오동추를 따라 장타를 돌며  
떡부스러기를 얻어먹곤 했다  
  
그가 드러눕는 땅에는  
흰 모래 풀풀 일어  
집이 되고 식구가 되고  
낮에 마주친 따스한 눈짓시 되고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야  
집도 없는 그의 노래는  
누렇게 펄럭이는 천막부랭이를 적시며  
온 마을을 흘러다녔다  
  
내가 강아지풀처럼 어릴 때 떠나와  
살게 된 서울, 오동동 달이 밝은 밤에는  
멀리서 강물처럼 흘러와 감기는  
그의 노래를 듣곤 하였다  
상설시장의 짠내 속에  
풀씨로 자라는 그의 노래를  
  
몇 해 전 고향에 내려가 그를 보았다  
이제는 매일 열리는 시장을 헤이고 다녀도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춤을 얹어들지도 않는다  
  
늙어가는 등껍질에는  
안으로 퍼올리는 눈물이  
훠이저훠이저 사라질 때까지 얼비치고  
모금으로 생겨난 시장 구석의 그의 집은  
돌아오지 않는 유년, 그를 기다린다  
  
바람에 밀리어가는 것은  
나무둥치에 잠든 그의 노래만이 아니다  
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 식구,  
시대의 웃음만이 아니다  
  
밤이면 플라타너스 허옇게 웃음짓는데  
달빛 밟으며 달빛 밟으며  
오동추, 어디로 걷고 있나

미국에서 온 편지

1  
우리 그이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야,  
한국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기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말야,  
미군부대 매점에서 일할 때에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이야.  
고아원에서 나와 버스 차장을 하며  
이를 악물고 저축을 했고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매점에 들어왔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  
많은 미군들이 집적거리고 놀려대도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달랐어.  
미군은 믿을 게 못된다고 다들 말렸지만  
그는 제대와 동시에 청혼을 했지.  
그를 따라 이곳에 온 걸 후회하진 않아.  
그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은 무척 행복해.  
다음 달에는 여기서 정식 결혼식도 올릴 거야.  
너도 축하해주리라 믿어.  
  
2  
 나는 그녀의 웨등드레스가 오래도록 빛나기를 바란다. 그녀가 운이 좋다는 건 한편 불행한 일이다. 그녀가 붙잡은 것이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었다면, 빛은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약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짓밟혔던 수많은 여인들과 물 건너가 끝내 소식이 없는 수많은 여인들의 봉분, 그 봉분 위에 피어난 한 떨기 꽃이 되기를 그녀 역시 바라지는 않으리라.  
  
​

손금

그는 손금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손금을 거슬러올라가면  
어릴 때 놓쳐버린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으리라 늘 생각했었다  
  
고향에 대해서는  
묵호라는 이름과  
도깨비시장에서 생선 팔던 어머니,  
두 가지 기억만 쥐고  
파출소 사환에게는 금쪽 같은  
사흘 휴가를 얻어 그는 묵호에 돌아왔다  
  
아들이 왔다고  
다섯 살 때 고아가 된 아이가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고  
시장에 바람처럼 소문을 놓아두고  
그는 여관방에 누워 손금을 들여다보았다  
  
누가 그의 손에 강물을 주었는가  
눈물 젖은 길 하나 내주었는가  
손을 비빌 때마다  
마주쳐 소리를 내던 손금들  
  
쩍하니 문이 열렸고 그는 벌떡 일어났다  
아주머니 한 분이 그의 손을 잡았고  
강물은 이미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휴가가 끝나는 날  
그의 손금도 그쯤에서 끝나가고 있었다

필경사

십오 촉 백열등보다도 그의 눈은 더 침침해졌다  
그 어두운 눈으로 얼핏 보이도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결산심의서  
원고 속에 파묻혀 그는 무엇이든 다 쓴다  
되는 대로 흘려 쓴 업무보고서  
젊은 사람들의 빳빳한 이력서, 편지까지도  
​  
사람들이 그에게 내미는 원고는  
무언가에 젖어 있고 항상 얼룩이 져 있다  
부드럽지만 알아보기 힘든 것,  
복잡하지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것,  
묵은 냄새 속에서 벌레가 튀어오르는 게 있고  
성급하게 세상에 꺼내어진 것도 있다  
​  
내용이 맞든 그르든 되묻는 경우라곤 없다  
조작된, 휴지만큼의 무게라도 좋다  
쓰다 보면 날이 밝았고  
어느새 강물처럼 나이를 먹었다, 아니  
십오 촉 백열등이 쉴 새 없이 껌벅거리며  
그이 젊었던 이력서를 삼켜버렸다  
​  
오늘도 자와 만년필을 든 두 손이 움직인다  
자에 의지한 두 팔꿈치가 반들반들하다,  
어떤 때는 검기도 하고  
어떤 대는 핏빛이기도 한데  
그 뒤로 들락거리는 웅크린 그림자가  
그의 이력서처럼 두껍고 단순하게 생겼다  
​  
어느날인가 그의 손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활자가 휘청거리고  
십오 촉 백열등처럼 조금씩 흔들리면서  
더 쓸 수도 읽을 수도 없을 때까지  
그는 무엇이든 다 쓴다  
그는 언제까지나 쓴다  
더는 두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을 때까지

우는 여자

저녁 무렵 출근하다 우연히 만난 그 친구 때문에,  
십 년 세월을 담고 선 그녀의 눈빛 때문에,  
함께 손 잡고 가장 멀리까지 나갔었던  
마른 갈대의 숲과 그 기억 때눈에,  
어린 날 느티나무 위로 빛나던 별처럼  
곱게 자라서 만나자던 그 까마득한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몸마저 무너지던 그날  
하늘을 날아 흩어지던 붉은 구름 때문에,  
이제 수치도 성스러움도 아닌 저녁 출근 때문에,  
다 이해 할 수 있다는 듯한 그녀의 표정을   
여기에 불러 세운 세월 때문에,  
십 년 만에 처음으로 뉘우침을 갖게 하는  
오오랜 친구 그녀 때문에,

풀포기의 노래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1994)]

물줄기 마르는 날까지 폭포여,   
나를 내리쳐라   
너의 매를 종일 맞겠다   
일어설 여유도 없이 아프다   
말할 겨를도 없이 내려 꽂혀라,   
거기에 짓눌리는 울음으로   
울음으로만 대답하겠다   
이 바위 틈에 뿌리내려   
너를 본 것이   
나를 영영 눈뜰 수 없게 하여도,   
그대로 푸른 멍이 되어도 좋다   
너의 몸은 얼마나 또 아플 것이냐

서시

단 한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지피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여   
꺼지려면 아직 멀었느냐

그런 저녁이 있다

저물 무렵   
무심히 어른거리는 개천의 물무늬에   
하늘 한구석 뒤엉킨   
하루살이떼의 마지막 혼돈이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바라보려 한다   
뜨거웠던 대지가 몸을 식히는 소리며   
바람이 푸른 빛으로 지나가는 소리며   
둑방의 꽃들이   
  
차마 입을 다무는 소리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들으려 한다   
어둠이 빛을 지우며 내게로 오는 동안   
나무의 나이테를   
내 속에도 둥글게 새겨넣으며   
가만 가만히 거기 서 있으려 한다   
내 몸을 빠져나가지 못한 어둠 하나   
옹이로 박힐 때까지   
  
예전의 그 길, 이제는 끊어져   
무성해진 수풀더미 앞에 하냥 서 있고 싶은   
그런 저녁이 있다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사랑에도 속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솔잎혹파리가 숲을 휩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 순간인 듯 한 계절인 듯   
마음이 병들고도 남는 게 있다면   
먹힌 마음을 스스로 달고 서 있어야 할   
길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수시로 병들지 않는다 하던   
靑靑의 숲마저   
예민해진 잎살을 마디마디 세우고   
스치이는 바람결에도   
빛 그림자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단풍이 든 것만 같아   
그 미친 빚마저 곱습니다

어느 봄날

청소부 김씨   
길을 쓸다가   
간밤 떨어져내린 꽃잎 쓸다가   
우두커니 서 있다   
빗자루 세워두고, 빗자루처럼,   
제 몸에 화르르 꽃물드는 줄도 모르고   
불타는 영산홍에 취해서 취해서   
그가 쓸어낼 수 있는 건   
바람보다도 적다

찬 비 내리고 -편지 1

찬비 내리고 - 편지 1   
  
  
우리가 후끈 피워냈던 꽃송이들이   
어젯밤 찬비에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힘드실까봐   
저는 아프지도 못합니다   
밤새 난간을 타고 흘러내리던   
빗방울들이 또한 그러하여   
마지막 한 방울이 차마 떨어지지 못하고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기 위해 시들기 위해   
아슬하게 저를 매달고 있는 것들은   
그 무게의 눈물겨움으로 하여   
저리도 눈부신가요   
몹시 앓을 듯한 이 예감은   
시들기 직전의 꽃들이 내지르는   
향기 같은 것인가요   
그러나 당신이 힘드실까봐   
저는 마음껏 향기로울 수도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오래 흔들릴 때 -편지 2

나뭇가지가 오래 흔들릴 때 - 편지 2   
  
  
세상이 나를 잊었는가 싶을 때   
날아오는 제비 한 마리 있습니다   
이젠 잊혀져도 그만이다 싶을 때   
갑자기 날아온 새는   
내 마음 한 물결 일으켜놓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 속에 살고 싶어져   
모서리가 닳도록 읽고 또 읽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지요   
제비는 내 안에 깃을 접지 않고   
이내 더 멀고 아득한 곳으로 날아가지만   
새가 차고 날아간 나뭇가지가 오래 흔들릴 때   
그 여운 속에서 나는 듣습니다   
당신에게도 쉽게 해 지는 날 없었다는 것을   
그런 날 불렀을 노랫소리를

젖지 않는 마음 -편지 3

젖지 않는 마음 - 편지 3   
  
  
여기에 내리고   
거기에는 내리지 않는 비   
당신은 그렇게 먼 곳에 있습니다   
지게도 없이   
자기가 자기를 버리러 가는 길   
길가의 풀들이나 스치며 걷다 보면   
발 끝에 쟁쟁 깨지는 슬픔의 돌멩이 몇개   
그것마저 내려놓고 가는 길   
오로지 젖지 않는 마음 하나   
어느 나무그늘 아래 부려두고 계신가요   
여기에 밤새 비 내려   
내 마음 시린 줄도 모르고 비에 젖었습니다   
젖는 마음과 젖지 않는 마음의 거리   
그렇게 먼 곳에서   
다만 두 손 비비며 중얼거리는 말   
그 무엇으로도 돌아오지 말기를   
거기에 별빛으로나 그대 총총 뜨기를

잔설(殘雪)

잔설처럼 쌓여 있는 당신,   
그래도 드문드문 마른 땅 있어   
나는 이렇게 발 디디고 삽니다   
폭설이 잦아드는 이 둔덕 어딘가에   
무사한 게 있을 것 같아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보면서   
굴참나무, 사람주나무, 층층나무, 가문비나무...   
나무 몇은 아직 눈 속에 발이 묶여 오지 못하고   
땅이 마르는 동안   
벗은 몸들이 새로운 빛을 채우는 동안   
그래도 이렇게 발 디디고 삽니다   
잔설이 그려내는 응달과 양달 사이에서

소리에 기대어

가로수 그늘에 몸을 기대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 몇개가 떨어졌는지   
잡풀 뒤에 숨어서 누가 울고 있다   
쓰르라민가, 풀무친가, 아니면 별빛인가   
누구인들 어떠랴   
머리를 가득 채우는 저 소리,   
충만을 이내 견디지 못하는 나는   
다시 하늘을 본다   
눈 멀어지니 귀도 멀어졌다   
그러나 소리 희미해질수록   
마음은 가까워졌다   
소리는 풀잎 뒤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은 갈피에서 나는 것 같다   
소리내는 그것을 만져보려고   
풀잎을 쓰다듬으니 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가까이 있지만 만질 수 없는 것들이여   
내 안에 있지만 또한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들이여   
나는 해진 옷 끌고 와 여기서 울고   
나는 그 옷자락이나 만지다 돌아갈 뿐   
사라진 그 소리에   
잠시 기대어 앉아 있을 뿐

다음 생의 나를 보듯이

어느 부끄러운 영혼이   
절간 옆 톱밥더미를 쪼고 있다.   
마치 다음 생의 나를 보듯이 정답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고   
묻지는 않기로 한다.   
새도 짐승도 될 수 없어   
퍼드득 낮은 날개의 길을 내며   
종종걸음 치는 한 生의 지나감이여   
톱밥가루는 생목의 슬픔으로 젖어 있고   
그것을 울며 가는 나여   
짙은 그늘 속   
떠나지 않는 너를 들여다보며   
나는 이 생의 나와 화해한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면서   
불쌍히 여길 무엇이 남아 있는 듯   
까욱까욱 울음소리를 한번 내보기도 한다.

기억의 자리

어렵게 멀어져간 것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나는 등을 돌리고 걷는다   
추억의 속도보다는 빨리 걸어야 한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뒷모습뿐, 눈부신 것도   
등에 쏟아지는 햇살뿐일 것이니   
도망치는 동안에만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의 어귀마다   
여름꽃들이 피어난다, 키를 달리하여   
수많은 내 몸들이 피었다 진다   
시든 꽃잎이 그만   
피어나는 꽃잎 위로 떨어져내린다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걷는다, 빨리, 기억의 자리마다   
발이 멈추어선 줄도 모르고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온 줄도 모르고

어린 것

어디어 나왔을까 깊은 산길  
갓 태어난 듯한 다람쥐 새끼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맑은 눈빛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고집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린 것들은  
내 앞에 눈부신 꼬리를 쳐들고  
나를 어미라 부른다  
괜히 가슴이 저릿저릿한 게  
핑그르르 굳었던 젖이 돈다  
젖이 차올라 겨드랑이까지 찡해오면  
지금쯤 내 어린 것은  
얼마나 젖이 그리울까  
울면서 젖을 짜버리던 생각이 문득난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난만한 그 눈동자,  
너를 떠나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고  
나는 오르던 산길을 내려오고 만다  
하, 물웅덩이에는 송사리떼 무사하다

요즘의 발견

잊은 듯이 한참 있다가  
뚜껑을 열면  
솥바닥에 자리잡은  
절망의 크기만큼  
온전한 한 덩이의 누룽지가  
안간힘으로 솟아올라 있다  
  
구수한 누룽지 한 조각 만드는 것이  
요즘 나의 즐거움이다  
누룽지를 들어내고  
환한 솥바닥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요즘 나의 발견이

흔들리는 것들

저 가볍게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삶의 무게는 있어   
마른 쑥풀 향기 속으로   
툭 튀어오르는 메뚜기에게도   
삶의 속도는 있어   
코스모스 한 송이가 허리를 휘이청 하며   
온몸으로 그 무게와 속도를 받아낸다   
어느 해 가을인들 온통   
들리는 것 천지 아니었으랴   
바람에 불려가는 저 잎새 끝에도 온기는 남아 있어   
생명의 물기 한점 흐르고 있어   
나는 낡은 담벼락이 되어 그 눈물을 받아내고 있다

못 위의 잠

저 지붕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못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 봅니다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 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 흙 바람이 몰려 오나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하는 못하나,   
  
그 위의 잠

몰매기를 기억함

소금창고에서 나와 그을린 얼굴로  
터벅터벅 집에 돌아온 여자,  
지친 몸속에서 불었던 젖을 꺼내  
아이에게 물린 채 그만 잠들어 버린  
그녀, 다음날 새벽  
품속에서 숨이 막혀 죽은 아기를 안고  
매 맞는 그녀, 몰매기 몰매기  
아이들은 뒤따라오며 돌을 던졌네.  
내가 돌을 던진 건 아닌가 싶어  
예이츠의 그 시가, 아니 그녀가  
오래도록 기억을 떠나지 않았네.  
  
나 종일 밭을 갈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문득 몰매기인 나를 보네.  
무덤 아래 울고 있는 아기를 보네.  
말이 돌이 되기도 하고  
손잡음이 돌이 되기도 하여  
내 앞에 떨어지는데, 깨진 무르팍  
몰매기의 상처는 그 흐르는 피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아야 하네.  
흐르는 피를 닦으며 그냥 그냥  
밭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밭에는 그렇게 많은 돌들이 박혀 있다는 것을

저녁을 위하여

"엄마, 천천히 가요."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칭얼거린다.   
그 팔을 끌어당기면서   
아침부터 나는 아이에게 저녁을 가르친다.   
기다림을, 참으라는 것을 가르친다.   
"자, 착하지? 조금만 가면 돼.   
이따 저녁에 만나려면 가서 잘 놀아야지."   
마음이 급한 내 팔에 끌려올 때마다   
아이의 팔이 조금씩 늘어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이를 남에게 맡겨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다른 것들에 더욱 매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그게 삶이라는 것을   
모질게도 가르치려는 것일까.   
해종일 잘 견디어야 저녁이 온다고,   
사랑하는 것들은 어두워져서야   
이부자리에 팔과 다리를 섞을 수 있다고   
모든 아침은 우리에게 말한다.   
오늘은 저도 발꿈치가 아픈지   
막무가내로 울면서 절름거린다.   
"자, 착하지?"   
아이의 눈가를 훔쳐주다가   
나는 문득 이 눈부신 햇살을 버리고 싶다.

별

모질고 모질어라   
아직 생명을 달지 못한 별들   
어두운 무한천공을 한없이 떠돌다가   
가슴에 한 점 내리박히는 일   
그리하여 생명의 입김을 가지게 되는 일   
가슴에 곰팡이로나 피어나는 일   
그 눈부심을 어찌 볼까   
눈물 없이 그 앞을 질러 어떻게 달아날까   
밤하늘 아래 얼마나 숨죽여 지나왔는데   
얻어온 별빛 하나 어디에 둘까   
어느 집 나무 아래 묻어놓을까

아카시아

저무는 봄날 하얀 비 맞으며  
나는 그 길 위로 걸어왔습니다  
숨막힐 듯 단내 나던 꽃송이  
산산이 부서져 뼛가루처럼  
어디론가 불려가는날,  
마른 꽃잎을 한 줌 움켜보니  
금방이라도 소리를 낼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한숨을 잘 쉬시던지  
모두 여기 날아와 쌓인 듯합니다  
한숨 한 줌  
이렇게 되려고 달려온 건 아니었는데  
머리 위의 꽃비 하염없습니다

빈 의자

나는 침묵의 곁을 지나치곤 했다   
노인은 늘 길가 낡은 의자에 앉아   
안경 너머로 무언가 응시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론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했다   
이따금 새들이 내려와   
침묵의 모서리를 쪼다가 날아갈 뿐이었다   
움직이는 걸 한번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몸 절반에는 아직 피가 돌고 있을 것이다   
축 늘어뜨린 왼손보다   
무릎을 짚고 있는 오른손이 그걸 말해준다   
손 위에 번져가는 검버섯을 지켜보듯이   
그대로 검버섯으로 세상 구석에 피어난 듯이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다는 일만이   
그가 살아 있다는 필사적인 증거였다   
어느날 그 침묵이 텅 비워진 자리,   
세월이 그의 몸을 빠져나간 후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빈 의자에는   
작은 새들조차 날아오지 않았다

양계장집 딸

일어나자마자 닭장으로 달려가면  
아버지가 손에 쥐어주던 갓 낳은 달걀로부터  
나는 따뜻함을 배웠다.  
   
분노를 배운 것도 닭장에서였다.  
부리로 상대의 눈을 쪼아대며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건넛마을 아파트에 달걀을 팔러 가던 날  
친구를 만날까봐 언니 뒤에 비비 숨던 어느 대낮  
그러나 닭도 달걀도 별로 돈이 되지는 못했다.  
  
텃밭의 채소 몇뿌리와 더불어  
무언가 기른다는 것이 아버지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  
그 손에서 길러짐으로써 닭들은 아버지를 살렸다.  
종종거리며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양계장집 어린 딸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다.  
  
결국 닭은 닭장 속에서 견디며  
우리 二代를 견디게 한 셈이다.

밤, 바람속으로

밤, 바람 속으로   
  
  
아버지 저를 업었지요.   
별들이 멀리서만 반짝이던 밤   
저는 눈을 뜬 듯 감은 듯 꿈도 깨지 않고   
등에 업혀 이 세상 건너갔지요.   
차마 눈에 넣을 수 없어서   
꼭꼭 씹어 삼킬 수도 없어서   
아버지 저를 업었지요.   
논둑길 뱀딸기 밑에 자라던   
어린 바람도 우릴 따라왔지요   
어떤 행위로도 다할 수 없는 마음의 표현   
업어준다는 것   
내 생의 무게를 누군가 견디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긴 들판 건너게 했지요.   
그만 두 손 내리고 싶은   
세상마저 내리고 싶은 밤에도   
저를 남아 있게 했지요.   
저는 자라 또 누구에게 업혔던가요.   
바람이 저를 업었지요.   
업다가 자주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지요.

어느날 아침

흰 칼라를 떼어내라 했다  
우리는 서로의 교복에 칼을 대어  
실밥을 뜯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새가 되기 위한  
분장 같은 것이었다  
날개의 싱싱함을 꺾고  
교실에 웅크리고 앉아  
흘러나오는 장송곡에 귀기울이라 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다고  
아나운서는 목청을 돋우어 시를 읽는데.  
나를 막막하게 한 것은  
흰 칼라를 가방 깊숙이 쑤셔박게 한 것은  
한 독재자와 님과의 그 까마득한 거리와  
참을 수 없는 슬픔의 향연,  
들러리 선 어린 까마귀들의 울음 같은 것이었다  
멀리 햇살을 물고 날아오르는 새떼들의 이야기를,  
하늘을 찢으면  
또 하나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아무도 우리에게는 들려주지 않았다  
다만 우리에게 흰 칼라를 떼어내라 했다

너무 많이

그때 나를 내리친 것이 빗자루방망이였을까 손바닥이었을까   
손바닥이었을까 손바닥에 묻어나던 절망이었을까.   
나는 방구석에 쓰레받기처럼 처박혀 울고 있었다.   
창 밖은 어두워져갔고 불을 켤 생각도 없이 우리는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침침한 방의 침묵은 어머니의 자궁 속처럼 느껴져 하마터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을 뻔했다.   
그러나 마른번개처럼 머리 위로 지나간 숱한 손바닥에서 어머니를 보았다면,   
마음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리를 들었다면,   
나는 그때 너무 자라버린 것일까.   
이제 누구도 때려주지 않는 나이가 되어 밤길에 서서 스스로 뺨을 쳐볼 때가 있다.   
내 안의 어머니를 너무 많이 맞게 했다.

십년 후

당신의 손이 아니었다면 건널 수 없었던   
어둠조차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이 산길에 접어든 나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헤매었지요   
예전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단 하나라도 남아 있기만 하다면   
그 어둠과 안개의 힘으로   
말랐던 계곡의 물도 다시 흐르게 할 텐데   
그러면 돌 몇개는 징검돌이 되기 위해   
번쩍 깨어날 텐데, 어떠한 은밀함도   
순결함도 남아 있지 않은 산길 위에   
나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물결을 거스르며 견디는 돌멩이처럼

흐린 날에는

너무 맑은 날 속으로만 걸어왔던가   
습기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여   
썩기도 전에   
이 악취는 어디서 오는지,   
바람에 나를 널어 말리지 않고는   
좀더 가벼워지지 않고는   
그 습한 방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바람은 칼날처럼 깊숙이,   
꽂힐 때보다 빠져나갈 때 고통은 느껴졌다   
나뭇잎들은 떨어져나가지 않을 만큼만 바람에 몸을 뒤튼다   
저렇게 매달려서, 견디어야 하나   
구름장 터진 사이로 잠시 드는 햇살   
그러나, 아, 나는 눈부셔 바라볼 수 없다   
큰 빛을 보아버린 두 눈은   
그 빛에 멀어서 더듬거려야 하고   
너무 맑게만 살아온 삶은   
흐린 날 속을 오래오래 걸어야 한다   
그래야 맞다, 나부끼다 못해   
서로 뒤엉켜 찢겨지고 있는   
저 잎새의 날들을 넘어야 한다

남편

베란다 구석에서 십년이 넘었으니  
한 세월을 함께 살았구나  
觀音竹,  
이젠 소리를 볼 수 있다고?  
내 소리 다 들으며 살았다고?  
  
어쩌면 키가 그리도 자라지 않았는지  
뿌리로만 나이를 먹었는가  
  
ㅡㅡ당신은 나를 많이 길들인 셈인지.  
ㅡㅡ천만에. 당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조금도.  
  
식물의 세월에도 흔적은 남아  
조금은 굵어진 줄기,  
허리춤에는 새끼가지 몇 불쑥 돋아나  
둥글어진 잎새 아리 오물거리고 있나니  
베란다 유리창 너머 매일같이  
무심하게도 나를 들여다보았을  
觀音竹 한 그루

달개비꽃 피는 창문

그 창문은 내 발길 아래 있다  
지하의 방 한 칸  
세상의 볕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고   
별조차 내려오지 않는 창문에   
달개비꽃 먼지를 뒤집어쓰고 피어난다  
버석거리는 밥술과   
자욱한 꿈자리  
창에 들이친 흙탕물은   
지나가던 내 발걸음 때문이었나  
한때 가난은 나의 것이기도 했는데   
가난조차 잃어버린 발길이   
함부로 내딛다가 멈춘 자리   
지하의 방 한 칸  
오랜만에 불기를 넣었는지   
낮은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탄가스가   
서성거리는 내 발목을 휘감는다  
가난의 독기는   
이제 땅 위의 목숨에게로 흘러간다  
달개비꽃 파랗게 질린 입술로 떨고 있다

그믐

下血의 밤이 깊어갈수록  
얼굴은 긴 어둠을 건너온 새벽창처럼  
창백하게 떠올랐다  
검고 붉은 것이 흐르고 흘러  
무엇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것일까  
기다림의 어떤 징표인 듯  
옷을 적시고 땅을 다 적시도록  
우두커니 천정만 바라보며 있었다고  
하면 될까, 나를 살아 있게 했던  
모든 티끌과 진액이 흘러내리도록

사북에서, 다만

흐르는 물도 고드름도 검다.  
굴러내리는 돌의 웃음도 검다.  
아직 죽지 않은 나무뿌리도  
검다. 검은 벽 위에  
써내려간 글씨도 검다.  
창문도 계단도 난간도 검다.  
그곳에 이르기 위한 길도 검다.  
검은 쪼가리들을 모아 피워올리는 연기는   
희다.

허

때로는 타고 가는 기차의 앞머리가 보인다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포물선을 그리며 철로를 지날 때   
그 휘어짐 속에서는 보인다   
어떤 대열 속에 몸을 싣고 있는지   
대열이 더듬이를 어디로 옮겨가는지   
질주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게   
언뜻 보인다   
풍경보다 내 몸이 먼저 보이는 때가 있다   
절망의 아가리 속으로 막 들어서는 순간조차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는   
참담함, 이 느리고도 쓸쓸한 대면이여   
기차는 천천히 제 옆구리를 보여준다   
어서 나를 찌르라고

떨기나무 덤불 있다면

내가 기대어 살아온 것은 정작   
허기에 불과했던 것일까   
채우면 이내 사라지는, 허나   
다시 배고픈 영혼이 되어   
무언가를 불러대던 소리, 눈빛, 몸짓, 저 냄새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은   
그런 지푸라기에 붙인 불꽃이었을까   
그러나 허기가 아니었다면   
한 눈빛   
어떤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한 손이 다른 손을 잡을 수는 있었을까   
허기로 견디던 한 시절은 가고, 이제   
발자국조차 남길 수 없는 자갈밭 같은 시대   
거기 메아리를 얻지 못한 소리들만 갈앉아   
뜨겁게 자갈을 달구는 시대   
불타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덤불 있다면   
그 앞에 신이라도 벗어야겠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리로 그리로 기울고 싶다

살아 있어야 할 이유

가슴의 피를 조금씩 식게 하고   
차가운 손으로 제 가슴을 문질러   
온갖 열망과 푸른 고집들 가라앉히며   
단 한 순간 타오르다 사라지는 이여   
스스로 떠난다는 것이   
저리도 눈부시고 환한 일이라고   
땅에 뒹굴면서도 말하는 이여   
한번은 제 슬픔의 무게에 물들고   
붉은 석양에 다시 물들며   
저물어가는 그대, 그러나 나는   
저물고 싶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내리는 시절이라 하지만   
푸르죽죽한 빛으로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떨면서라도   
내 안의 물기 내어줄 수 없습니다   
눅눅한 유월의 독기를 견디며 피어나던   
그 여름 때늦은 진달래처럼

배추의 마음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내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보다

신정 6-1 지구

끊임없이 무엇인가 세워지는 곳에 사는 일은, 폐허에 사는 일보다, 더 고통스럽다, 집에 갇혀 있던 흙들은 수십년 만에 풀려나와, 햇빛를 껴안아본다, 그러나 이내 무료한 표정으로 돌아가, 더 견고한 벽 속에 갇히기를 기다리며 푸석해진다, 휘어진 철근 사이, 콘크리트덩이들이 먹다 남은 살점처럼 걸려 있고, 반쯤 깨어져나간 항아리가 하늘을 벌써 몇입 베어먹었다, 햇살은 찡그리며 그 칼날 위에 눕는다, 내일은 어느 집이 헐려나갈까, 내 몸이 나를 모르듯, 저 낡은 지붕들도 제 때를 모르고, 손바닥만한 텃밭을 일구던 늙은 손도 그 끝을 모르고, 다만, 내일이라는 믿음이 벽을 낳고, 새로운 지붕을 낳고, 흙은 다시 그 속에 갇혀 마음으로나 쑥갓 상추 따위를 기르겠지, 큰 희망이 작은 희망을 내쫓고, 높은 지붕이 낮은 지붕을 삼키며, 끊임없이, 그림자가 길어지는, 그곳에서

정도리에서

모난 돌은 하나도 없더라   
정 맞은 마음들만   
더는 무디어질 것도 없는 마음들만   
등과 등을 대고 누워   
솨르르 솨르르 파도에 쓸리어가면서   
더 깊은 바닥으로 잠기는 자갈들   
그렇게도 둥글게 살라는 말인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안개는 출렁거리지 않고도 말한다   
저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조각배는 뭍에 매어져 달아나지 못한다   
묶인 발을 견디며 살라는 말인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타오르지도 녹아 흐르지도 않는 안개 너머로   
막막한 어둠의 등이 보이고   
종일 돌팔매질이나 하다 돌아가는   
내가 거기 보이고

여기에 평화가 있어

유난히 낮은 지붕들   
언제 바람에 날려갈지 모르는,   
바로 내일 포크레인이 밀고들어올지 모르는,   
그러나 여기에 평화가 있어   
햇살 맑은 아침이면 빨래를 널고   
찢기고 잘린 평화가   
조각이불 위에서 빛나고 있네   
  
급식우유 남겨다가   
강아지를 먹이는 아이들, 그 손등에는   
때 절은 평화가 있고   
슬리퍼 끌고 장보러 가면서   
잊지 않는 길인사, 아낙들의 웃음소리에   
떠들썩한 평화가 있네   
  
밤새워 빛나는 삿갓외등 아래   
비척거리며 돌아오는 아버지,   
그 기울어진 어깨에도 평화는 있어   
한숨과 눈물에 어린 평화가   
둑방 넘어 안양천에 섞여 흐르네   
  
쓰러진 문짝을 쪼개 모닥불을 지피며   
식구들의 잠머리를 지키는 밤   
그들에게 전부인 이 평화를 지키는 건   
사람만이 아니네   
그들이 치는 개와 닭의 울음소리만이 아니네

학교다녀오겠습니다아

깨어진 블럭 사이 민들레가 곱다  
열살박이들이 지나가며 재잘거리는 소리가  
이 동네의 아침을 연다  
학교다녀오겠습니다아 --  
떠나갈 듯 인사하고 뛰어간 아이들이  
웬일인지 조막손을 꼭 쥔 채 달음질쳐 돌아온다  
놀란 강아지처럼 엄마의 치맛자락에 숨는다  
제비도 놀라 몸을 뒤집으며 날아간다  
그래도 학교에는 가야지 --  
끝나는 대로 돌아와야 한다 --  
그새 집이 없어지면, 없어지면 --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간신히 달래 보내는 엄마의 등뒤로  
민들레 홀씨 어지럽게 날린다  
흙먼지와 연기 속으로 아이들이 자욱해진다  
민들레 노란 꽃잎에 핏물이 밴다  
내일 아침 아이들은   
어느 곳에서 깨어나 인사를 할 것인가  
학교다녀오겠습니다아 --

걸음을 멈추고

그 나무를  
오늘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내가 삭정이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이십 년 후의 내가 그루터기에 앉아 있는 것 같아  
한쪽이 베어져 나간 나무 앞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덩굴손이 자라고 있는 것인지요  
내가 아니면서 나의 일부인,  
내 의지와는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자라나  
나를 온통 휘감았던 덩굴손에게 낫을 대던 날,  
그해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을 용서한 것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릅니다  
덩굴자락에 휘감긴 한쪽 가지를 쳐내고도  
살아 있는 저 나무를 보세요  
무엇이든 쳐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해 여름, 그러나 이렇게 걸음을 멈추는 것은  
잘려나간 가지가 아파오기 때문일까요  
사라진 가지에 순간 꽃이 피어나기 때문일까요

귀뚜라미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걷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두부

언제부터인가 두부가 싫어졌다  
두부만으로도 푸짐했던 시절은 갔다고들 한다  
그러나 퇴근길에 두부 한 모 사들고 오면서  
왠지 즐겁고 든든해지던 날들이 있었다  
   
따뜻한 김이 나는 두부를  
부서질까 조심스레 들고 와서  
기름에 부쳐먹고 된장찌개에도 넣고  
으깨어 아기 입에도 넣어주었지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맘씨처럼  
정에 약해 곧잘 부서져내리기도 하고  
뜨거운 된장 속에서 가슴 부푸는  
그런, 두부를 나도 모르게 잊고 살다니!  
   
시장바닥에 좌판을 벌여놓은 아줌마  
옆구리에 어린애를 끼고 앉아   
김치에 날두부를 싸서 늦은 점심을 먹는 모습이  
어찌나 맛있게 보이던지!  
   
오랜만에 두부 한 모 사들고 돌아온다  
두부에게로 돌아온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진 밤하늘에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껍질이며   
거기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고, 아니면 겨울 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깃들여 살다가   
그것이 마르는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내가 마실 갈 때

마음이 하수구처럼 꾸룩거릴 때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그곳에 가야지  
   
나를 씻어줄 강물 있는 곳  
물줄기도 즈이들끼리 만나는 그곳  
   
어느날 내 발목을 끌러 마실 간다  
양평장날에 왔던 아낙들  
봉다리 몇개씩 들고 올라타자  
버스는 강을 따라 시원스럽게 달린다  
   
플라스틱 도시락, 설탕 한 포, 북어포,  
그런 걸 사려고 강 따라 머리 날리며  
그들은 마실을 나왔나  
양수리에도 있을 그런 것들을  
   
나는 못견뎌 양수리로 가는데  
그 양수리에는 어떤 못견딤이 있어  
이 버스 안, 조는 얼굴로 만나는가  
   
급정거할 때마다  
내 안에 출렁거리던 물결  
창틀에 부딪혀 쓷아질 듯하고  
   
양수리, 마실 나온 마음들이 스치는 곳  
삶보다는 강물이 길게 흐르는, 그곳

태풍

바람아, 나를 마셔라.   
단숨에 비워내거라.   
내 가슴속 모든 흐느낌을 가져다   
저 나부끼는 것들에게 주리라.   
울 수 있는 것들은 울고   
꺾일 수 있는 것들은 꺾이도록.   
그럴 수도 없는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져서   
신음도 없이 지푸라기처럼 날아오르리.   
바람아, 풀잎 하나에나 기대어 부르는   
나의 노래조차 쓸어가버려라.   
울컥울컥 내 설움 데려가거라.   
그러면 살아가리라,   
네 미친 울음 끝   
가장 고요한 눈동자 속에 태어나.

해질녘의 노래

아직은 문을 닫지 마셔요 햇빛이 반짝거려야 할 시간 은 조금 더 남아 있구요 새들에게는 못다 부른 노래가 있다고 해요 저 궁창에는 내려야 할 소나기가 떠다니고요 우리의 발자국을 기다리는 길들이 저 멀리서 흘러오네요 저뭇한 창 밖을 보셔요 혹시 당신의 젊은 날들이 어린 아들이 되어 돌아오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즈막 지치고 힘든 날들이었지만 아직은 열려 있을 문을 향해서 힘껏 뛰어오고 있을 거예요 잠시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되었다고 한 후에도 열은 더 세어보세요 그리고 제 발로 걸어들어온 것들은 아무것도 내쫓지 마셔요 어둠의 한자락까지 따라 들어온다 해도 문틈에 낀 그 옷자락을 찢지는 마셔요

거스름돈에 대한 생각

삶은 왜  
내가 던진 돌멩이가 아니라  
그것이 일으킨 물무늬로서 오는 것이며  
한줄기 빛이 아니라  
그 그림자로서 오는 것일까  
  
왜 거스름돈으로서 주어지는 것일까  
  
거슬러 받은 오늘 하루,  
몇개의 동전이 주머니에서 쩔렁거린다  
종소리처럼 아프게 나를 깨우며  
  
삶을 받은 것은   
무언가 지불했기 때문이다

용서

덩굴을 거두어낸 수박밭에  
남은 수박들이 몇개 뒹굴고 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게 있다는 것  
보잘것없기에 남겨진다는 것  
   
수박의 형상으로  
더이상 수박이 아닐 때까지  
밭의 고요와 싸우며  
흐르는 진물은 하늘에 대고 닦는다  
   
용서는 가장 혹독한 형벌,  
기억 속에서는 수박들이 물씬 썩어간다

낙조

한때 입을 벌려서 먹이를 찾고  
숨을 쉬던, 그 모든 삶이  
조각난 슬픔으로 바닷가에 뒹굴 때  
내 필생의 조개껍데기 다 주울 수 없어  
그 부스러기들에게 온몸을 긁히며  
이 끝에서 저끝으로 무릎을 끌며 기어도  
다 주울 수 없어   
낙조에 잠긴 바닷물이  
더운 혀를 내밀듯 내 발등을 쓸어가고  
잠시 허리를 펴고 바라보면  
많기도 해라  
부서져 삶의 가장자리에 쌓이는 것들  
이렇게 부서져서나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들  
깊은 뒤척임 끝에 토해낸 신음소리 같은 것들  
그래도 몇 줍지 못해 날은 저물고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살았을 때의 어떤 말보다   
아름다웠던 한마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잎을 노랗게 물들였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잎을 스쳤을 뿐인데   
때로는 여름에도 낙엽이 진다.   
온통 물든 것들은 어디로 가나.   
사라짐으로 하여   
남겨진 말들은 아름다울 수 있었다.   
말이 아니어도, 잦아지는 숨소리,   
일그러진 표정과 차마 감지 못한 두 눈까지도   
더이상 아프지 않은 그 순간   
삶을 꿰매는 마지막 한땀처럼   
낙엽이 진다.   
낙엽이 내 젖은 신발창에 따라와   
문턱을 넘는다, 아직은 여름인데.

후회도 없이

뒤엉켜 살지 않고는 온전할 수 없었던   
등나무, 그 시간들이   
이제 뼈만 남아 흐르고 있다   
  
지주목이든 제 식솔이든   
휘감고 뻗어가는 것만이 진실이었다는 듯   
무성했던 집념의 흔적들을 내보인다   
  
초록의 이불 걷어내고야   
등불 같던 꽃송이 깨뜨리고 나서야   
냉기 가득한 뼛속에 바람이 분다   
  
더 이상 휘감을 것도 없는 날에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다가   
제 몸이나 몇바퀴 더 감아보면서   
  
하늘이 머리카락 잡아당기면   
끄덩이 잡힌 채 벽에 머리나 찧으면서

이 골방은

삶의 막바지에서   
바위 뒤에 숨듯 이 골방에 찾아와   
몸을 눕혔을 그림자들   
그 그림자들에 나를 겹쳐 누이며,   
못이 뽑혀나간 자국처럼   
거미가 남겨놓은 거미줄처럼 어려 있는   
그들의 흔적을 오래 더듬어보는 방   
내 안의 후미진 골방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 방   
세상의 숨죽인 골방들, 그 끊어진 길이   
하늘의 별자리로 만나 빛나고 있다.

봄길에서

꽃은 다시 피어나지 않았다  
단 한 송이도  
입술을 열어 용서라고 발음해주지 않았다  
   
꽃이 난만했던 그 자리쯤  
마른 꽃씨들  
멀건 눈으로 흩어져 있을 뿐  
   
벌도 날아들지 않는 붐길,  
그 누가 안간힘으로  
꽃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일까  
   
불임의 봄, 어떤 울음도  
터져나오지 못하고 어떤 눈부심도  
허락되지 않는 그 길을 따라  
   
누군가 마음 터뜨려 괜찮다 괜찮다 대답해주기 전에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다

등이 시린일

눈 위에,   
소복하게 쌓인 눈 위에   
나는 큰대자로 눕는다   
  
예전의 이 자리   
한자도 넘게 쌓인 낙엽더미였는데   
그땐 온기조차 느껴졌는데   
이젠 제법 서늘하다는 생각을 한다   
  
체온 때문에 눈이 녹는지   
등이 시려온다   
그동안의 세월이 몸속에서 역류하며   
자꾸만 눈을 꺼뜨린다   
금방 낙엽에 가 닿을 것도 같다   
  
눈 녹은 물이 나를 타고 흐른다   
등창 위로 꽃피는 상처   
등에 등을 대고 사는 일   
갈수록 시린 일이 아니냐고   
나는 그에게 묻는다

길 위에서

길을 잃고 나서야 나는   
누군가의 길을 잃게 했음을 깨닳았다   
그리고 어떤 개미를 기억해 내었다   
눅눅한 벽지위 개미의 길을   
무심코 손가락으로 문질러버린 일이 있었다   
  
돌아오던 개미는 지워진 길앞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전혀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다   
제 길 위에 놓아주려 했지만   
그럴수록 개미는 발버둥치며 달아나버렸다.   
  
길을 잃고 나서야 생각한다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냄새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길과 냄새를   
흐려놓았던지, 나의 발길은   
아직도 길 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나 서른이 되면

어둠과 취기에 감았던 눈을   
밝아오는 빛 속에 떠야 한다는 것이,   
그 눈으로   
삶의 새로운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 입술로   
눈물 젖은 희망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나는 두렵다.   
어제 너를 내리쳤던 그 손으로   
오늘 네 뺨을 어루만지려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결국 치욕과 사랑은 하나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가을비에 낙엽은 길을 재촉해 떠나가지만   
그 둔덕, 낙엽 사이로   
쑥풀이 한갓 희망처럼 물오르고 있는 걸   
하나의 가슴으로   
맞고 보내는 아침이 이렇게 눈물겨웁다.   
잘 길들여진 발과   
어디로 떠나갈지 모르는 발을 함께 달고서   
그렇게라도 걷고 걸어서   
나 서른이 되면   
그것들의 하나됨을 이해하게 될까.   
두려움에 대하여 통증에 대하여   
그러나 사랑에 대하여   
무어라 한마디 말할 수 있게 될까.   
생존을 위해 주검을 끌고가는 개미들처럼   
그 주검으로도   
어린것들의 살이 오른다는 걸   
나 감사하게 될까. 서른이 되면.

그때엔 흙에서 흙냄새 나겠지

가야지 어서 가야   
나의 누추함이   
그대의 누추함이 되기 전에   
담벼락 아래 까맣게 영그는 분꽃씨앗   
떨어져 구르기 전에   
꽃받침이 시들기 전에   
무엇을 더 보탤 것도 없이   
어두워져가는 그림자 끌고   
어디 흙속에나 숨어야지   
참 길게 울었던 매미처럼   
빈 마음으로 가야지   
그때엔 흙에서 흙냄새 나겠지   
나도 다시 예뻐지겠지   
몇겁의 세월이 흘러   
그대 지나갈 과수원길에   
털복숭아 한 개   
그대 내 솜털에 눈부셔하겠지   
손등이 자꾸만 따갑고 가려워져서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2001)]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 가만히 들었습니다   
흰 실과 검은 실을 더는 알아볼 수 없을때까지

上弦

차오르는 몸이 무거웠던지  
새벽녘 능선 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다  
  
神도 이렇게 들키는 때가 있으니!  
  
때로 그녀도 발에 흙을 묻힌다는 것을  
외딴 산모퉁이를 돌며 나는 훔쳐보았던 것인데  
어느새 눈치를 챘는지  
조금 붉어진 얼굴로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저만치 가고 있다  
  
그녀가 앉았던 궁둥이 흔적이  
저 능선 위에는 아직 남아 있을 것이어서  
능선 근처 나무들은 환한 상처를 지녔을 것이다  
뜨거운 숯불에 입술을 씻었던 이사야처럼

석류(石榴)

石榴 (석류)   
  
  
석류 몇알을 두고도 열 엄두를 못 내었다   
  
뒤늦게 석류를 쪼갠다   
도무지 열리지 않는 門처럼   
앙다문 이빨로 꽉 찬,   
핏빛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네 마음과도 같은   
석류를   
  
그 굳은 껍질을 벗기며   
나는 보이지 않는 너를 향해 중얼거린다   
  
입을 열어봐   
내 입속의 말을 줄게   
새의 혀처럼 보이지 않는 말을   
그러니 입을 열어봐   
조금은 쓰기도 하고 붉기도 한 너의 울음이   
내 혀를 적시도록   
  
뒤늦게, 그러나 너무 늦지는 않게

저 숲에 누가 있다

밤구름이 잘 익은 달을 낳고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숨어버린 후   
숲에서는... 툭... 탁... 타닥...   
상수리나무가 이따금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   
제 열매를 던지고 있다   
열매가 저절로 터지기 위해   
나무는 얼마나 입술을 둥글게 오므렸을까   
검은 숲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말소리,   
나는 그제야 알게도 된다   
열매는 번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무가 말을 하고 싶은 때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타다닥... 따악... 톡...타르르...   
무언가 짧게 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박수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들은 무슨 냄새처럼 나를 숲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나 어둠으로 꽉 찬 가을 숲에서   
밤새 제 열매를 던지고 있는 그의 얼굴을   
끝내 보지 않아도 좋으리   
그가 던진 둥근 말 몇개가   
걸어가던 내 복숭아뼈쯤에... 탁... 굴러와 박혔으니

허락된 과식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햇빛이 가득한 건   
근래에 보기 드문 일   
  
오랜 허기를채우려고   
맨발 몇이   
봄날 오후 산자락에 누워 있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햇빛을   
연초록 잎들이 그렇게 하듯이   
핥아먹고 빨아먹고 꼭꼭 씹어도 먹고   
허천난 듯 먹고 마셔댔지만   
  
그래도 남아도는 열두 광주리의 햇빛!

기러기떼

羊(양)이 큰 것을 美(미)라 하지만  
저는 새가 너무 많은 것을 슬픔이라 부르겠습니다  
  
철원 들판을 건너는 기러기떼는  
끝도 없이 밀려오는 잔물결 같고  
그 물결 거슬러 떠가는 나룻배들 같습니다  
바위 끝에 하염없이 앉아 있으면  
삐걱삐걱, 낡은 노를 젓는 날개소리 들립니다  
어찌 들어보면 퍼걱퍼걱, 무언가  
헛것을 퍼내는 삽질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도  
내 몸 속의 찬 강물 줄어들지 않습니다  
흘러 보내도 흘려 보내도 다시 밀려오는  
저 아스라한 새들은  
작은 밥상에 놓인 너무 많은 젓가락들 같고  
뻐걱뻐걱 노 젓는 날개소리는  
한 접시 위에서 젓가락들이 맞부비는 소리 같습니다  
그 서러운 젓가락들이  
한쪽 모서리가 부서진 밥상을 끌고  
오늘 저녁 어느 하늘을 지나고 있는지  
  
새가 너무 많은 것을 슬픔이라 부르고 나니  
새들은 자꾸 날아와 저문 하늘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이제 노 젓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구름 옮겨가는 소리   
지붕이 지붕에게 중얼거리는 소리   
그 소리에 뒤척이는 길 위로   
모녀가 손잡고 마을을 내려오는 소리   
발 밑의 흙이 자글거리는 소리   
계곡물이 얼음장 건드리며 가는 소리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송아지   
다시 고개 돌리고 여물 되새기는 소리   
마른 꽃대들 싸르락거리는 소리

어두워진다는 것

5시 44분의 방이  
5시 45분의 방에게  
누워 있는 나를 넘겨주는 것  
슬픈 집 한 채를 들여다보듯  
몸을 비추던 햇살이  
불현듯 그 온기를 거두어가는 것  
멀리서 수원은사시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고  
나무 껍질이 시들기 시작하는 것  
시든 손등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  
5시 45분에서 기억은 멈추어 있고  
어둠은 더 깊어지지 않고  
아무도 쓰러진 나무를 거두어가지 않는 것  
  
그토록 오래 서 있었던 뼈와 살  
비로소 아프기 시작하고  
가만, 가만, 가만히  
금이 간 갈비뼈를 혼자 쓰다듬는 저녁

몰약처럼 비는 내리고

뿌리뽑힌 줄도 모르고 나는  
몇줌 흙을 아직 움켜쥐고 있었구나  
자꾸만 목이 말라와  
화사한 꽃까지 한무더기 피웠구나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弔花인 줄도 모르고  
  
오늘밤 무슨 몰약처럼 밤비가 내려  
시들어가는 몸을 씻어내리니  
달게 와닿는 빗방울마다  
너무 많은 소리들이 숨쉬고 있다  
  
내 눈에서 흘러내린 붉은 진물이  
낮은 흙 속에 스며들었으니  
한 삼일은 눈을 뜨고 있을 수 있겠다  
  
저기 웅크린 채 비를 맞는 까치는  
무거워지는 날개만큼 말이 없는데  
그가 다시 가벼워진 깃을 털고 날아갈 무렵이면  
나도 꾸벅거리며 밤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고맙다, 비야. 고맙다. 고맙다..

흰 광목빛

먼 길 가는 모양이다  
동네 어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어떤 부부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조금은 떨어져 선 두 사람은  
목도리가 같아서인지 한눈에 부부 같다  
지아비가 한 손을 올린 채 앞으로 나와 있고  
지어미는 조금 뒤에서 웃고 있다  
시골버스의 유일한 승객인 나는  
그 부부를 발견하고 내심 반가웠지만  
운전기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치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이 늘 거기 서 있으면서도  
한번도 버스를 탄 적이 없다는 듯이  
아아, 버스로는 이를 수 없는 먼길 가는 모양이다  
그 부부는 이미 오랜 길을 걸어 저기 당도했을 것이고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갈하게 풀을 먹인 광목 목도리는  
누가 둘러주고 간 것일까  
목도리에 땀을 닦고 있을 그들을 뒤돌아보니  
미륵 한쌍이 석양 속으로 사라진다  
두 개의 점, 흰 광목빛

小滿

이만하면 세상을 채울 만하다 싶은  
꼭 그런 때가 초록에게는 있다  
  
조금은 빈 것도 같게  
조금은 넘을 것도 같게  
  
초록이 찰랑찰랑 차오르고 나면  
내 마음의 그늘도  
꼭 이만하게는 드리워지는 때  
초록의 물비늘이 마지막으로 빛나는 때  
  
小滿 지나  
넘치는 것은 어둠뿐이라는 듯  
이제 무성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듯  
나무는 그늘로만 이야기하고  
그 어둔 말 아래 맥문동이 보랏빛 꽃을 피우고  
  
小滿 지나면 들리는 소리  
초록이 물비린내 풍기며 중얼거리는 소리  
누가 내 발등을 덮어다오  
이 부끄러운 발등을 좀 덮어다오

흙 속의 풍경

미안합니다   
무릉계에 가고 말았습니다  
무릉 속의 폐허를,  
사라진 이파리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일이지요  
흙을 마악 뚫고 나온 눈동자가 나를 본 것은  
겨울을 건너온 그 창 끝에  
나는 통증도 없이 눈멀었지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봄에 갔던 길을 가을에 다시 가고 말았습니다  
길의 그림자가, 그때는 잘 보이지 않던  
흙 속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무디어진 시간 속에 깊이 처박힌 잎들은 말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 밟고 가라고  
내 눈은 깨어나 무거워진 잎들을 밟고 갑니다  
더 이상 나부끼지 않으므로  
더 이상 무겁지 않는 生, 차라리  
다시 눈멀었더라면 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비한 현호색은 진 지 오래고  
그 塊莖(괴경) 속에 숨기고 있는 毒(독)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걸 캐다가 옮겨 심지는 않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무등계에 가더라도 편지하지 마십시오  
그 빛나던 이파리들은 이미 제것이 아닙니다

이따금 봄이 찾아와

내 말이 네게로 흐르지 못한 지 오래 되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중에서 얼어붙는다   
허공에 닿자 굳어버리는 거미줄처럼   
  
침묵의 소문만이 무성할 뿐   
말의 얼음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따금 봄이 차자와   
새로 햇빛을 받은 말들이   
따뜻한 물 속에 녹기 시작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아지랑이처럼   
물 오른 말이 다른 말을 부르고 있다   
  
부디,   
이 소란스러움을 용서하시라

일곱 살 때의 독서

일곱살 때의 독서   
  
  
제 빛남의 무게만으로   
하늘의 구멍을 막고 있던 별들, 그날 밤   
하늘의 누수는 시작되었다 하늘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이었던가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하늘은 울컥울컥 쏟아져서   
우리의 잠자리를 적시고 바다로 흘러들었다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전갈의 붉은 심장이   
깜박깜박 울던 초여름밤 우리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바닷가 어느 집터에서, 지붕도 바닥도 없이   
블럭 몇 장이 바람을 막아 주던 차가운 모래   
위에서 킬킬거리며, 담요를 밀고 당기며 잠이 들었다   
모래와 하늘, 그토록 확실한 바닥과 천장이   
우리의 잠을 에워싸다니, 나는 하늘이 달아날까 봐   
몇 번이나 선잠이 깨어 그 거대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날 밤 파도와 함께 밤하늘을   
다 읽어 버렸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그날 밤 하늘의 한 페이지를 훔쳤다는 걸,   
그 한 페이지를 어느 책갈피에 끼워 넣었는지를

방석 위의 생

이 방석을 어느 방석 옆에 내려놓을 것인가   
늘 그게 문제인 사람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동안   
  
방석이 방석을 낳고, 방석이 방석을 밟고,   
방석이 방석을 밀고, 방석이 방석을 끌고,   
방석이 방석에게 웃고, 방석이 방석에게 소리지르고,   
방석이 방석과 속삭이고, 방석이 방석과 헤어지고,   
다시 방석이 방석을 낳고, 방석이 방석을 낳고, 방석이…   
  
저마다 방석을 들고 기웃거리는 삶이라니!   
  
그날, 술자리를 빠져나와 어둔 골목길을 혼자 걷던 날   
하늘에서는 별이 별을 낳고, 별이 별을 낳고,   
내 시린 입김은 얼마 날아가지 못해 공중에서 얼어붙던 날   
어느 집 담벼락 밑에 불씨가 남아 있는 연탄재 두 장   
나는 그 앞에 쪼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구멍이 스물두 개나 뚫린 그 둥근 방석 앞에서

허공 한 줌

이런 얘기를 들었어. 엄마가 깜박 잠이 든 사이 아기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난간 위에서 놀고 있었대. 난간 밖은 허공이었지. 잠에서 깨어난 엄마는 난간의 아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름을 부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숨을 죽이며 아기에게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어. 그러고는 온몸의 힘을 모아 아기를 끌어안았어. 그런데 아기를 향해 내뻗은 두 손에 잡힌 것은 허공 한줌뿐이었지. 순간 엄마는 숨이 그만 멎어버렸어. 다행히도 아기는 난간 이쪽으로 굴러 떨어졌지. 아기가 울자 죽은 엄마는 꿈에서 깬 듯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어.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어. 죽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뉘었어. 아기를 토닥거리면서 곁에 누운 엄마는 그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지.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지 몰라.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비어 있는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 텅 비어 있을 때에도 그것은 꽉 차 있곤 했지. 수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날밤 참으로 많은 걸 놓아주었어. 허공 한줌까지도 허공에 돌려주려는 듯 말야.

월식(月蝕)

月蝕  
  
  
  
월식을 구경하러 숲으로 간 사람들 짧지만  
창문 하나 없는 수술실 복도에도  
하룻밤 사이 수십개의 달이 이운다  
  
불이 환하게 켜진 수술대 위에서  
점점 여위어 가는 달  
  
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달이  
해에서 가장 가까운 달에게로 걸어가고 있다  
달 속의 해와 해 속의 달이 만나고 있다  
  
저토록 밝은데 이토록 어둡다니,  
네 얼굴이 차츰 여위는 것은  
내 그림자 때문이다  
미안하다, 너를 비껴가지 못했다  
  
열리지 않는 수술실 유리문에서  
컹, 컹, 컹, 절망의 개가 달을 잡아먹고 있다

벽오동의 上部

나는 어제의 풍경을 꺼내 다시 씹기 시작한다  
6층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앞비탈에 자라는 벽오동을 잘 볼 수 있다  
며칠 전만 해도 오동꽃 사이로 벌들이 들락거리더니  
벽오동의 풍경은 이미 단물이 많이 빠졌다  
꽃이 나무를 버린 것인지 나무가  
꽃을 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꽃을 잃고 난 직후의 벽오동의 표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발견이다  
꽃이 마악 떨어져나간 자리에는  
일곱살 계집애의 젖망울 같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풍경을 매일 꼭꼭 씹어서 키우고 있다  
누구도 꽃을 잃고 완고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6층에 와서 벽오동의 上部를 보며 배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칠고 딱딱한 열매도  
저토록 환하고 부드러운 금빛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씨방이 닫혀버린 벽오동의 열매 사이로  
말벌 몇 마리가 찾아들곤 하는 것도  
그 금빛에 이끌려서일 것이다  
그러나 저 눈이 어두운 말벌들은 모르리라  
캄캄한 씨방 속에 갇힌 꿈들이 어떻게 단단해지는가를  
내 어금니에 물린 검은 씨가 어떻게 완고해지는가를

사과밭을 지나며

가을엔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부려야 할 몸이 무겁다는 듯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사과나무,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그 휘어진 빈 가지는 펴지지 않는다  
아직 짊어질 게 남았다는 듯  
  
그에겐 허공이, 열매의 자리마다 비어 있는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빈 가지에 나비가 잠시 앉았다 날아간다  
무슨 축복처럼 눈 앞이 환해진다  
아, 네가,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 놓았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질 수 있을까  
꿰맨 자국 하나 없는 나비의 날개보다  
오늘은 내 百結의 옷이 한결 가볍겠구나  
  
아주 뒤늦게 툭, 떨어지는 사과 한 알  
사과 한 알을 내려놓는 데   
오 년이 걸렸다

탱자

한아름 따온 탱자는 가을과 함께 썩어간다  
과즙이 향유가 된는 건  
놀라움이 식지 않았을 때의 일  
물에서 건저온 조약돌의 빛이 식어가듯  
탱자는 시들기 시작하고  
탱자를 담고 있던, 아니 숨기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는 하루하루 부풀어오르고 있다  
탱자나무 울타리를 지나오면서 나는  
썩어갈 슬픔 하나를 데리고 왔는지 모른다  
   
며칠 전부터 비닐봉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 속에 누가 갇혀 있는가  
검은 살을 찢고 나오려는 푸른 가시들  
제 가시에 찔려 눈이 먼 탱자꽃  
   
탱자꽃 핀다 탱자꽃 핀다 썩어 문드러진 탱자 속에서

버려진 화분

길가에 버려진 화분이여  
  
한줌 흙 대신 차라리  
우글거리는 이 가슴을 받아라  
  
네 속에서  
벌레들이 싹틀 것이다

거미에 씌다

가만히 좀 있어봐, 하면서  
그는 내 얼굴에서 거미줄을 떼어낸다  
저녁에 옷을 갈아입다 보면  
윗도리에도 거미줄이 한 웅큼 뭉쳐져 있다  
  
낮은 허공에 걸려 있던 거미줄이  
얼굴을 확 덮치던 그날부터  
내 울음은 허공에 닿아 거미줄이 되었다  
버둥거리며 거미줄을 떼어냈지만  
내 얼굴에선 한없이 거미줄이 뽑혀나왔다  
울음으로 질겨진 거미줄 위에서  
  
때로는 흰 꽃잎을  
때로는 부서진 나비 날개나 모기 다리를  
건져 올리며 까맣게 늙어가는 동안  
울음도 함께 늙어 말수가 줄어드는 것일까  
나는 내 울음이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둘러앉아 사람들은 말한다  
가만히 좀 있어봐, 거미줄이 묻었어,  
조금은 거미인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것이다

잠을 들다

잠 이라는 빵을  
그는 어제 아침부터 뜯어먹고 있다  
삼복더위에 솜바지를 입고  
시장 입구 버려진 철제 케비닛에 기대어  
하염없이 하염없이 잠을 들고 있다  
건어물상을 나와 정육점에 들어갔던 파리는  
과일가게 앞 쪼개놓은 수박의 붉은 살 위에 앉았다가  
그의 콧잔등에 날아와 잠을 빨아먹고 있다  
그러나 굳게 닫힌 그의 두 눈은  
잠을 삼키느라 여념이 없고  
마를대로 메마른 입술은  
잠을 씹느라 움직일 줄을 모른다  
그의 팔다리 역시  
고픈 잠이 아직 남아 있는지  
녹슨 캐비닛보다 더 굳게 잠겨 있다  
그는 땀조차 흘리지 않는다  
잠시도 잠들지 않는 시장 입구에서  
그는 어제부터 잠 말고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처럼  
이따금 입 밖으로 흰 액체를 흘려보낸다  
그를 둘러싼 공기들이 석회질처럼 굳어간다.

만화경 속의 서울역

지하도를 거의 걸어 올라왔을 때 계단에 앉아 등 긁는 대막대기를 파는 사내가 보였다 음산한 눈빛과 질겅거리는 입술, 그가 나를 향해 뱉은 말이 껌처럼 얼굴에 달라붙었다 떼어내려고 할수록 더욱더 들러붙는 이 낯선 물컹거림, 한 여자의 불룩하게 드러난 가슴이 붉은 물감 덩어리처럼 울컥 눈 속으로 쏟아져내리고 그녀와 팔짱을 끼고 걸어오던 중년 남자의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뜨거운 시멘트 바닥 위에 알을 까려는지 나비 몇 마리가 낮게 낮게 파닥거리고 조화가 만발한 화단 곁으로 비루먹은 개들이 어슬렁거렸다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한 아이, 그 운동화 바닥에 코울타르처럼 남겨진 나비의 진액  
  
누구일까,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역광장으로  
정오의 햇빛을 반사시켜 쏘아보내고 있는 것은  
개찰구를 행해 또박또박 걸어가던 나에게  
그 확신이야말로 거대한 착란이라고 속삭이고있는 것은  
이 취기에 물든 화엄 속으로 나를 미끄러뜨린 것은

돌베개의 꿈

딱딱한 돌을 베고 누워  
얼마나 오랜 꿈을 꾼 것일까  
  
계단은 늘었다 줄었다 한다  
아코디언처럼  
누군가 계단을 불고 있다  
  
한 걸음 올라가려고 하면  
출렁 계단은 늘어나 휘어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차르륵 계단은 줄어들어 달팽이집만해진다  
누가 내 길을 불고 있는 것일까  
  
쉴새없이 출렁거리는 계단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걸터 앉아  
까마득한 위를 올려다 본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잃은 건 아니다  
  
빛의 마디 마디를 오르내리며  
끝내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의 옷자락  
나는 얼마나 오래 싸웠던 것일까  
  
찢겨진 그 옷자락

눈의 눈

봄이 가까워질수록  
눈은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햇빛이 시려워 시려워서  
  
피워놓은 눈꽃을 자꾸만 꺼뜨리며 따라오는  
햇빛의 눈을 피해  
눈은 음지로 음지로 숨어든다  
누구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쫓기지 않고서는 오를 수도 없었을 산정에서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겨우내 연기 한번 피우지 않고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바위틈에 간신히 서려 있다가  
점점 잦아들어, 마침내  
훅 꺼져버린  
눈의  
눈  
  
시린 물  
흘러내리는 이른봄마다 나는  
눈 어두워 알지 못했네  
그것이 한 은둔자의 피라는 것을

사월의 눈

햇빛에게조차 잊혀져 너무 깊이 잠들어버린   
눈의 기억을 잃어버린   
옆으로 옆으로 밀려나 그늘진 비탈 쪽으로 더 깊이 뿌리내린   
흙먼지와 뒤엉켜 아래부터 조금씩 굳어가고 있는   
무기력의 힘으로 너무 단단해진   
다시는 물이 되어 저기 저 시냇가로 돌아갈 수 없는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먼지로 날아오를

그림자

햇빛이 겨누는 창 끝에 놀라   
문득 걸음을 멈춘다   
  
그림자가 짧다   
  
뒤따라오던 불안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헤치고 온 풀마다 누렇게 말라 있다   
시든 풀을 보고 울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나는 덜 여문 잔디씨 몇을 훑어 달아난다   
  
끝내 나를 놓치지 않는 그림자   
흩어지는 잔디씨에도 그림자가 있다

도끼를 위한 달

이제서야 7월의 중반을 넘겼을 뿐인데   
마음에는 11월이 닥치고 있다   
삶의 기복이 늘 달력의 날짜에 맞춰 오는 건 아니라고   
이 폭염 속에 도사린 추위가 말하고 있다   
11월은 도끼를 위한 달이라고 했던 한 자연보전론자의 말처럼   
낙엽이 지고 난 뒤에야 어떤 나무를 베어야 할지 알게 되고   
도끼날을 갈 때 날이 얼어붙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면서   
나무를 베어도 될 만큼 추운 때가 11월이라 한다   
호미를 손에 쥔 열 달의 시간보다   
도끼를 손에 쥔 짧은 순간의 선택이,   
적절한 추위가,   
붓이 아닌 도끼로 씌어진 생활이 필요한 때라 한다   
무엇을 베어낼 것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의 잡목숲을 들여다본다   
  
부실한 잡목과도 같은 生에 도끼의 달이 가까웠으니   
7월의 한복판에서 맞이하는 11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도끼 자루를 다잡아보는 여름날들

해일

숲은 만조다  
바람이란 바람 모두 밀려와 나무들 해초처럼 일렁이고  
일렁임은 일렁임끼리 부딪쳐 자꾸만 파도를 만든다  
숲은 얼마나 오래 웅웅거리는 벌떼들을 키워온 것일까  
아주 먼 데서 온 바람이 숲을 건드리자  
숨죽이고 있던 모래알갱이들까지 우우 일어나 몰려다닌다  
저기 거북의 등처럼 낮게 엎드린 잿빛 바위,  
그 완강한 침묵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듯 숲은 출렁거린다  
아니라 아니라고 온몸을 흔든다 스스로 범람한다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숲은 육탈(肉脫)한다  
부러진 나무가지들 떠내려간다

바람은 왜 등 뒤에서 불어오는가

바람은 왜 등뒤에서 불어오는가   
  
  
바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이 멀 것만 같아   
몸을 더 낮게 웅크리고 엎드려 있었다   
떠내려가기 직전의 나무 뿌리처럼   
모래 한 알을 붙잡고   
오직 바람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그럴수록 바람은 더 세차게 등을 떠밀었다   
  
너를 날려버릴 거야   
너를 날려버릴 거야   
저 금 밖으로, 흙 밖으로   
  
   
수천의 입과 수천의 눈과 수천의 팔을 가진 바람은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누군가의 마른 종아리를 간신히 붙잡았다   
그 순간 눈을 떴다   
  
내가 잡은 것은 뗏목이었다   
아니, 내가 흘러내리는 뗏목이었다

새를 삼킨 나무

가슴 붉은 새 한마리가   
휙, 내 앞을 지나 숲으로 들어간다   
저녁 하늘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빛, 그 빛을 따라   
방금 그 새가 앉은 나무에게로 걸어간다   
분명히 날아오른 기척이 없었는데   
조심스레 다가가 올려다보니   
새가 사라졌다   
  
아, 검은 입으로 새를 삼킨 나무   
  
새의 눈동자만 같은   
붉고 마른 열매   
부리로 제 옆구리를 콕콕 쪼는 소리   
낮게 우는 나뭇가지들   
  
그 새 - 나무 그늘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끝내 나를 삼켜주지는 않고   
어둠만 어둠만 밀려와   
닫혀진 문 앞에서 나 오래도록 서성거리고

축음기의 역사

저 낡은 소리는  
어떤 상처를 읽은 것이다  
  
바늘은  
소리가 남긴 기억을  
그 만져지지 않는 길을  
천천히 되밟으며 지나간다  
  
아무리 여러번 읽어도  
상처의 길은  
더 깊게 패이거나 덧나지 않는다  
닳아가는 것은  
그것을 읽는 바늘끝일 뿐  
  
저 소리로는  
저 소리만으로는  
스스로 암전(暗電)될 수 없어  
  
소리를 기록할 수 있다고 믿게 된 때부터  
상처를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때부터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소리가 태어난 침묵 속으로

돌로 된 잎사귀

박쥐들이 어둠과 내통할 수 있는 건  
앞을 못 보기 때문이다 못 보는 그 힘으로  
어둠속에 길을 낸다  
그 길은 동굴 어디쯤에서 끊겨 있다  
  
이전도 이후도 없는 어둠속에서 무언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꾸만 몸이 추워졌다  
떨고있는 몸을 적시는 물방울,  
母山 아래 숨겨진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돌로 된 잎사귀는 쉬지 않고 자라났다  
  
정말 하룻밤이었을까  
그렇게 많은 물방울이 흘러내렸는데도  
날개소리 그렇게 오래 들렸는데도  
석순 1mm가 채 자라기도 전에 우리 생은 끝나고  
동굴 밖은 지금 몇 세기일까  
그리고 동굴 밖으로 걸어나가는 나는 누구일까  
자꾸만 눈부셔 뒷걸음질치는 나는  
  
다시 눈을 떠보니 母山 어느 상수리나무 그늘이었다  
신기하게도 잎들은 푸르렀고  
새들은 무슨 힘으로 날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

고여있는 그러나 흔들리는(우포에서)

후두둑, 빗방울이 늪을 지나면   
풀들이 화들짝 깨어나 새끼를 치기 시작한다   
녹처럼 번져가는 풀,   
진흙뻘을 기어가는 푸른 등 같기도 하다   
어미 몸을 먹고 자란 우렁이 새끼들도 기어간다   
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풀들 사이로   
빈 우렁이 껍데기들 떠다닌다   
  
기어가는, 그러나 묶여 있는   
고여 있는, 그러나 흔들리는   
  
비가 아니었다면   
늪은 수만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무엇으로 흔들림의 징표를 내보였을까   
  
후두둑,   
후두둑,   
후둑후둑...   
  
늪 위에 빗방울이 그려넣는 무늬들   
  
오래 고여 있던 늪도   
오늘은 몸이 들려 어디로 흘러갈 것만 같다

어떤 하루

그는 종일 집 밖에 나와 있었다. 천천히, 그의 걸음걸이로는 보통으로, 벚나무에서 그 옆의 꽃사과나무까지 기어가는 데 반나절이 걸렸다. 그는 꽃사과나무 위로 오르려다가 문득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몸을 돌린다. 한참 뒤에야, 그에게는 잠깐이지만. 나는 그가 작고 노란 꽃을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무척 시장했는지 여린 꽃잎을 그는 한눈도 팔지 않고 먹어치운다. 꽃은 두 시간 만에 다 비워졌다. 하늘거리는 꽃대를 타고 내려와 이번엔 몸을 누일 그늘을 찾는지 두리번거린다. 그는 내가 따라다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스럽게 내 쪽으로 기어온다, 그러는 동안 다시 반나절이 지났다. 그가 길쭉한 풀 한가닥에 몸을 싣자 풀잎이 잠시 휘청, 한다. 날 선 풀잎 위를 희고 매끄러운 배로 밀고 가는 그는 풀을 꺾지도 몸을 베지도 않고 활처럼 잘 켰다 연주를 끝내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그를 다시 찾아낼 생각은 없었다. 이미 날이 어둬워졌으므로, 집을 읽은 건 그만이 아니므로, 나는 방금 그가 건너간 풀 한가닥 위에 발을 슬며시 올려놓았다

石佛驛

석불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작은 동네에 집이 세 채  
  
그가 돌로부터 왔음을  
불타는 돌이었음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눈 녹는 역사 마당에  
쓰러질 듯 서로를 고이고 있는  
연탄재들  
  
기차가 석불역을 떠나려는 순간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소신공양을 끝내고 막 돋아나는 그 살빛을!

기둥들

기둥들만 남아 있는 신전에 갔었지요.  
그 중 가장 높은 기둥은 사람 키의 수백 배는 되어 보였어요.  
무엇이 기둥을 저토록 높이 올라가게 했을까요?  
하늘에 귀기울이기 위해? 나무에게 말하기 위해?  
다람쥐 한 마리가 기둥 앞에서 오랫동안 귀를 쫑긋거리던데요.  
기둥이 나무들과 주고받는 말을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벽도 천장도 사라졌는데, 도시는 무너지고 언어는 흩어졌는데,  
기둥들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기둥 속에 숨겨진 문을 찾아 나는 두리번거렸지요.  
그 침묵의 궁륭으로 들어가는 입구 말이에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는 어느새 기둥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지하로 뻗은 기둥의 뿌리를 따라 아주 멀리 걸어갔지요.  
이상한 것은 기둥 속에 다시 낮은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기둥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구요.  
"나자로여, 일어나라!"  
역 광장에서 걸어내려온 예언자는 그들을 향해 외쳤어요.  
"어떤 새끼야, 잠도 못 자게 떠들어대는 놈이,"  
얼굴 없는 목소리들이 들렸을 뿐, 아무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차가운 기둥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요.  
무엇이 기둥을 이토록 깊이 뿌리내리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해? 그들을 재우기 위해?  
기둥이 굽은 등짝들과 주고받는 말을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신전의 다람쥐 대신 시궁쥐가 재빠르게 달아나고 있었고  
나는 기둥 밖으로 나가기 위해 허둥거렸어요.  
지하의 마천루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푸르기만 한데  
기둥들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빗방울, 빗방울

버스가 달리는 동안 비는   
사선이다   
세상에 대한 어긋남을   
이토록 경쾌하게 보여주는 유리창   
  
어긋남이 멈추는 순간부터 비는   
수직으로 흘러내린다   
사선을 삼키면서   
굵어지고 무거워지는 빗물   
흘러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더이상 흘러갈 곳이 없으면   
빗물은 창틀에 고여 출렁거린다   
출렁거리는 수평선   
가끔은 엎질러지기도 하면서   
  
빗물, 다시 사선이다   
어둠이 그걸 받아 삼킨다   
순간 사선 위에 깃드는   
그 바람, 그 빛, 그 가벼움, 그 망설임   
  
뛰어내리는 것들의 비애가 사선을 만든다

이 복도에서는

종합병원 복도를 오래 서성거리다 보면   
누구나 울음의 감별사가 된다   
  
울음마다에는 병아리 깃털 같은 결이 있어서   
들썩이는 어깨를 짚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병을 마악 알았을 때의 울음인지   
죽음을 얼마 앞둔 울음인지   
싸늘한 죽음 앞에서의 울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복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울음소리가 들여도 뒤돌아보지 말 것,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것   
  
마른 시냇물처럼 오래 흘러온   
이 울음의 야적장에서는 누구도 그 무게를 달지 않는다

눈은 그가 떠난 줄도 모르고

저, 저, 저 아래서 눈이 올라온다  
공중에 난 발자국들을 지우며  
용서 받을 발자국이 몇씩은 있을 것이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눈발 날리는 소리를 그렇게 간절히도 듣던 귀가 있었다  
  
창문을 열자 허공에서 오래 서성거리던 눈송이 몇점  
더운 손등 위에 깜박거리다 스러진다  
눈석임물처럼 잠시 맺혔다 흘러내리는 게 목숨이어서  
오늘밤 싸늘하게 피가 식는 입술이 있겠지  
어느 마당가에서는 둥근 그릇에 희디흰 눈을 받겠지  
그 그릇이 봉긋하게 차오르면  
또 한 아기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겠지  
아득한 산란, 터져나온 포자들이 날아오르는 밤이면  
허름허름 길 떠나는 발자국도 있어  
  
괜, 찮, 다, ..  
  
괜, 찮, 다, ..  
  
괜, 찮, 다, ..  
  
괜, 찮, 다, ..  
  
눈은 대체 어느 먼 골짜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하염없이 날아오르나 날아오르며 곤두박질치나  
저, 저, 저 아래 골짜기는 깊고 어두워  
눈은 그가 떠난 줄도 모르고 밤새 날아오른다  
눈은 제가 누굴 용서한 줄도 모르고 밤새 내려 앉는다.

눈 묻은 손

노파의 눈 묻은 손이 자꾸만 소쿠리 위로 간다  
  
작고 파란 소쿠리에는  
눈이 반 콩이 반  
  
아무리 가린다 해도 손등보다 밤하늘이 넓으니  
어쩔 수도 없다. 눈을 끼워 파는 수밖에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고  
얼마냐고 묻는 목소리에 눈이 묻는다  
이천원이라는 노파의 목소리에도,  
콩알 섞인 함박눈을 비닐봉지에 털어 넣는 노파가  
받아든 천원짜리 지폐에도 눈이 묻는다  
  
멀리서 눈을 뒤집어쓴 버스가 오고  
나와 눈과 비닐봉지는 눈 속을 펄럭이며 뛰어간다  
  
깜박 잠이 들었던 것일까  
창 밖에 눈 그치고 거기까지 따라온 눈이 길 위에 희다  
그러나 손등의 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내 손에 남겨진 것은 한줌의 젖은 콩에 불과할 뿐

나비를 신고 오다니

잔칫집인지 초상집인지  
문득 둘러앉은 얼굴들 낯설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지럽게 뒤섞인 신발들 속에서  
내 신발 찾을 수 없어 두리번거린다  
신발 한짝은 보이지 않고  
저쪽 유리창에서 날개 다친 나비가  
나를 향해 파닥거리고 있다  
  
나비를 신고 오다니!  
  
한 발은 나비를 신고  
한 발은 땅에 디딘 채  
절뚝절뚝 봄길을 날아 걸어왔느니  
  
나비야, 나비야,  
이 검은 땅 위에 다시 내려와 앉아라  
내가 너를 신겠다  
  
날개란 신기 위해 있는 것이니  
내가 너를 신겠다. 나비야

언덕

언덕은   
내려오고 있다.   
  
늙은 고양이   
어슬렁거리며   
언덕을 내려올 때   
언덕도 몇발짝 따라 내려오고   
  
마른 흙 위에   
나비 앉았다 날아가면   
언덕도 몇줌 따라 날아가고   
  
개나리가 언덕 아래   
몸을 부리고 있는 동안   
언덕은 또 얼마나 많이 내려와 있는지   
중턱의 소나무 몇그루가 간신히 붙잡고 있다   
  
언덕을 내려오는   
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언덕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날 아침   
사람들은 말하겠지   
언덕은 대체 어디로 갔지?   
나무들은, 꽃잎들은, 고양이는, 나비는?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다들 어디로 갔지?

천장호에서 [그곳이 멀지 않다(2004)]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의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맹이들   
새떼 대신 메아리만 쩡 쩡 날아오른다   
  
네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오 분간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다리는 오분간   
아카시아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여섯살배기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훤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젊어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보겠지.   
기다림 하나로도 깜박 지나버린 生,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나는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

푸른밤

푸른 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맑은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그때 나는

그때 나는 사과를 줍고 있었는데  
재활원 비탈길에 어떤 아이가 먹다 떨어뜨린  
사과를 허리굽혀 줍고 있었는데  
내가 주워올린 것은   
흙 묻은 나의 심장이었다  
그때 나는 다른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내 손에 들린 것은   
내 생의 무거운 가방이었다  
그때 나는 성한 몸이라는 것조차 괴로웠는데  
그 아이는 비뚤어진 입과 눈으로 자꾸만 웃었다   
나도 따라 웃곤 했는데  
그때마다 비탈의 나무들은 휘어지고 흔들렸는데  
그 휘어짐에 놀라 새들은 날개를 멈칫거리고   
새들 대신 날개 없는 나뭇잎만 날아올랐다  
그때 나는 괴로웠을까 행복했을까  
  
오늘 아침 땅 위에 떨어진 사과 한 알   
천국과 지옥의 경계처럼   
베어먹은 살에만 흙이 묻어 있다  
그때처럼 주워 들었지만   
나는 그게 내 마음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살아서 심장에 흙이 묻을 수 있다니  
그랬다면 이 버려진 사과처럼 행복했을까 괴로웠을까

탱자 꽃잎보다도 얇은

나는 어제보다 얇아졌다   
바람이 와서 자꾸만 살을 저며 간다   
누구를 밸 수도 없는 칼날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다   
  
칼날을 베고 잠들던 날   
탱자꽃 피어 있던 고향 집이 꿈에 보였다.   
내가 칼날을 키우는 동안   
탱자나무는 가시들을 무성하게 키웠다   
그러나 꽃잎도 함께 피워   
탱자나무 울타리 아래가 환했다   
  
꽃들을 지키려고 탱자는 가시를 가졌을까   
지킬 것도 없이 얇아져 가는 나는   
내 속의 칼날에 마음을 자꾸 베이는데   
탱자 꽃잎에도 제 가시에 찔린 흔적이 있다   
  
침을 발라 탱자 가시를 손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어린 시절   
바람이 와서 탱자 가시를 가져 가고 살을 가져 가고   
  
나는 어제보다 얇아졌다   
나는 탱자 꽃잎보다 얇아졌다   
누구를 벨지도 모르는 칼날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다

벗어놓은 스타킹

지치도록 달려온 갈색 암말이   
여기 쓰러져 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것처럼   
  
생(生)의 얼굴은 촘촘한 그물 같아서   
조그만 까끄러기에도 올이 주르르 풀려 나가고   
무릎과 엉덩이 부분은 이미 늘어져 있다   
몸이 끌고 다니다가 벗어 놓은 욕망의   
껍데기는 아직 몸의 굴곡을 기억하고 있다.   
의상을 벗은 광대처럼 맨발이 낯설다   
얼른 집어 들고 일어나 물 속에 던져 넣으면   
달려온 하루가 현상되어 나오고   
물을 머금은 암말은   
갈색 빛이 짙어지면서 다시 일어난다   
또 다른 의상이 되기 위하여   
  
밤새 그것은 잠자리 날개처럼 잘 마를 것이다.

구두가 남겨졌다

그는 가고   
그가 남기고 간 또 하나의 육체,   
삶은 어차피 낡은 가죽 냄새 같은 게 나지 않던가   
씹을 수도 없이 질긴 것,   
그러다가도 홀연 구두 한 컬레로 남는 것   
  
그가 구두를 끌고 다닌 게 아니라   
구두가 여기까지 그를 이끌고 온 게 아니었을까   
구두가 멈춘 그 자리에서   
그의 생도 문득 걸음을 멈추었으니   
  
얼마나 많이 걸었던지   
납작해진 뒷굽, 어느 한쪽은 유독 닳아   
그의 몸 마지막엔 심하게 기우뚱거렸을 것이다   
밑 모를 우물 속에 던져진 돌이   
바닥에 가 닿는 소리   
생이 끝나는 순간에야 듣고 소스라쳤을지도 모른다   
노고는 길고 회오의 순간은 짧다   
  
고래 뱃속에서 마악 토해져 나온 듯한   
구두 한 컬레, 그 속에는   
그의 발이 연주하던 생의 냄새 같은 게   
그를 품고 있던 어둠 같은 게   
온기처럼 한 웅큼 남겨져 있다 날아간다.

품

세상에!  
오동나무 한 그루에  
까치가 이십 마리라니.  
  
크기는 크지만  
반 넘어 썩어가는 나무였다.  
  
그 나무도  
물기로 출렁거리던 때  
제 잎으로만 무성하던 때 있었으리  
   
빈 가지가 있어야지,  
제 몸에 누구를 앉히는 일  
저 아닌 무엇으로 풍성해지는 일.  
  
툭 툭 터지는 오동 열매에  
까치들 놀라서 날아올랐다가  
  
검은 등걸 위로  
다시 하나둘 내려앉고 있었다

칸나의 시절

난롯가에 둘러앉아 우리는   
빨간 엑스란 내복을 뒤집어 이를 잡았었지.   
솔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이들은 난로 위에 던져졌지.   
타닥타닥 튀어 오르던 이들, 우리의 생은   
그보다도 높이 튀어오르지 못하리란 걸 알고 있었지.   
황사가 오면 난로의 불도 꺼지고   
볕이 드는 담장 아래 앉아 눈을 비볐지.   
슬픔 대신 모래알이 눈 속에서 서걱거렸지.   
봄이 와도 칸나가 필 때까지는 겨울이었지.   
빨간 내복을 벗어던지면 그 자리에 칸나가 피어났지.   
고아원 뜰에 칸나는 붉고   
우리 마음은 붉음도 없이 푸석거렸지.   
이 몇 마리 말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칸나보다도 작았던 우리들, 질긴   
나일론 양말들은 쉽게 작아지지 않았지.   
황사의 나날들을 지나 열일곱 혹은 열여덟.   
세상의 구석진 솔기 사이로 숨기 위해 흩어졌지.   
솔기는 깊어 우리 만날 수도 없었지.   
마주친다 해도 길을 잃었을 때뿐이었지.   
이 한 마리마저 키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일론 양말들,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저녁을 밝혀줄 희미한 불빛에게   
나는 묻지. 네 가슴에도 칸나는 피어 있는가, 라고.

열대야

얼마나 더운지   
그는 속옷마저 벗어던졌다.   
엎드려 자고 있는 그의 엉덩이,   
두 개의 무덤이 하나의 잠을 덮고 있다.   
  
잠은 죽음의 연습,   
때로는 잠꼬대가 두렵고   
내쉬는 한숨의 깊이 쓸쓸하지만   
그가 다녀온 세상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것만큼   
두렵고 쓸쓸한 일이 있을까.   
  
그의 벗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벌거벗은 육체가 아름다운 건   
주머니가 없어서일 것이다.   
누구도 데려갈 수 없는 그 강을   
오늘도 건넜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는   
  
밤은 열대처럼 환하다.

누에

세 자매가 손을 잡고 걸어온다   
  
이제 보니 자매가 아니다   
꼽추인 어미를 가운데 두고   
두 딸은 키가 훌쩍 크다   
어미는 얼마나 작은지 누에 같다   
제 몸의 이천 배나 되는 실을   
뽑아낸다는 누에   
저 등에 짊어진 혹에서   
비단실 두 가닥 풀려 나온 걸까   
비단실 두 가닥이   
이제 빈 누에고치를 감싸고 있다   
  
그 비단실에   
내 몸도 휘감겨 따라가면서   
나는 만삭의 배를 가만히 쓸어 안는다

시월

산에 와 생각합니다   
바위가 山門을 여는 여기   
언젠가 당신이 왔던건 아닐까 하고,   
머루 한 가지 꺾어   
물 위로 무심히 띄워보내며   
붉게 물드는 계곡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고,   
잎을 깨치고 내려오는 저 햇살   
당신 어깨에도 내렸으리라고,   
산기슭에 걸터앉아 피웠을 담배연기   
저 떠도는 구름이 되었으리라고,   
새삼 골짜기에 싸여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벗하여 살 이름   
머루나 다래, 물든 잎사귀와 물,   
山門을 열고 제 몸을 여는 바위,   
도토리, 청설모, 쑥부쟁이 뿐이어서   
당신이름 뿐이어서   
단풍 곁에 서 있다가 나도 따라 붉어져   
물 위로 흘러내리면   
나 여기 다녀간줄 당신을 아실까   
잎과 잎처럼 흐르다 만나질 수 있을까   
이승이 아니라도 그럴 수는 있을까

만삭의 슬픔

낙산은 더이상  
해를 품은 바다가 아니었다  
사하촌에는 낮도 밤도 사라져버려  
추락하기 위해 돌아가는 바이킹 소리와  
잠들지 않는 사람들,  
나를 위해 남겨진 방은 없었다  
​  
만삭이 된 슬픔의 배를 안고 내가 찾아든 방은  
낙산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해도 영영 비칠 것 같지 않은 작은 방이었다  
이불을 펴고 누우니  
어떤 사람 어떤 시름이 함께 누울 자리도 없이  
방이 꽉 찼다, 다행이었다  
무덤 속인 듯 자궁 속인 듯  
그 방은 내 슬픔을 분만하기 위한 마굿간이었다  
  
그 방은 나를 잉태하기 시작했다  
흘러나오는 슬픔에  
방은 점점 좁아들고 천장은 낮게 가라앉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는 아직 지상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방이여, 내 위에 따뜻한 흙을 덮어다오  
낙산이여, 그만 무너져다오  
이제 나를 안아다오

고통에게

1   
  
  
어느 굽이 몇번은 만난듯도 하다   
네가 마음에 지핀듯   
울부짖으며 구르는 밤도 있지만   
밝은 날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나 너는 정작 오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날 너는 무심한 표정으로 와서   
쐐기풀을 한 짐 내려놓고 사라진다   
사는 건 쐐기풀로 열두벌의 수의를 짜는 일이라고,   
그때까지는 침묵해야 한다고,   
마술에 걸린듯 수의를 위해 삶을 짜 깁는다   
  
손끝에 맺힌 핏방울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네 속의 폭풍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봄볕이 어른거리는 뜰에 쪼그려 앉아   
너를 생각하기도 한다   
대체 나는 너를 기다리는 것인가   
오늘은 비명없이도 너와 지낼수 있을 것 같아   
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해도 좋은 것인가   
  
제 죽음에 피어날 꽃처럼, 봄뜰처럼

고통에게 2

절망의 꽃잎 돋을 때마다   
옆구리에서   
겨드랑이에서   
무릎에서   
어디서 눈이 하나씩 열리는가   
  
돋아나는 잎들   
숨가쁘게 완성되는 꽃   
그러나 완성하는 절망이란 없다   
  
그만 지고 싶다는 생각   
늙고 싶다는 생각   
삶이 내 손을 그만 놓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나 꽃보다도 적게 산 나여

때늦은 雨水

정암사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 녹은 물이 뚝, 내 이마를 때렸네  
  
용서의 한 말씀  
  
사북 같은 날들을 지나  
고한 같은 날들을 지나  
타오르지 않는 뜨거운 몸으로  
나 여기까지 왔네  
검붉은 계곡의 신음 소리와  
채탄되지 못한 슬픔을 지나서 왔네  
맡겨지지 않게  
시리고 맑은 물 한 방울이  
온몸을 서늘하게 뚫고 지나갔네  
  
내 속에도 새 가지 돋으려나  
마른 지팡이에 가지 뻗고 잎이 나고 붉은 열매 맺혔던  
자장율사의 주목처럼  
어떤 것도 죽음이라 말하기에는 이른 것인가

빚은 빛이다

아무도 따가지 않은  
꽃사과야,  
너도 나처럼 빚 갚으며 살고 있구나.  
햇살과 바람에 붉은 살 도로 내주며  
겨우내 매달려 시들어가는구나.  
  
월급 타서 빚 갚고  
퇴직금 타서 빚 갚고  
그러고도 빚이 남아 있다는 게  
오늘은 웬일인지 마음 놓인다.  
  
빚도 오래 두고 갚다보면  
빛이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건  
빚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는 알겠지,  
사과가 되지 못한 꽃사과야.  
  
그러고도 못다 갚으면  
제 마른 육신을 남겨두고 가면 되지.  
저기 좀 봐, 꽃사과야.  
하늘에 빚진 새가 날아가고 있어.  
언덕에 빚진 눈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가고 있어.

마음 그 풀밭에

누군가 손대지 않음으로써 일구어 놓았나  
스스로 무성해진 풀밭   
두려움도 없이 나는 풀을 벤다   
낫이 움직이면서 내 속에 자란 풀을 먹어치운다  
풀을 베어낸 자리마다 흙이 상처처럼   
검붉다, 부질없이 부질없이  
옮겨 심을 무엇이 더 남아 있다는 것일까  
드러난 흙이   
뿌리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듯   
나의 탐식은 풀밭 위를 달린다   
풀은 왜 늙으면서 질겨지는가   
가벼워지는가   
두려움도 없이 나는 풀을 벤다   
마음, 그 풀밭에 불을 놓는다   
풀뿌리는 끝내 타지 않는다.

내 속의 여자들

내 속에는   
반만 피가 도는 목련 한 그루와   
잎끝이 뾰족뾰족한 오엽송,   
잎을 잔뜩 오그린 모란 두어 그루,   
꽃을 일찍 피워 버려   
이제 하릴없이 무성해진 라일락,   
이런 여자들이 몇이 산다   
한 뙈기 땅에 마음을 붙이고부터는   
그녀들이 뿌리 내려   
내 영혼의 발목도 잡아 주기를,   
어디로도 못 가고   
바람 소리도 못 들은 체 살 수 있기를 바랐다   
바람의 길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곳에 있었다   
어떤 날은 전지가위를 들고   
무성해진 가지를 마구 쳐내기도 했다   
쳐내면서 내 잎끝에 내가 찔리고   
그런 날 밤에는   
내 속의 뿌리들, 그녀들, 몸살을 앓고는 했다   
다른 뜰에서 수십 송이 꽃들이   
폭죽처럼 터지던 봄날   
내 반쪽 옆구리에는 목련 한 송이 간신히 피어   
났다   
오그린 모란잎 사이에 고여 있는   
몇 방울 빗물은 쉽게 마르지 않았다   
라일락의 이미 흩어진 향기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은 짐짓 모른 체하며 내 곁을 지나갔다

웅덩이

웅덩이를 지나다   
그만 바지를 적시고 말았다   
발을 헛딛는 순간   
갇힌 물에서 날개소리 들려 왔다   
  
내리는 비에   
웅덩이는 깊어져 가고   
푸석거리는 몸이 견디기 어려웠던 나는   
눅눅함도 축복인 양 걸어다녔다   
  
해가 나자   
비를 머금은 잎들 반짝거렸다   
그 속으로 바지의 얼룩을 끌고 가면서   
마를수록 선명해지는 상처 하나 끌고 가면서   
다시 푸석거리는 소리   
  
구석에 앉아 마른 얼굴을 부비면   
흙먼지였던 당신   
그제야 내게서 날아올랐다   
기억은 웅덩이처럼 작아져 갔다

밤길

ㅡ엄마! 저기 보석이 있어요.  
ㅡ빛난다고 다 보석은 아니란다.  
저건 깨진 유리 조각일 뿐이야.  
  
폐차장 앞은  
별을 쏟아놓은 것처럼 환하다.  
빛에 이끌려 무작정 달려가려는 아이와  
그 손을 잡아당기는 나의 손.  
손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손은 언제부터 알게 된 것일까.  
유리는 유리일 뿐이라는 쓸쓸함과  
한번 깨어지고 나면 더이상 유리일 수도 없다는  
두려움을, 예리한 슬픔의 파편을.  
그 유리의 끝이 언젠가  
아이의 실핏줄을 찌르리라는 예감에  
나는 나의 큰 손을 움츠리며  
내 손 안의 여린 손을 다잡아보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보석처럼 빛나던  
한 세계의 강휘, 내게도 있었다.  
그러니 누가 붙잡을 수 있으랴  
상처를 모르는 손이 그리로 달려가는 것을.  
제 슬픔의 빛을 빌려  
어둠을 살아가는 저 유리 조각들  
보석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으랴.  
어떤 손이 어떤 손에게 속삭일 수 있으랴.

어떤 항아리

이건 금이 간 항아리이면서   
금이 갔다고 말할 수 없는 항아리   
  
손가락으로 퉁겨보면   
그런 대로 맑은 소리를 내고   
물을 담아보아도 괜찮다   
  
그런데 간장을 담으면 어디선가 샌다   
간장만 통과시키는 막이 있는 것일까   
   
너무나 짜서 맑아진,   
너무 오래 달여서 서늘해진,   
고통의 즙액만을 알아차리는   
그의 감식안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간장만은 담을 수 없는,   
뜨거운 간장을 들이붓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 운명의,   
  
詩라는 항아리

길 속의 길 속의

저 풀들은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것일까   
  
갈라진 아스팔트 틈으로 풀들이 자라고 있다   
길 속의 길,   
길이 갈라져 풀이 난 게 아니라   
풀씨가 팽창하면서   
홍해처럼 길이 갈라진 게 아니었을까   
키 작은 풀꽃 아래 개미들이 부지런히 부지런히   
개미의 길을 가고 있다   
길 속의 길 속의 길 속의 길 속의   
  
어린 시절 뒷창을 열면   
푸성귀를 이고 지고 장터로 가던 아낙들,   
장날이면 피어나던 그 푸른 길을   
창턱에 올라앉아 바라보던 어린 내가 있었다

그러나 흙은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를 떠났다기보다는  
그 공터를 떠난 거라고 말하고 싶다  
교사 뒤켠 버려진 공터가  
나를 숨쉬게 하고 견디게 했기에  
앉은뱅이걸음으로 드나들며 열두 계절을 보냈다  
뿌리지 않아도 돋아나는 싹을 바라보며  
내가 뿌린 인간의 씨앗들을 떠올렸고  
민들레 흰 솜털을 털어내며  
가볍고도 촘촘한 목숨의 길을 생각했다  
키를 넘는 수풀, 그 무성함이  
소멸을 향한 빠른 걸음이 아닌가 싶어  
젊음이 지나가는 속도가 와락 두려워지기도 했다  
포물선을 그리며 튀어오르던 메뚜기들을  
가늘게 뜬 눈으로 바라보던 가을날도,  
웅웅거리며 묻고 있는 눈보라에게  
쉽게 대답할 수 없던 겨울날도 다 지나갔다  
내가 떠나도 공터는 남으리라  
생각했는데, 공터가 나와 함께 사라졌다  
내가 짐을 꾸리는 동안  
포크레인은 지난간 날들을 파내려갔다  
구덩이가 깊어질수록  
그 옆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자라났다  
패이는 것과 쌓이는 것,  
그러나 흙은 사라지지 않는다  
티끌과도 같은 날들이 먹구름으로 밀려온다

밀물이 내 속으로

쌓고  
또 쌓고  
쌓는지도 모르고  
쌓고  
쌓는 것의 허망함을 알면서  
쌓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오기로  
쌓고  
이것도 먹고 사는 일이라고 말하며  
쌓고  
부끄럽다 얼굴 붉히면서도  
쌓고  
때로 공허함이 두려워서  
쌓고  
지우지 못해 끊지 못해  
쌓고  
바닥도 끝도 없음을  
쌓고  
또 쌓다가  
   
어느 날  
내가 쌓은 모래성이 밀물을 불러왔다

또 하나의 옥상

너에게도 이런 얼굴 있지 않을까  
  
승천하지 못한 빗물, 검게 얼룩진 바닥 위로 기어가는  
곰팡이와 이끼, 먼지를 겹입어 더 이상 투명하지 않은  
유리 조각, 낡은 타이어 두어 개, 녹슨 안테나, 뒤엉킨 전깃줄  
  
날아오를 수도 달릴 수도 없는  
무엇을 비칠 수도 키울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소도구들 속에서 중얼거려 보는  
쓸쓸한 무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보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또 하나의 얼굴  
또 하나의 옥상

귀여리에는 거미줄이 많다

귀여리에는 거미줄이 많다  
그러나 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물안개가 피어올라 귀여리를 지날 때는  
거미줄을 타고 가는 모양이다  
그 자리마다 하얀 포말처럼 흩어진   
거미줄, 하루에도 몇 번씩  
퍼덕이다가 허공에 점이 되는 목숨들  
그러나 정작 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붕에서 처마로  
큰 나무에서 작은 나무로  
벽에서 벽으로  
풀꽃에서 흙으로, 거미줄은  
사방으로 이어져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기 때문에  
가볍고 가볍기 때문에  
그 그물은 벗어나기 힘든 것인지 모른다  
  
풍화되는 날개들  
저 날개의 마지막 퍼덕임과 더불어  
사라져가는 것은 무엇인가  
귀여리, 그곳에는 거미줄이 많다.

이끼

그 물들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었구나  
  
닳아지는 살 대신   
그가 입혀 주고 떠나간  
  
푸른 옷 한 벌  
  
내 단단한 얼굴 위로   
내리치며 때로 어루만지며 지나간   
분노와 사랑의 흔적  
  
물 속에서만 자라나는   
물 속에서만 아프지 않은  
  
푸른 옷 한 벌

뜨거운 돌

움켜쥐고 살아온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놓고 펴 보는 날 있네  
지나온 강물처럼 손금을 들여다보는  
그런 날이 있네  
그러면 내 스무 살 때 쥐어진 돌 하나  
어디로도 굴러가지 못하고  
아직 그 안에 남아 있는 걸 보네  
  
가투 장소가 적힌 쪽지를 처음 받아들던 날  
그건 종이가 아니라 뜨거운 돌이었네  
누구에게도 그 돌 끝내 던지지 못했네  
한 번도 뜨겁게 끌어안지 못한 이십대  
火傷(화상)마저 늙어가기 시작한 삼십대  
던지지 못한 그 돌  
오래된 질문처럼 내 손에 박혀 있네  
  
그 돌을 손에 쥔 채 세상과 손잡고 살았네  
그 돌을 손에 쥔 채 글을 쓰기도 했네  
문장은 자꾸 걸려 넘어졌지만  
그 뜨거움 벗어나기 위해 글을 쓰던 밤 있었네  
만일 그 돌을 던졌다면, 누군가에게, 그랬다면  
삶이 좀더 가벼울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뜨거움이 온기가 되어  
나를 품어 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네  
  
오래된 질문처럼 남아 있는 돌 하나  
대답도 할 수 없는데 그 돌 식어 가네  
단 한 번도 흘러 넘치지 못한 화산의 용암처럼  
식어 가는 돌 아직 내 손에 있네

속리산에서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 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 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 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

부패의 힘

벌겋게 녹슬어 있는 철문을 보며   
나는 안심한다   
녹슬 수 있음에 대하여   
  
냄비 속에서 금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음식에   
나는 안심한다   
썩을 수 있음에 대하여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얘기도 된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   
  
부패는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일종의 무릎 꿇음이다   
  
그러나 잠시도 녹슬지 못하고   
제대로 썩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여   
가장 안심이 안되는 나여

계산에 대하여

계산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모든 계산은  
부정확하지는 않아도  
불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든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자본은 운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구좌에선가 이자가 올라가고 있고  
수수료와 세금과 연체료가 빠져나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계산은 불어가거나 녹아가고 있다  
모든 존재는  
언덕 아래로 굴러내리는 눈덩이와 같으니  
모든 계산은  
그 눈덩이의 지름을 재는 일과도 같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순간을 환산할 수 있다는 장담처럼  
영원을 측량할 수 있다는 믿음처럼  
어리석은 일, 계산을 마치는 순간  
그 수치는 돌덩이가 되어 나를 누르고  
구르는 동안 욕망의 옷을 입기 시작할 것이다  
부디 계산을 마치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그 위에 꽃 피우며 잘도 산다  
돌 위에 뿌리내린 풍란처럼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제법 향기롭게

누에의 방

형광등이 꺼지고  
백열등 하나가 앉은뱅이책상 위에 켜지면  
아버지는 비로소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곤 했던 것이  
여름밤 식구들의 좁은 잠자리 때문이었는지  
십오 촉 백열등 빛이 너무 밝아서였는지  
천정을 가득 채우던 아버지의 그림자 때문이었는지  
그 모든 것 때문이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가리방 긁는 소리가 밤새 들리던 밤  
목에 둘렀던 수건을 감아 뜨거운 전구알을 갈던 모습이며  
쥐가 난 다리를 뻗어서 두드리던 모습이며  
전구 위에 씌웠던 종이갓이 검게 타들어가던 모습이며  
자줏빛으로 죽어가던 손마디와 팔꿈치를 문지르던 모습이며  
내가 반쯤 뜬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그 방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글을 쓰고 싶어 하셨지만  
글자만을 한 자 한 자 철필로 새겨 넣던 아버지,  
그러나 고치 속에서 뽑아낸 실로  
세상을 향해 긴 글을 쓰고 계셨다는 걸 깨달은 것은  
그 후로도 오랜 뒤였다  
  
오늘 밤,  
내 마음의 형광등 모두 꺼지고 식구들도 잠들고  
백열등 하나 오롯하게 빛나는 밤  
아버지가 뽑아내던 실 끝이 어느새 내 입에 물려 있어  
내 속의 아버지가 나 대신 글을 쓰는 밤  
나는 아버지라는 생을 옮겨 쓰는 필경사가 되어  
뜨거운 고치 속에 돌아와 앉는다  
  
그때의 바람이 이 견디기 어려운 여름 속으로  
백열등이 너무 어둡게도 너무 밝게도 생각되는 내 눈 속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림자 어른거리는 천정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건네지 못할 긴 편지를 나 역시도 쓰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양식

그가 마지막으로 구한 지상의 양식은  
고구마였다  
아무것도 삼킬 수 없는 그때 드는  
왜 고구마를 생각했을까  
볕 좋은 날 오후 마루에 앉아  
노모와 아내와 아내랑 먹곤 했다던 고구마,  
어린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던 고구마,  
그 짧은 행복과  
기나긴 가난을 함께 그리워했던 것일까.  
고구마를 삼키면 왜 자꾸 목이 메이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숨을 멈추게 하며 솟구치는 그 서러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게 믿었던 사람,  
어떤 거짓도 어떤 화사함도 없이  
고구마를 다만 고구마로 그려냈던 사람,  
너무 환하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땅 위에 붉은 길을 내고 간 사람,  
그를 잃고도  
세상의 잎들은 왜 피어나는지  
덩굴은 다시 어디로 뻗어가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를 품은 흙들은 알고 있으리라.  
갈고리 같은 손으로 고구마 덩굴을 걷으면  
땅 속 깊이 맺힌 붉은 슬픔들,  
그가 남긴 마지막 양식을 삼킬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목이 메어올 것이다.  
그에게 고구마 하나를 끝내 건네지 못한 우리는  
자꾸만 목이 메어 올 것이다.

그 골목 잃어버리고

그들은 떠났다  
무너져내린 판잣집들, 흩어진 유리 조각,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언을 전하려는 듯  
전선 위에 남아 있다가 이내 날아간다  
저 새  
제 날개의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나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하나  
고향처럼 지나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창 너머 백열등 불빛에 젖어 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어떤 화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때 묻은 벽지가 정겹다 말했던 나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 기웃거리던 나는  
잃어버렸다, 그들을, 또한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과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을  
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틋함을  
  
그들은 떠났다  
닭의 울음소리를 데불고,  
푸른 이불과도 같이 누추한 지붕을 가려주던  
호박 덩굴마저 거두어내리고 총총히 사라졌다  
내 마음의 덩굴손이여  
너는 또 어떤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려느냐  
누구의 가난을 또 푸르게 덮으려느냐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굴광성의 영혼이여

황사 속에서

놀고 들어온 아이가 양말을 벗으며 말했다   
  
\_아빠가 불쌍해요   
\_왜, 갑자기?   
아빠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_대체 무슨 소리야?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아빤 우리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요.   
  
양말을 뒤집어도 바지를 털어도 모래투성이다   
아이는 매일 모래를 묻혀 들어온다   
그리고 모래알보다 많은 걸 배워서 들어온다   
  
사람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구,   
살아가는 거라구,   
밥을 안치면서 나는 말하지 못했다   
젖은 쌀알이 모래처럼 서걱거렸다   
  
아이가 묻혀 들어온 모래를 쓸어담으면서   
다 쓸어담지도 못하면서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한 창밖을 본다   
  
간신히 가라앉은 모래를   
바람은 또다시 일으켜 어디론가 쓸고 간다

가벼워지지 않는 가방

또 헛되이 가방을 산다  
아무리 작은 가방을 사도  
삶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  
  
革命은 안 되고 방만 바뀌었다던 시인은  
그 방과 함께 노래를 잃고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알게 되었다지만  
나는 방도 바꾸지 못하고 가방만 바꾼다  
갇혀 있는 가방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날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사고  
가방 속이 휑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날렵하고 단단해 보이는 핸드백을 산다  
떠나지도 채우지도 못하면서 가방만 산다  
  
가방에 더 넣을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 중얼거리고  
무늬는 이게 좋겠어, 들었다 놓기도 한다  
그때마다 좌판에 놓인 가방은 한눈에 나를 고른다  
  
새로 산 가방에 이끌려 돌아오는 길  
革命은 안 되고 나는 가방만 바꾸었지만  
공허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 무거움이 마음의 굳은살을 만든다  
  
그걸 알면서  
또 헛되이 가방을 살 것이다  
채울 수 없는 빈 방을 내 안에 들여놓는 일처럼

종점 하나 전

집이 가까워오면  
이상하게도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깨어보면 늘 종점이었다  
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 속을 내딛듯 골목으로 사라져가고  
한 정거장을 되짚어 돌아오던 밤길,  
거기 내 어리석은 발길은 뿌리를 내렸다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쳐  
늘 막다른 어둠에 이르러야 했던,  
그제서야 터벅터벅 되돌아오던,  
그 길의 보도 블록들은 여기저기 꺼져 있었다  
그래서 길은 기우뚱거렸다  
잘못 길들여진 말처럼  
집을 향한 우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희미한 종점 다방의 불빛과  
셔터를 내린 세탁소, 쌀집, 기름집의  
작은 간판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낮은 지붕들을 지나  
마지막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지붕들 사이로 숨은 나의 집이 보였다  
  
집은  
종점보다는 가까운,  
그러나 여전히 먼 곳에 있었다

활주도 없이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리는 사이 나는 창문 너머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활주로 위에 찍힌 하나의 점으로만 보였다. 그지없이 작고 흰 날개, 마치 농담처럼 풍경 속에 날아든 그것은 거대한 비행기의 날개 아래 엎드려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잿빛 활주로 위에 나비라니, 시위를 떠나기 직전의 화살처럼, 비행기들 사이에서 제 날개를 긴장시키고 있는 한 마리 나비라니……  
  
 비행기는 활주를 시작했다. 몸을 공중에 띄우기 위하여 무서운 속력을 내는 기체의 흔들림과 굉음 속에서. 날면서도 날개를 퍼덕일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속에서, 나는 내내 나비 한 마리를 생각했다. 그지없이 작고 흰 날개의 비행을 생각했다. 활주로 위에 웅크리고 있던 나비, 그러나 그는 활주도 없이 사뿐히 날아올라 잿빛의 대륙을 유유히 벗어나고 있을 것이다.

손의 마지막 기억

인도 사리스카 숲 속   
새들의 삼거리에 이르렀다   
새와 사람이 오래 전부터 만나온 곳인지   
인기척에 금세 새들이 날아들었다   
나는 청포도 몇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새 한 마리가 내 손에 내려앉는 순간   
그 발톱의 감촉에 놀라   
움찔, 포도알을 땅 위에 흩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나에게 다시 놀랐다   
아, 이제까지 시인 노릇 헛했구나!   
새에 대한 사랑과   
새에 대한 무수한 노래,   
내 몸은 순식간에 그 모든 걸 배반했다   
가장 정직한 고백을 몸에게서 들었다   
더운 피가 도는 짐승의 등을   
이 손으로 쓰다듬어본 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 손으로 대체 무얼 만지고 살아왔는지   
손의 마지막 기억을 찾아   
나는 사리스카 숲 속을 오래도록 헤매었다

성공한 인생

이구아수 폭포를 본 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누군가 폭포를 보며 소리쳤다   
장엄함에 말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더 성공한 生이 저기에 있다   
등반을 거부하는 절벽처럼 쏟아지는 폭포,   
그 속도의 벽을 뚫고   
폭포 뒤에 집을 짓고 먹이를 나르는 새들이 있다   
토해낸 물고기 뼈를 둥지에 깔고   
맑은 알을 기르는 새들   
  
거대한 폭포는 보아도   
한 점 새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비를 덧입고 사진을 찍거나   
작은 배를 타고 폭포 아래로 다가간다   
그러나 폭포까지는, 폭포까지는 들어서지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몸만 젖어 돌아서는 사람들   
배는 눈먼 경전에 지나지 않는다   
  
새들은 폭포의 뜨거운 목젖을 지난다

포도밭처럼

저 야트막한 포도밭처럼 살고 싶었다   
산등성이 아래 몸을 구부려   
낮게 낮게 엎드려서 살고 싶었다   
숨은 듯 숨지는 않은 듯   
세상 밖에서 익혀가고 싶은 게 있었다   
입 속에 남은 단 한마디   
포도씨처럼 물고   
끝내 밖으로 내어놓고 싶지 않았다   
둥근 몸을 굴려 어디에 처박히고 싶은 꿈   
내게 있었다, 몇장의 잎새 뒤에서   
  
그러나 나는 이미 세상의 술틀에 던져진 포도알이었는지 모른다   
채익기도 전에 으깨어져 붉은 즙액이 되어 버린, 너무 많은 말들을   
입속 가득 머금고 울컥거리는, 나는 어느새 둥근 몸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포도가 아닌 다른 몸이 절벅거리며, 냄새가 되어 또 하나의   
풍문이 되어 퍼져가면서, 세상을 적시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 멀리 야트막한 포도밭의 평화,   
아직 내 몸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아   
사라진 손으로 사라진 몸을 더듬어 본다   
은밀하게 익혀가고 싶은 게 있었던 것처럼

거리

이쯤이면 될까.   
아니야. 아니야. 아직 멀었어.   
멀어지려면 한참 멀었어.   
  
이따금 염주 생각을 해봐.   
  
한 줄에 꿰어 있어도   
다른 빛으로 빛나는 염주알과 염주알,   
그 까마득한 거리를 말야.   
  
알알이 흩어 버린다 해도   
여전히 너와 나,   
모감주나무 열매인 것을.

쓰러진 나무

저 아카시아나무는 쓰러진 채로 십 년을 견뎠다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잡목 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 몸으로 받아낸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잡목 숲이 아름다운 건   
두 나무가 기대어 선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에게로 굽어져 간 곡선 때문이다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워낸   
저 연초록빛 소름,   
십 년 전처럼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

복장리에서

전혀 낯선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복장리,   
처음 들어 보는 이곳으로   
누가 나를 불렀나   
해질 무렵 인적 끊어진 산길에서   
그것도 아기를 업고   
나는 왜 이곳을 서성거리고 있나   
  
뻐꾸기 울음소리가 내 주위를 맴돈다   
아기를 업은 채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다   
스스로는 둥지를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는 뻐꾸기,   
내가 다가서자 푸드득 날아올랐다   
  
뻐꾸기, 내 어리석은 가슴에도 탁란을 했던 것일까   
그 울음 하도 슬퍼서   
등뒤에 업은 아이가 혹시   
뻐꾸기 새끼는 아닐까 쉽기도 하다   
어두워져 길은 닫히고   
저녁 하늘과 같은 빛으로 가뭇없이 사라진   
잿빛 뻐꾸기, 그 울음이 나를 불렀던 것일까

나뭇잎들의 극락

격랑 직후의 고요와  
또다른 격랑 직전의 고요가  
거짓말처럼  
커다란 沼를 이룰 때  
오래 머물던 나뭇잎 하나  
드디어 가라앉는다  
  
제 몸보다 많은 물을 머금은 잎만이  
다다른 나뭇잎들의 극락  
수장당한 나뭇잎들과  
스스로를 수장시킨 나뭇잎들,  
그들은 고기떼보다 오래 저편에서 살아왔다  
  
얼마나 떠돌아야  
저 고요한 바다에 이를 수 있을까  
  
물은 다시 격랑으로 격랑으로  
제 몸을 던지며 간다  
나는 스스로 물을 몇 번이고 움켜쥐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  
그곳에 몇 개의 극락이 세워졌다 허물어진다

저 자리들

저 자리들은 어떤 뜨거움을, 꽃을, 누구의 등을, 혹은 손이나 발의 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발길에 닳아빠져 가운데가 우묵해진 나무 계단, 붉은 불빛 아래 치욕에 시들어가는 여인들의 살갗, 누군가 지친 등을 기대었던 담벼락, 고즈넉한 꽃 한 송이 피워올렸던 꽃받침, 문 밖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연탄재들, 반생의 기억에 저를 둥글게 말아서 남은 반생 또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잊어야 할 것조차 잃어버린 적이 없는, 저 자리들, 누군가 남기고 간 자리들

왜

달팽이는 왜 날아오르지 못할까   
붉은 먹이는 붉게   
푸른 먹이는 푸르게   
그렇게도 정직한 배설을 한다는데   
진실은 그런거라는데   
왜 날개가 돋아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젖은 흙 속을 파고들어   
연한 생살을 부비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느리게 다만 느리게   
흔적 없이 기어가는 일 말고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일 말고는 도리가 없어   
이파리 한 구석에 숨은 것일까   
달팽이의 전 생애를 싣고도   
왜 이파리는 흔들리지조차 않는 것일까

밥생각

밥 주는 걸 잊으면   
그 자리에 서곤 하던 시계가 있었지   
긴 다리 짧은 다리 다 내려놓고 쉬다가   
밥을 주면 째각 째각 살아나던 시계,   
그는 늘 주어진 시간만큼 충실했지   
내가 그를 잊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갔지만   
억지로 붙잡아두거나 따라가려는 마음 없이   
그냥 밥 생각이나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요즘 내가 그래   
누가 내게 밥 주는 걸 잊었나봐   
깜깜해 그야말로 停電이야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停電이야   
태엽처럼 감아놓은 고무줄을 누가 놓아버렸나 봐   
시간은 흘러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냉장고의 감자에선 싹이 나지 않고   
고드름이 녹지 않고 시계바늘처럼 매달려 있어   
째각 째각 살아있다는 소리 들리지 않아   
반달이 보름달이 되고 다시 반달이 되는 것을 보지만   
멈추어버린 나는 항상 보름달처럼 둥글지   
그러니 어디에 부딪쳐도 아프지 않지 부서지지 않지   
내 밥은 내가 못 주니까   
보름이어도 나는 빛을 볼 수 없어   
깜깜해 그냥 밥 생각이나 하고 있어   
가끔은 내가 밥을 주지 않아서 서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지   
밥을 주지 않아도 잘 가는 시계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버린 건 순전히 밥 생각 때문이야   
밥을 주다는 것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가 감아준 태엽마다 새로운 시간을 감고 싶으니까   
그 때까진 停電이야 停戰이라구, 이 구식 시계야

사흘만

양쪽 무릎 뒤 연한 주름살 속에   
내 귀가 달렸으면   
그래서 귀뚜라미가 날개를 부벼서 내는   
저 노래를 들을 수 있었으면   
귀뚜라미를 들을 수 있었으면

사랑

피 흘리지 않았는데   
뒤돌아 보니   
하얀 눈 위로   
상처 입은 짐승의   
발자욱이   
나를 따라온다   
  
저 발자욱   
내 속으로   
절뚝거리며 들어와   
한 마리 짐승을 키우리   
  
눈 녹으면   
그제야   
몸 눕힐 양지를   
찾아 떠나리

새떼가 날아간 하늘 끝

철새들이 줄을 맞추어 날아가는 것  
길을 잃지 않으려 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한몸이어서입니다  
티끌 속에 섞여 한 계절 펄럭이다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어느새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걷고 있는  
저 두 사람  
그 말없음의 거리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새떼가 날아간 하늘 끝  
또는 두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온기에 젖어  
나는 오늘도 두리번거리다 돌아갑니다  
  
몸마다 새겨진 어떤 거리와 속도  
새들은 지우지 못할 것입니  
그들 혹시 길을 잃었다 해도  
한 시절이 그들의 가슴 위로 날아갔다 해

발원을 향해

나 그곳에 가지 않았다  
태백 금대산 어느 시냇가에 앉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남한강의 발원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나 그곳에 가지 않았다  
  
어린 시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휘장 너머 하느님의 옷자락이 보일까봐  
눈을 질끈 감곤 했던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힘이 내 발을 묶었다  
  
끝내 가지 않아야  
세상의 물이란 물, 그  
발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에,  
흐리고 사나운 물을 만나도  
그 첫 순결함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기에,  
간다 해도 그 물줄기 어디론가 숨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것 같기에,  
나 그곳에 가지 않았다  
골지천과 송천이 만나는 아우라지 쯤에서  
나는 강물을 먼저 보내고  
보이지 않는 발원을 향해 중얼거릴 것이다  
  
만나지 못한 것들이 가슴을 샘솟게 하나니  
금대산 검용소,  
가지 않아서 끝내 멀어진 길이여  
아직 강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의 물줄기여

그 이불을 덮고

노고단 올라가는 양지녘  
바람이 불러모은 마른 영혼들  
   
졸참나무잎서어나무잎낙엽송잎당단풍잎  
  
느티나무잎팽나무잎산벚나무잎나도밤나무잎  
  
그 이불을 덮고  
한겨울 어린 풀들이  
한 열흘은 더 살아간다  
  
화엄사 뒷산  
날개도 다 굳지 않은 날벌레들  
벌써 눈뜨고 날아오겠다  
  
그 속에 발 녹인 나도  
여기서 한 닷새는 더 걸을 수 있겠다

사라진 손바닥 [사라진 손바닥(2004)]

처음엔 흰 연꽃 열어 보이더니   
다음엔 빈 손바닥만 푸르게 흔들더니   
그 다음엔 더운 연밥 한 그릇 들고 서 있더니   
이제는 마른 손목마저 꺾인 채   
연못 속에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네   
수많은 창(槍)을 가슴에 꽂고 연못은   
거대한 폐선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네   
  
저 바닥에 처박혀 그는 무엇을 하나   
말 건네려 해도   
손 잡으려 해도 보이지 않네   
발 빝에 떨어진 밥알들 주워서   
진흙 속에 심고 있는지 고개 들지 않네   
  
백 년쯤 지나 다시 오면   
그가 지은 연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빈 손이라도 잡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흰 꽃도 볼 수 있으려나   
회산에 회산에 다시 온다면

입김

구름인가, 했더니 연기의 그림자였다  
흩날리는 연기 그림자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아직 훈기가 남아 있었다  
그 중 한 줄기는 더 낮게 내려와  
목련나무 허리를 잠시 어루만지고 올라갔다  
그 다문 입술을 만지려는 순간  
내 손이 꽃봉오리 위에서 연기 그림자와 겹쳐졌다  
아, 이것은 누구의 입맞춤인가

여, 라는 말

잊혀진 것들은 모두 여가 되었다  
망각의 물결 속으로 잠겼다  
스르로 다시 드러나는 바위, 사람들은  
그것을 섬이라고도 할 수 없어 여,라 불렀다  
울여, 새여, 대천어멈여, 시린여, 검은여……  
이 이름들에는 여를 오래 휘돌며 지나간  
파도의 울음 같은 게 스며 있다  
물에 영영 잠겨버렸을지도 모를 기억을  
햇빛에 널어 말리는 동안  
사람들은 그 얼굴에 이름을 붙여주려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바위,  
썰물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바위를 향해서도 여,라 불렀을 것이다  
그러니 여가 드러난 것은  
썰물 때가 되어서만은 아니다  
며칠 전부터 물에 잠긴 여 주변을 낮게 맴돌며  
날개를 퍼덕이던 새들 때문이다  
그 젖은 날개에서 여,라는 소리가 들렸다

마른 물고기처럼

어둠 속에서 너는 잠시만 함께 있자 했다   
사랑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네 몸이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너는 다 마른 샘 바닥에 누운 물고기처럼\*   
힘겹게 파닥거리고 있었다, 나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몸을 비벼야 하는 것처럼   
너를 적시기 위해 자꾸만 침을 뱉었다   
네 비늘이 어둠 속에서 잠시 빛났다   
그러나 내 두려움을 네가 알았을 리 없다   
밖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이, 빛이 물처럼   
흘러들어 어둠을 적셔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나는   
자꾸만 침을 뱉었다, 네 시든 비늘 위에.   
  
아주 오랜 뒤에 나는 낡은 밥상 위에 놓여진 마른 황어들을 보았다   
황어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나는 너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 황어는 겨울밤 남대천 상류의 얼음 위에 앉아 잡은 것이라 한다.   
그러나 지느러미는 꺾이고 그 빛나던 눈도 비늘도 다 시들어버렸다.   
낡은 밥상 위에서 겨울 햇살을 받고 있는 마른 황어들은 말이 없다.

풍장의 습관

房에 마른 열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오늘 아침이었다.   
구석구석 마른 꽃들이 놓여 있다는 것도.   
부엌 찬장에는 병마다   
담근 술과 잼이 담겨 있다는 것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석류와 탱자는 돌보다 딱딱해졌다.   
향기가 사라지니 이제야 안심이 된다.   
그들은 향기를 잃는 대신 영생을 얻었을지   
모른다고, 단단한 껍질을 어루만지면 중얼거려본다.   
지난 가을 내 머리 위에 후둑후둑 떨어져 내리던   
도토리들도 종지에 가지런히 담겨 있다.   
그 중 한 알을 흔들어보니 희미한 종소리가 난다.   
마른 찔레 열매는 아직도 붉다.   
싱싱한 물기를 머금고 있는 꽃다발을 보면서도   
스스로의 습기에 부패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장사지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때이른 風葬의 습관으로 나를 이끌곤 했다.   
바람이 잘 드는 양지볕에   
향기로운 육신을 거꾸로 매달아   
피와 살을 증발시키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었던,   
또는 고통의 설탕에 절인 과육을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고 나무주걱으로 휘휘 저으며   
어딘가로 달아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심지어 홍시를 가지째 벽에 매달아놓고   
그것이 노파의 젖가슴처럼 오그라붙을 때까지 기다리던,   
나는 일종의 건조증에라도 걸린 것일까.   
누군가 나에게 꽃을 참 잘 말린다고 말했지만 그건 유목의 피를 잠재우는 일이었을 뿐이라   
고,   
오늘 아침 房에 들어서는 순간   
후욱 끼치던 마른 꽃냄새, 그 겹겹의 입술들이,   
한번도 젖은 허벅지를 더듬어본 적이 없는 그 입술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나비처럼 가벼워진 꽃들 속에서   
나는 보았다, 그들과 함께 風化되고 있는 자신을.

조찬(朝餐)/나희덕

조찬(朝餐)  
  
  
깃인가 꽃인가 밥인가  
저 희디흰 눈은  
누구의 허기를 채우려고  
내리고 또 내리는가  
​  
뱃속에 들기도 전에 스러져버릴  
양식을, 그러나 손을 펴서  
오늘은 받으라 한다  
  
흰 밥을 받고 있는 언 손들  
  
목튤립 마른 열매들도  
꽃봉오리 같은 제 속을 다 비워서  
송이송이 고봉밥을 받고 있다  
​  
박새들이 사흘은 쪼아먹고 가겠다

겨울 아침

어치 울음에 깨는 날이 잦아졌다  
눈 비비며 쌀을 씻는 동안  
어치는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친다  
  
어미새가 소나무에서 단풍나무로 내려앉자  
허공 속의 길을 따라  
여남은 새끼들이 푸르르 단풍나무로 내려온다  
어미새가 다시 소나무로 날아오르자  
새끼들이 푸르르 날아올라 소나무 가지가 꽉 찬다  
큰 날개가 한 획 그으면  
模畵하듯 날아오르는 작은 날개들,  
그러나 그 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곧 오리라  
​  
저 텃새처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새끼들을 기르며 살고 있다고,  
쌀 씻다가 우두커니 서 있는 내게  
창밖의 날개 소리가 시간을 가르치는 아침  
  
소나무와 단풍나무 사이에서 한 생애가 가리라

그는 먹구름 속에 들어 계셨다

그가 보이지 않으니  
가슴의 火傷 또한 보이지 않았다  
  
동쪽 창으로 멀리 보이던 無等,  
갈매빛 눈매는 성글고 그윽하였으나  
그 기억의 분화구를 들여다보기 두려워  
한 번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너무도 큰 죽음을 보아버린 눈동자가  
저리도 평화로울 수 있다니,  
진물 흐르는 가슴이 저리도 푸르다니,  
그러나 오늘은 그가 먹구름 속에 들어 계셨다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숨소리에 잠이 깨었다  
  
밤마다 그의 겨드랑이께 숨은 마을로 돌아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잠이 들면  
조금 조금씩 걸어 내려와  
어지러운 내 잠머리를 지키다 가곤 했으니  
그를 보지 않은 듯 나는 너무 많이 보아온 것이다  
먹구름이 걷히자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그의 등이 보였다  
  
無等에게로 돌아가는 無等,  
녹음 속의 화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 손에는 거기서 흘러내린 진물이 묻어 있었다  
  
그의 겨드랑이께에서 깨어났다

방을 얻다

담양이나 평창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오래된 한옥 한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 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숫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촉촉했다  
-저어, 방을 한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서 일할 공간이 필요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켰고  
나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께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그라제마는 우리 이씨 집안의 내력이 짓든 데라서  
맴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밀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세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세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 삽의 흙

밭에 가서 한 삽 깊이 떠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   
  
삽날에 발굴된 낯선 흙빛,   
오래 묻혀 있던 돌멩이들이 깨어나고   
놀라 흩어지는 벌레들과   
사금파리와 마른 뿌리들로 이루어진   
말의 지층   
  
빛에 마악 깨어난 세계가   
하늘을 향해 봉긋하게 엎드려 있다   
  
묵정밭 같은 내 정수리를   
누가 저렇게 한 삽 깊이 떠놓고 가버렸으면   
  
그러면 처음 죄 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란 가슴으로 엎드려 있을 텐데   
물기 머금은 말들을 마구 토해낼 텐데   
가슴에 오글거리던 벌레들 다 놓아줄 텐데   
내 속의 사금파리에 내가 찔려 피 흘릴 텐데   
마른 뿌리에 새순을 돋게 할 수는 없어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말을 웅얼거릴 수 있을 텐데   
  
오늘의 경작은   
깊이 떠놓은 한 삽의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옆구리의 절벽

먼지와 빗물 사이에서 봄날이 갑니다  
말수 적은 비둘기들이  
절벽 좁은 틈에 앉아 제 몸을 쪼고  
드문드문 풀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옆구리에 끼고 사는 절벽은  
산을 깎아 건물을 지으며 생겨난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앉아 있는 셈이지요  
요즘도 절벽은 제 몸이 잘려나가던 기억이 나는지  
바람이 심한 날이면  
투둑 투둑 돌부스러기를 떨구곤 합니다  
사람보다 절벽을 보고 사는 날이 많아진 저는  
바윗결에서 숨은 집을 찾아내거나  
어린 나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잊혀진 얼굴도, 모르는 짐승도 저 안에 있습니다  
돌의 이마에 눈을 맞추며  
매일 다른 절벽을 옆구리로 낳아 놓으면  
새들이 날아와 알을 품고  
때죽나무가 절벽 아래로 꽃을 던집니다  
절벽이 더러워지고 또한 씻기는 동안  
먼지와 빗물, 제게도 수없이 다녀갔지요  
이젠 어둠 속에서도 잘 들립니다  
밤마다 절벽 위로 걸어다니는 소리  
그가 누군지 다음날 절벽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門이 열리고

한 개의 門이 열려  
며칠째 눈발이 천지를 메우더니  
천 개의 門이 닫히고  
발들은 모두 묶이고 말았네  
마른 풀대도  
시린 발목을 눈에 묻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네  
소리들도 갇혔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가장자리는 얼어가지만  
흐르는 물만이 門을 닫지 않아  
나는 물소리 앞에 쪼그려 앉았네  
천 개의 門이 닫히고  
당신에게로 흐르는 水門만이 남았네  
눈송이를 낚으려 하나  
물에 닿은 순간 사라져버리네  
젖은 눈 속에 젖은 눈,  
그 열린 門으로 나도 따라 들어가네

초승달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그곳 시인들과 저녁을 먹고  
보리수 곁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  
갑자기 등 뒤에서 어떤 손이 내 어깨를 감싸쥐었다  
나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가 몸을 돌려준 방향으로 하늘을 보니  
산맥 위에 초승달이 떠 있었다  
달 저편에 내가 두고 온 세계가 환히 보였다  
​  
그후로 초승달을 볼 때마다  
어깨에 가만히 와 얹히는 손 있다  
​  
저 맑고 여윈 빛을 보라고  
달 저편에서 건을 건네는 손  
다시 잡을 수 없음으로 아직 따스한 손  
  
굽은 손등 말고는 제 몸을 보여주지 않는 초승달처럼

만년설 아래

저것은 무엇인가.  
  
산맥을 넘는 벌떼 같기도 하고  
대륙을 건너는 모래바람 같기도 하고  
저녁 마을에 내려앉는 는개 같기도 하다.  
  
누군가 꽃가루라고 말해주었다.  
칠 년 만이라 했다.  
알프스의 침엽수가 꽃을 피우는 것이.  
  
만년설 아래 만연한 꽃.  
꽃가루들이 산맥을 휘감으며 날아가고 있었다.  
하늘에 노르스름한 혀를 내밀고 말하는 것이  
칠 년 만이라니, 얼마나 자욱하겠는가.  
  
녹지 않는 눈과  
허공에 녹아 있는 꽃가루  
  
부동과 부유가 하나로 어우러진  
그 장엄한 비행을 보려고  
열 시간 넘게 비행기에 몸을 싣고 왔는지 모른다.  
  
영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조금씩 흘러내리는 만년설에 입을 대고 자라나  
우우우우, 일시에 터뜨리는 함성 같은 것.

가을이었다

가을이었다. 뱀이 울고 있었다. 덤불 속에서 뱀이 울고 있었다. 방울소리 같기도 하고 새소리 같기도 한 울음소리. 아닐 거야. 뱀이 어떻게 울겠어. 뒤돌아서면 등 뒤에서 뱀이 울었다. 내가 덤불 속에 있는 것인가. 뱀이 내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인가. 가을이었다. 뱀이 울고 있었다. 덤불에 가려 뱀은 보이지 않았다. 덤불은 말라가며 질겨지고 있었다. 그는 어쩌자고 내게 말을 거는 것일까. 산길을 내려오는데 울음소리가 내내 나를 따라왔다. 뱀은 여전히 덤불 속에 있었다. 가을이었다. 아무하고도 말을 주고받을 수 업는 가을이었다. 다음날에도 산에 올랐다. 뱀이 울고 있었다. 덤불 속을 들여다보면 그쳤다 뒤돌아서면 다시 들리는 울음소리. 덤불이 앙상해질 무렵 뱀은 사라졌다. 낯선 산 아래서 지낸 첫 가을이었다.

재로 지어진 옷

재로 지어진 옷  
  
  
흰나비가 소매도 걷지 않고   
봄비를 건너간다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그 고요한 날개짓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격렬함이 깃들어 있어  
날개를 둘러싼 고운 가루가  
천 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다  
모든 날개는 몸을 태우고 남은 재이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려 올리면서도  
걸음이 가볍고 가벼운 저 사람  
슬픔을 물리치는 힘 고요해  
봄비 건너는 나비처럼 고요해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그는 남몰래 가졌을까  
옷 한 벌, 흰 재로 지어진

극락강역

극락강이라는 역이 있기는 있을까,  
광주역이 가까워오면 늘 두리번거렸다  
  
극락강역을 놓쳐버린 시선은  
번번이 광주역 광장의 어둠에 부려졌지만  
어느날 들판 사이로 흐르는 실낱 같은 물줄기와  
근처의 작은 역사를 보았다  
  
역 앞에 서 있는 여자아이도 보았다  
때 절은 옷을 입고 아비를 구하기 위해 강을 건너는  
바리데기를 기차는 그냥 지나쳐버린다  
그러나 아이의 해진 옷에서 풀려난 실오라기가  
강물처럼 따라와 내 삶의 솔기를 홀치고  
바리데기는 강을 건넜는지 다시 보이지 않는다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극락강역,  
타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없지만  
대합실에는 밤이면 오롯하게 불이 켜지고  
등꽃 그늘에 누가 앉았다 간 듯 의자 몇 개 놓여 있다  
  
그 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은 또 한 겹의 물줄기를 두르고  
언젠가는 죽음의 강물과 합수하는 날이 오겠지  
극락강이라는 역에도 내릴 수 있겠지

누가 우는가

바람이 우는 건 아닐 것이다  
이 폭우 속에서  
미친 듯 우는 것이 바람은 아닐 것이다  
번개가 창문을 때리는 순간 얼핏 드러났다가  
끝내 완성되지 않는 얼굴,  
이제 보니 한 뼘쯤 열려진 창 틈으로  
누군가 필사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  
울음소리는 그 틈에서 요동치고 있다  
물줄기가 격랑에서 소리를 내듯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좁은 틈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  
창문을 닫으니 울음소리는 더 커진다  
유리창에 들러붙는 빗방울들,  
가로등 아래 나무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다  
저 견딜 수 없는 울음은 빗방울들의 것,  
나뭇잎들의 것,  
또는 나뭇잎을 잃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부딪치는 나뭇가지들의 것,  
뿌리뽑히지 않으려고, 끝내 초월하지 않으려고  
제 몸을 부싯돌처럼 켜대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창 밖에 있다  
내 안의 나무 한 그루 검게 일어선다

그림자는 어디로 갔을까

아침마다 서둘러 출근을 하지만  
그림자는 집에 있다  
그를 두고 나오는 날이 계속되고  
  
그림자 없이도  
웃는 법을 익힌 뒤로는  
내 등 뒤에 그림자가 없다는 걸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집에서 혼자 밥 말아 먹고 있을 그림자  
  
그림자 없이도  
밥 먹는 법을 익힌 뒤로는  
내가 홑젓가락을 들고 있다는 걸  
마주 앉은 사람도 알지 못한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와보니  
그림자가 없다  
안방에도 서재에도 베란다에도 화장실에도 없다  
  
겨울날에 외투도 입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  
신발도 없이 어디로 갔을까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그림자를 기다린다  
그가 나를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비에도 그림자가 있다

소나기 한차례 지나가고   
과일 파는 할머니가 비를 맞은 채 앉아 있던 자리   
사과궤짝으로 만든 의자 모양의 그림자   
아직 고슬고슬한 땅 한 조각   
젖은 과일을 닦느라 수그린 할머니의 둥근 몸 아래   
남몰래 숨어든 비의 그림자   
자두 몇 알 사면서 훔쳐본 마른하늘 한 조각

갈증

어디서 물 끓는 소리 들린다  
저 불을 꺼야 하는데, 꺼야 하는데,  
손을 허공에 내저어보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다  
물이 잦아든 주전자가 달아오른다  
쇠 타는 냄새  
플라스틱 손잡이 녹는 냄새  
녹은 플라스틱이 다시 엉기는 냄새  
급기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물은 한 방울도 남지 않았는데  
물 끓는 소리 계속 들린다  
어서 저 불을 꺼야 하는데, 꺼야 하는데....  
   
 비등점 위의 날들이 계속되고, 비는 내리지 않고, 마른 웅덩이  
에는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개구리떼 울음소리, 누구의 목이 이리  
도 말라 물기란 물기는 다 거두어 가는가, 일어나, 일어나, 저 불  
타는 혀가 너를 삼키기 전에. 소리쳐 보아도 이내 되돌아와 불타  
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아무것도 모른채 잠이 든 마음을 업고 나  
는 그 연기 나는 집을 뛰쳐나왔다.

천 개의 손

그의 손은 천 개나 되고요  
머리에 얹은 화불 또한 헤아릴 수 없어  
손으로 잡으려 하면 뿔뿔이 달어나 버렸지요  
  
대체 그 많은 손을 어디에 쓰나  
갸웃거리며 계단을 더듬더듬 내려오는데  
  
아, 천 개의 싸릿가지가 지나간 마당  
  
고통의 소리를 본다는 그가  
사람 마음에 따라  
서른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가  
내게는 싸리비 든 손으로 와서  
흙알갱이 어지러운 마음 바닥을 쓸고 갔네요  
  
갑자기 눈앞이 환해진 나는   
한 발도 차마 내려서지 못하고  
구름 난간 같은 계단에 앉아  
빈 마당만 소슬하게 들여다보았지요  
마음을 지나는 소나기떼처럼  
싸리비 닳는 소리 아직 들리는 것 같아서요

탑이 기러기처럼 많은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절터와 논이 나란히 엎드려 있다   
  
탑이 기러기처럼 많은 고장이라 하지만   
끌과 정으로 다듬어진 돌만이   
탑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한 포기의 벼가   
제 몸을 힘껏 일으켰다 떠나간   
밑둥들 역시   
푸른 탑을 받치고 있던 기단 아닌가   
  
지푸라기 기단 위에서 낟알을 쪼느라   
고개 숙인 두루미들, 그 목선은   
날렵한 상륜부 같고   
찬 하늘로 날아간 기러기들도   
제 몸속에 탑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지친 그림자를   
바위 그림자 속에 숨겨두고   
거기 기대 앉아 까무룩하니 졸았는데   
  
내 마음에 그 사이 누가 탑을 쌓았다 허물었나   
저녁 햇빛이 앉았다 간 자리   
둥그스름한 기단처럼 남아 있으니

그날의 山有花

잠에서 마악 깨어난 새가  
숨어서 핀 꽃이라도 만난듯  
우연히 우연히도  
새소리를 함께 들었을 뿐  
잠에서 깨어난 새가 들려주는 물소리를  
함께 들었을 뿐  
  
밤새 어둔 맘 곁에  
나지막한 꽃들이  
저도 모르게  
피어났을 뿐

붉디붉은 그 꽃을

산그늘에 눈이 아리도록 피어 있던 꽃을  
어느새 나는 잊었습니다  
검게 타들어 가며 쓰러지던 꽃대도,  
꽃대를 받아 삼키던 흙빛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위에 남겨진 총탄자국도,  
꽃 속에서 들리던 총성도,  
더는 내 마음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다, 잊었습니다, 잊지 않고는  
그의 잎으로 피어날 수 없어  
상사화인지 꽃무릇인지 이름조차 잊었습니다  
꽃과 잎이 서로의 죽음을 볼 수 없어야  
비로소 피어날 수 있다기에  
붉디 붉은 그 꽃을 아주 잊기로 했습니다

빛은 얼마나 멀리서

저 석류나무도  
빛을 찾아나선 삶이기는 마찬가지  
주홍빛 뾰족한 꽃이  
그대로 아, 벌린 입이 되어  
햇빛을 알알이 끌어모으고 있다  
  
불꽃을 얹은 것 같은 고통이  
붉은 잇몸 위에 뒤늦게 얹혀지고  
그동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랑의 잔뼈들이  
멀리서 햇살이 되어 박히는 가을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 나이가 되어도  
빛을 찾아나선 삶이기는  
마찬가지, 아, 하고 누군가 불러본다

연두에 울다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입 속에 쑤셔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 있다.  
저 순연한 벼포기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도 어두운가.  
나를 빛 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 바랠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네 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조건이라도 되는 듯.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온 게 있지.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어떤 出土

고추밭을 걷어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훔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   
  
가을갈이 하려고 밭에 다시 가 보니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   
불꽃도 흙 속에 잦아든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두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 움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

북향집

겨울 햇살 비껴가는  
북향집에 그가 앉아 있었다  
전등도 켜지 않고  
저녁을 맞고 있는 그의 침묵 속으로  
우리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어둠이 혼자 그의 맨발을 씻기고 있었다  
발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우리가 둘러앉은 후에도  
물기 어린 어둠에 자주 눈을 주었다  
올 겨울은 매화盆도 꽃을 맺지 않았다고,  
개가 새끼를 세 마리 낳았다고,  
드문드문 이어지는 말소리 사이로  
늙은 고양이가 어슬렁거리다 잠이 들고  
우리는 외로움을 배우러 온 그의 제자들이 되어  
온기 없는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  
  
북향집 식어가는 아궁이,  
그의 마음에서 천천히 걸어나왔을 때  
마당에는 눈이 서걱거렸다  
대문 앞에 그가 오래 서 있었다

저 물결 하나

한강 철교를 건너는 동안   
잔물결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빼서 서울을 떠난 후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한강.   
어제의 내가 그 강물에 뒤척이고 있었다   
한 뼘쯤 솟았다 내려앉는 물결들.   
서울에 사는 동안 내게 지분이 있었다면   
저 물결 한쪽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결 하나 일으켜   
열 번이 넘게 이삿짐을 쌌고   
물결 하나 일으켜   
물새 같은 아이 둘을 업어 길렀다   
사랑도 물결 하나처럼　   
사소하게 일었다 스러지곤 했다   
더는 걸을 수 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운 것도   
저 낮은 물결 위에서였다   
숱한 목숨들이 일렁이며 흘러가는 이 도시에서   
뒤척이며, 뒤척이며, 그러나   
한 번도 같은 자리로 내려앉지 않는   
물결 위에 쌓았다 허문 날들이 있었다   
거대한 점묘화 같은 서울.   
물결 하나가 반짝이며 내게 말을 건넸다   
저 물결을 일으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행복재활원 지나 배고픈다리 지나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행복재활원 지나 배고픈다리를 지난다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   
전혀 행복하지 않을 때도   
배고프지 않을 때도 그곳을 지나야 한다   
행복재활원 정문 앞에는   
유난히 높은 과속 방지턱이 있어   
아무리 천천히 지나도 온몽이 한 번은 흔들린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다리를 저는 아이들,   
길 건너 마중 나온 엄마가 희미하게 웃고 있을 때   
그 사이를 지나노라면 정상적인 몸으로   
사는 일 자체가 일종의 과속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는 어느새 배고픈다리를 건너고 있다   
다리가 새로 놓이기 전에는   
가운데가 푹 꺼져 있어 붙어진 이름이라 하는데   
천변을 끼고 낮은 지붕들이 늘어서 있다   
누추한 담벼락에는 호박덩굴이,   
다리 옆구리에는 담쟁이가 낮은 포복으로 세상을 건너고   
배고픈다리 건너 보이는 창억떡집,   
떡집의 제분기는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다   
행복한재활, 배고픈 창억,   
그 높거나 낮은 마음의 턱을 넘으며   
엔진은 나도 모르게 그르릉 소리를 낸다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란   
늘 모순형용을 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국밥 한 그릇

ㅡ 故 이문구 선생님을 생각하며  
   
  
아무래도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역으로 달려갔다.  
배가 고팠다.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시장기라니,  
불경스럽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다.  
기차시간을 기다리며 허겁지겁 먹어치운  
국밥 한 그릇.  
벌건 국물에 잠긴 흰 밥알을 털어넣으며  
언젠가 하관(下棺 : 관을 묻기 위해 광중으로 내림)을 지켜보던 산비탈에서  
그분이 건네주신 국밥 한 그릇을 떠올렸다.  
그를 만난 것은 주로 장례식에서였다.  
초상 때마다 호상(護喪)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온\* 그가  
이제는 고단한 몸을 뉘고 숨을 내려놓으려 한다.  
잘 비워낸 한 생애가 천천히 식어가는 동안  
그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국밥 한 그릇을  
눈물도 없이 먹어치웠다.  
국밥에는 국과 밥과 또 무엇이 섞여 있는지,  
국밥 그릇을 들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둘러 삼키려는 게 무엇인지,   
어떤 찬도 필요치 않은 이 가난한 음식을  
왜 마지막으로 베풀고 떠나는 것인지,  
나는 식어가는 국밥 그릇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더 들어가요. 같이 좀 탑시다.  
병원 엘리베이터 타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  
육중한 몸집을 들이밀며 한 아주머니가 타고 나자  
엘리베이터 안은 빽빽한 모판이 되어 버렸다  
11층, 9층, 7층, 5층 …… 문이 열릴 때마다 조금씩 헐거워지는 모판,  
갑자기 짝수 층 엘리베이터에서 울음소리 들려온다  
누구일까, 어젯밤 중환자실 앞에서 울던 그 가족일까,  
모판 위의 삶을 실은 홀수 층 엘리베이터와  
칠성판 위의 죽음을 실은 짝수 층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만난다, 울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가족들과  
짝수 층 엘리베이터에 실린 죽음을  
홀수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흰 헝겊으로 들씌워진 한 사람만  
짝수 층 엘리베이터에 남고, 문이 닫히고,  
잠시 후 B1에 불이 들어온다, 그새에  
홀수 층 엘리베이터 안에는 다시 사람들이 채워진다.  
더 들어가요, 같이 좀 탑시다 …… 아우성이 채워지고, 문이 닫히고,  
빽빽해진 모판은 비워지기 위해 올라가기 시작한다  
1층, 3층, 5층, 7층, 9층, 11층 ……  
삶과 죽음을 오르내리는 사다리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는 나른다, 병든 입으로 들어갈 밥과 국을  
엘리베이터는 나른다, 더 이상 밥과 국을 삼키지 못하는 육체를  
엘리베이터는 나른다, 병든 손을 잡으려는 수많은 손들을  
  
엘리베이터는 나른다, 더 이상 병든 손조차 잡을 수 없는 손들을

흰 구름

사람들은 구내식당에 줄을 서서  
자신의 욕망만큼 주문한다  
아니, 일용할 욕망이 허락되는 만큼  
  
​공기밥 400원 아욱국 200원 제육볶음 1000원 시금치나물 400원 해파리냉채 600원 김치찌개 1000월 병어구이 1000원  
  
​수저를 드는 순간  
내 앞에서 수저를 드는 순간  
나는 저 손을 알고 있다  
조금 전까지 거리에서 광고지를 나누어주던 손  
버려지기 위해 쌓인 광고지와  
그것을 다 버려야만 밥을 벌 수 있는 손  
그 손이 하염없이 먹고 있는  
  
 한 그릇 맨밥  
  
얼어터진 손등이 나르고 있는 흰 밥알들은  
부르튼 입술 사이에서 구름처럼  
뭉쳐지고 풀어지고 뭉쳐졌다 풀어지고  
밥알을 씹는 어두운 눈동자 속으로  
잠시 휘돌다 사라지는  
  
흰 구름 한점

진흙 눈동자

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신다  
아버지, 부르면  
그제야 너 왔냐, 웃으신다  
   
갑자기 식어버린,  
열려 있지만 더 이상 피가 돌지 않는  
저 눈동자 속에  
어느 손이 진흙을 메워버렸나  
   
괜찮다, 한 눈은 아직 성하니  
세상을 반쯤 만 보고 살라는 모양이다  
조금씩 흙에 가까워지는 게지,  
아버지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고요한 진흙 눈동자,  
그 속에 앞산의 나무 몇 그루 들어와 있다.

斷指

성난 바람이 닫고 가는 문에  
어머니의 손가락이 잘리고 말았다  
  
그보다는 손가락을 넣어  
들이치는 바람을 막으셨다고 말해야겠다  
​  
얘야, 떨지 마라.  
이 피와 살점을 가져다 저 굶주린 바람에게 먹여라.​  
  
피에 점화된 불꽃을 보고  
문밖의 승냥이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  
허옇게 굳어가는 손가락을  
오, 촛불처럼 들고 걸어가시는 어머니

소풍

얘들아, 소풍 가자.  
해지는 들판으로 나가  
넓은 바위에 상을 차리자꾸나.  
붉은 노을에 밥 말아먹고  
빈 밥그릇 속에 별도 달도 놀러 오게 하자.  
살면서 잊지 못할 몇 개의 밥상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그런 밥상을  
너희에게 차려줄 때가 되었나 보다.  
가자, 얘들아, 어서 저 들판으로 가자.  
오갈 데 없이 서러운 마음은  
정육점에 들러 고기 한 근을 사고  
그걸 싸서 입에 넣어 줄 채소도 뜯어왔단다.  
한 잎 한 잎 뜯을 때마다  
비명처럼 흰 진액이 배어 나왔지.  
그리고 이 포도주가 왜 이리 붉은지 아니?  
그건 대지가 흘린 땀으로 바닷물이 짠 것처럼  
엄마가 흘린 피를 한 방울씩 모은 거란다.  
그러니 얘들아, 꼭꼭 씹어 삼켜라.  
그게 엄마의 안창살이라는 걸 몰라도 좋으니,  
오늘은 하루살이 떼처럼 잉잉거리며 먹자.  
언젠가 오랜 되새김질 끝에  
네가 먹고 자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너도 네 몸으로 밥상을 차릴 때가 되었다는 뜻이란다.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저 노을빛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이 바위에 둘러앉아 먹던 밥을  
잊지 말아라, 그 기억만이 네 허기를 달래줄 것이기에.

붉은 만다라

시간은 酸性이다.  
아현호프 뒷골목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라,  
거기 앉아 서럽게 오줌을 누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삭혀낸 무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술꾼들이 함부로 갈기고 간 오줌기와  
빗물이 들이치고 간 자리마다 허물허물 피어나는  
붉은 꽃, 부서져내리는 꽃,  
화장실 함석문에 피어난 만다라를.  
깨진 전등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쏟아낸 똥과 오줌은  
바닥에 닿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끝내 부식되지 않는 시멘트벽의 고요보다는  
저 끓어오르는 오물의 냄새가,  
녹슨 함석 문짝을 열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저 신발 끄는 소리가 오늘밤은 더 좋다.  
시간은 신발 뒤축을 낡게 하면서   
스스로도 신발을 끌고 황망히 사라지고 있으니,  
그의 뒷모습을 보려거든  
아현호프 뒷골목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라.  
녹슨 만다라 앞에 쭈그려 앉으면  
오체투지로 그려낸 붉은 꽅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수족관 너머의 눈동자

삼짇날 아침 나는 발견되었다   
방앗간에 앉아 있던 한 시인\*에 의해   
그가 하릴없이 뒤적이던 묵은 여성잡지 속에서,   
생불이라 불리는 숭산 스님의 수행담과   
전도연이 알몸 섹스 연기를 했다는   
기사 사이에서, 성과 속 사이에서,   
그가 보았다는 내 산문집 기사 속에서  
  
그의 눈동자에 발견된,   
그의 시에서 자신을 발견한   
나는 누구인가  
  
시집을 닫고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씻는다   
무엇에 찔린 듯 아프다   
물이 손등을 흘러내려 먼 곳으로 가는 동안   
어떤 말들이, 기억들이 흘러내린다  
  
십여 년 전 영등포 후미진 다방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그의 등뒤에는 수족관이 놓여 있었고   
내 시선은 열대어들을 따라 어색하게 두리번거렸다  
  
그는 쫓기고 있었으나 자유로워 보였고   
나는 어떤 날보다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인파 속으로 사라졌던 그가   
몇 달 후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푸른 수의를 입은 그를 한번쯤 더 보았던가   
면회창 사이로 말은 자꾸 끊어지고   
문밖에는 진눈깨비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느덧 봄이 오고,   
진눈깨비 대신 황사 날리는 삼짇날 아침   
방앗간에 앉아 있던 그에 의해 나는 발견되었다,   
낡아가는 지느러미를 파닥이며 거대한 수족관 속에서

상수리나무 아래

누군가 맵찬 손으로  
귀싸대기를 후려쳐주었으면 싶은  
  
잘 마른 싸릿대를 꺾어  
어깨를 내리쳐주었으면 싶은  
  
가을날 오후  
  
언덕의 상수리나무 아래  
하염없이 서 있었다  
  
저물녘 바람이 한바탕 지나며  
잘 여문 상수리들을  
머리에, 얼굴에, 어깨에, 발등에 퍼부어주었다  
  
무슨 회초리처럼, 무슨 위로처럼

초분(草墳)

남쪽 바다 외나로도 고갯길에서   
초분 몇을 보았다  
  
파도소리 들으며 오손도손 볕을 쬐는   
풀무덤들이 내게는   
왜 세 척의 배로 보였는지  
  
바다를 보고 싶어서   
조기떼 우는 소리에 뒤척이고 싶어서   
돌 구르는 언덕 위에 앉아 있는   
통나무 위에 관을 얹고   
볏짚날개를 마른 돛처럼 펼치고   
금방이라도 바다를 향해 떠날 것 같은   
푸른 생솔가지 꽂고   
저승길 저어가는 배처럼 보였는지  
  
살 썩은 물은 땅으로 흘려 보내고   
마른 뼈만 마른 뼈만   
바람에 지푸라기 날리며 가는 배

북극성처럼 빛나는

멀리 보이는 흰 바위섬,  
뱃사람은 그것을 오지바위라 부른다  
가까이 가보니 새들의 분뇨로 뒤덮여 있었다  
가마우지떼가 겨울을 나는 섬이라고 한다   
수많은 바위섬을 두고 유독  
그 바위에만 날아와 앉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마우지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모여사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다  
포식자의 눈과 발톱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떼를 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이 바위를 희게 만들었다   
절벽 위에서 서로를 견디며  
분뇨 위에서 뒹굴고 싸우고 구애하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지상의 집들 또한 상처를 널어 말리고 있지 않은가   
가파른 절벽 위에 뒤엉킨 채  
말라붙은 기억, 화석처럼 찍힌 발톱자국  
일렁이는 파도에도 씻기지 않는  
그 상처를 덮으러 다시 돌아올 가마우지떼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힘은  
파도 위 북극성처럼 빛나는 저 분뇨자국이다

담배꽃을 본 것은

마흔이 가까워서야 담배꽃을 보았다   
분홍 화관처럼 핀 그꽃을   
  
잎을 위해서   
꽃 피우기도 전에 잘려진 꽃대들,   
  
잎그늘 아래 시들어가던   
비명소리 이제껏 듣지 못하고 살았다   
  
툭, 툭, 목을 칠 때마다 흰 피가 흘러   
담뱃잎은 그리도 쓰고 매운가   
  
담배꽃 한줌 비벼서 말아 피우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족두리도 풀지 않은 꽃을 바라만 보았다   
주인이 버리고 간 어느 밭고랑에서   
  
마흔이 가까워서야 담배꽃의 아름다움을 알았다   
夏至도 지난 여름날   
  
뙤약볕 아래 드문드문 피어 있는   
버려지지 않고는 피어날 수 없는 꽃을

소나무의 옆구리

어떤 창에 찔린 것일까  
붉게 드러난 옆구리에는  
송진이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기어가던 개미 한 마리  
그 투명하고 끈적한 피에 갇혀버린 것은  
함께 굳어가기 시작한 것은  
  
놀라서 버둥거리다가 움직임을 멈춘 개미,  
그날 이후 나는  
소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제 목숨보다도 단단한 돌을 품기 시작한  
그의 옆구리를 보려고  
  
개미가 하루하루 불멸에 가까워지는 동안  
소나무는 시들어간다  
불멸과 소멸의 자웅동체가  
제 몸에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골짜기보다도 깊은

꽝꽝나무 군락지를 지나  
여기는 나무들의 무덤인가  
  
이 높은 곳에  
제 뼈를 묻기 위해  
먼 길 걸어온 고사목들  
  
무슨 꽃 무슨 이파리 대신  
피 마른 몸, 그 비틀림을 언어 삼아  
영원을 말하는 나무들  
  
그 몸 열고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  
여기까지 걸어온 뿌리들의 해진 신발을,  
도낏날 같은 가지 끝으로  
제 하늘을 찍어대던 어지러운 그림자를  
  
나무들의 무덤 곁에서  
죽음의 달디단 향기에 취해 있자니 멀리서  
마른 가지 부러지는 소리  
툭 ㅡㅡ  
골짜기보다도 깊게 들린다

소나기

노인도 아기도 벌거벗었다  
빗줄기만 걸쳐 입은 노인의 다리가  
마른 수숫대처럼 여위었다  
늘어진 성기, 주름진 사타구니 아래로  
비는 힘없이 흘러내리고  
오래 젖을 빨지 못한 아기의 눈이  
흙비에 젖어 있다  
옥수수가 익으려면 아직 멀었다  
  
연길 들판, 소나기 속으로  
늙은 자연이 어린 자연을 업고 걸어가는 오후

낯선 고향

끝없는 들판에 점점이 숨은 집들,  
창문에 하나 둘 불이 켜졌다  
외양간처럼 초라한 집 속의 어둠이 밝혀지자  
거기 아직 六畜의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칠십 년 전처럼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들에서 돌아온 식구들이  
침침한 전등 아래서 감자를 쪼개고 있을  
저녁, 나는 낯선 고향을 지나며  
그 불 켜진 창을 향해 걸어 들어고 싶었다  
문간에서 오래 서성거리며  
누구의 피붙이라고 주어댈 수도 없겠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우리는  
서로의 익숙한 냄새를 곧 알아차릴 것 같았다  
소나기 후두둑 지나고  
빗물 듣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면  
언젠가 태어난 적이 있는 처마로 돌아온 듯도 할 것이다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 불빛을 향해 걸어온 것일까  
아니, 그이들은 왜 이리도 먼 곳에  
고향을 옮겨와 칠십 년 전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  
연길 지나 만주로, 간도로 흩어졌던 식구들  
가난을 있는 대로 다 살고도 남은 가난이 있어  
六畜처럼 도란도란 살고 있는데,  
깜박거리는 불빛이 새삼 서러운 것은  
누추한 지붕 때문이 아니다  
그 불빛 아래 내가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멀리 떠돌다 여기에 이른 까닭이다

圖門 가는 길

노새야, 노새야,  
옥수수자루를 싣고 오는 노새야,  
네 등이 너무 좁구나.  
  
나는 도문으로 가고  
너는 도문에서 오는 길인데  
네가 걸어온 길을 따라 도문에 이르면  
강 건너 아버지의 고향땅이 보이겠지.  
  
밤이면 조선족의 소를 훔쳐 건너기도 한다는  
강물은 얕고도 깊어서  
새떼가 날아가는 남양\*의 언덕을  
막막하게 바라만 보다가 돌아오겟지.  
  
말도 당나귀도 아닌 네가,  
대신 울어줄 새끼도 낳을 수 없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등에 짐을 가득 싣고 걷는 일.  
  
타박타박 발굽이 다 닳을 때까지  
너와 함께 두만강을 따라 걷고 싶구나  
  
노새야, 노새야,  
저녁 연기 속으로 멀어져가는 노새야,  
네 등이 너무 좁구나.  
  
나는 도문으로 가고  
너는 도문에서 오는 길인데  
좁고 여윈 등이 닮아 있구나.

또 나뭇잎 하나가

그간 괴로움을 덮어보려고  
너무 많은 나뭇잎을 가져다 썼습니다  
나무의 헐벗음은 그래서입니다  
허나 시멘트 바닥의 이 비천함을  
어찌 마른 나뭇잎으로 다 가릴 수 있겠습니까  
새소리 몇 줌으로  
저 소음의 거리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입술은 자꾸만 달싹여  
나뭇잎들을, 새소리들을 데려오려 합니다  
  
또 나뭇잎 하나가 내 발등에 떨어집니다  
목소리 잃은 새가 저만치 날아갑니다

聖 느티나무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올봄도 잎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瑢樹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세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마악 펴들고 있다

검은 점이 있는 누에

蠶室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파리다  
문을 단단히 닫으라던 어른들의 잔소리도  
행여 파리가 들어갈까 싶어서였다  
  
누에들이 뽕잎을 파도처럼  
솨아솨아 베어 먹고 잠이 든 사이  
파리가 등에 앉았다 날아가면  
그 자리에 검은 점이 찍히고,  
점이 점점 퍼져 몸이 썩기 시작한 누에는  
잠실 밖으로 던져지고 마는 것이다  
  
네 번의 잠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누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허물어지는 몸을 이끌고 마른 흙에 뒹굴고 있던,  
끝내 섶에 올라 羽化도 못하고  
한 올의 명주실도 풀어낼 수 없게 된 그들이  
어린 내 눈에는 왜  
잠실의 누에들보다 더 오래 머물렀을까  
  
어느 날 내 등에도  
검은 점이 있다는 것을, 그 點指가  
삶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낯선 골목에서 저녁을 맞고 있었다

땅 속의 꽃

땅 속에서만 꽃을 피우는 난초가 있다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본 사람이 드물다 한다  
가을 비에 흙이 갈라진 틈으로 향기를 맡고 찾아온  
흰개미들만이 그 꽃에 들 수 있다  
빛에 드러나는 순간 말라버리는 난초와  
빛을 피해 흙을 파고드는 흰개미,  
어두운 결사에도 불구하고 두 몸은 희디희다  
  
현상되지 않은 필름처럼 끝내 지상으로 떠오르지 않는  
온몸이 뿌리로만 이루어진  
꽃조차 숨은 뿌리인

새는 날아가고 [야생사과(2009)]

새가 심장을 물고 날아갔어  
창밖은 고요해  
나는 식탁에 앉아 있어  
접시를 앞에 두고  
거기 놓인 사과를 베어물었지  
사과는 조금 전까지 붉게 두근거렸어  
사과는 접시의 심장이었을까  
사과씨는 접시의 심장이었을까  
둘레를 가진 것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담겼다 비워지지  
심장을 잃은 것들의 박동을  
너는 들어본 적이 있니?  
둘레로 퍼지는 침묵의 빛,  
사과를 잃어버리고도  
접시가 아직 깨지지 않은 것처럼  
나는 식탁에 앉아 있어  
식탁과 접시는 말없이 둥글고  
창밖은 고요해  
괄호처럼 입을 벌리는 빈 접시  
새는 날아가고  
나는 다른 심장을 삼키고  
둘레를 가진 것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그렇게 만났다 헤어지지

빗방울에 대하여

1  
빗방울이 구름의 죽음이라는 걸 인디언 마을에 와서 알았다  
빗방울이 풀줄기를 타고 땅에 스며들어  
죽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야  
  
2  
인디언의 무덤은  
동물이나 새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빗방울이 멀리서도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3  
새 형상의 무덤은 흙에서 날고  
사슴 형상의 무덤은 아직 물을 뜯고 있다  
이 비에 풀은 다시 돋아날 것이다  
  
4  
나무들은 빗방울에게 냄새로 이야기한다  
숲은 향기로 소란스럽고  
오래된 나무들은 벌써 빗방울의 기억을 털고 있다  
  
5  
쓰러진 나무는 비로소 쓰러진 나무다  
오랜 직립의 삶에서 놓여  
나무의 맨발을 빗방울이 천천히 씻기고 있다  
  
6  
빗방울은 구름의 기억을 버리고 이 숲에 왔다  
그러나 누운 뼈를 적시고  
구름과 천둥의 시절로 돌아갈 것이  
  
7  
구름이 강물의 죽음이라는 걸 인디언 마을에 와서 알게 되었다  
죽은 영혼이 어루만진 강물이  
햇빛에 날아오르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야

야생사과

어떤 영혼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붉은 절벽에서 스며나온 듯한 그들과​  
  
목소리는 바람결 같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흘러가는 구름과 풀을 뜯고 있는 말,  
모든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선명한 저녁이었다  
  
그들은 붉은 절벽으로 돌아가며  
곁에 선 나무에서 야생사과를 따주었다​  
  
새가 쪼아먹은 자리마다  
개미들이 오글거리며 단물을 빨고 있었다​  
  
나는 개미들을 훑어내고 한입 베어물었다  
달고 시고 쓰디쓴 야생사과를​  
  
그들이 사라진 수평선,  
내 등 뒤에 서 있는 내가 보였다  
​  
바람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그들이 건네준 야생사과를 베어물었을 뿐인데

숲에 관한 기억

너는 어떻게 내게 왔던가?  
오기는 왔던가?  
마른 흙을 일으키는 빗방울처럼?  
빗물 고인 웅덩이처럼?  
젖은 나비 날개처럼?  
숲을 향해 너와 나란히 걸었던가?  
꽃그늘에서 입을 맞추었던가?  
우리의 열기로 숲은 좀더 붉어졌던가?  
그때 너는 들었는지?  
수천 마리 벌들이 일제히 날개 터는 소리를?  
그 황홀한 소음을 무어라 불러야 할까?  
사랑은 소음이라고?  
네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던가?  
정말 그 숲이 있기는 있었던가?  
  
그런데 웅웅거리던 벌들은 다 어디로 갔지?  
꽃들은, 너는, 어디에 있지?  
나는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못했는데?

쇠라의 점묘화

언제부턴가 선이 무서워졌어요 거침없이 달리며 형태와 색채를 뿜어내는 선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사물에 대한 의심이 많아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빛에 대한 난해한 사랑이 생겼다고 할까요 선들이 내지르는 굉음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일요일 오후 양산을 쓰고 걸어가는 여자도 강둑에서 몸을 말리는 남자도 나팔을 부는 소년도 의자에 기대앉은 노인도 처음엔 완강한 선 속에 갇혀 있었지요 그들을 꺼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을 빻고 또 빻는 일뿐이었어요 아침에 문밖에서 길어온 이미지를 불에 달군 쇠막대기처럼 망치로 종일 두드려요 저녁 무렵에야 뜨거워진 선에서 떨어져나온 쇳가루들이 캔버스에 점점이 흩어지지요 빛은 가루가 되어 다른 빛과 몸을 섞어요 그림자는 다른 그림자에 스며들어요 검은 개는 더 이상 검은 개가 아니에요 개의 털빛과 그 위에 내리는 빛이 만나 어룽거려요 희미해진 개와 고양이와 사람들은 햇빛 속을 한가롭게 거닐지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나는 그들을 알아볼 수 없어요 서로를 삼키고 비추는 점들의 환영, 그 한 폭의 기이한 평화 앞에서 내 눈은 점점 어두워져요

말의 꽃

꽃만 따먹으며 왔다  
또옥, 또옥, 손으로 훑은 꽃들로  
광주리를 채우고, 사흘도  
못 갈 향기에 취해 여기까지 왔다  
치명적으로 다치지 않고  
허기도 없이 말의 꽃을 꺾었다  
시든 나무들은 말한다  
어떤 황홀함도, 어떤 비참함도  
다시 불러올 수가 없다고  
뿌리를 드러낸 나무 앞에  
며칠째 앉아 있다  
헛뿌리처럼 남아 있는 몇 마디가 웅성거리고  
그 앞을 지나는 발바닥이 아프다  
어떤 새도 저 잿빛 나무에 앉지 않는다

꽃바구니

자, 받으세요, 꽃바구니를.  
이월의 프리지아와 삼월의 수선화와  
사월의 라일락과  
오월의 장미와 유월의 백합과  
칠월의 칼라와 팔월의 해바라기가  
한 오아시스에 모여 있는 꽃바구니를.  
이 꽃들의 화음을.  
  
너무도 작은 오아시스에  
너무도 많은 꽃들이 허리를 꽂은  
한 바구니의 신음을.  
  
대지를 잃어버린 꽃들은  
이제 같은 시간을 살지요.  
서로 뿌리가 다른 같은 시간을.  
향기롭게, 때로는 악취를 풍기며  
바구니에서 떨어져내리는 꽃들이 있네요.  
  
물에 젖은 오아시스를 거절하고  
고요히 시들어가는 꽃들,  
그들은 망각의 달콤함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꽃바구니에는 생기로운 꽃들이 더 많아요.  
하루가 한 생애인 듯 이 꽃들 속에 숨어  
나도 잠시 피어나고 싶군요.  
수줍게 꽃잎을 열듯 다시 웃어보고도 싶군요.  
  
자, 받으세요, 꽃바구니를.  
이월의 프리지아와 삼월의 수선화와  
사월의 라일락과  
오월의 장미와 유월의 백합과  
칠월의 칼라와 팔월의 해바라기가  
한 오아시스에 모여 있는 꽃바구니를.

불견(不見)과 발견(發見) 사이

1974년 6월 5일 不見.  
1974년 6월 8일 不見.  
1974년 6월 9일 不見.  
1974년 6월 11일 不見.  
1974년 6월 15일 不見.  
1974년 6월 18일 不見.  
1974년 6월 22일 不見.  
  
포경선의 어둠을 이렇게 기록한 이가 있다  
  
한 줄의 기록에 막막하게 펼쳐진  
수평선과 안개  
  
1974년 6월 24일 밍크 3구 드디어 發見.  
  
한 줄의 기록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비린내와 핏물  
  
不見과 發見 사이에 닻을 내린  
어선의 불빛으로 밤바다는 더 깊어지고  
항구로 오래 돌아가지 못한 이의  
낡은 남방이 벽에 걸려 있다  
  
빛바랜 항해일지에는  
見자의 마지막 획이 길게 들려 있다

모래알 유희

네가 벗어던진 물결이   
오늘 내 발목에 와 찰랑거린다   
  
선생님, 저예요,   
저는요, 배를, 너무, 타고 싶었어요,   
항해사가 되어, 먼, 아주 먼, 바다에 나가,   
영영,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그라든, 왼손 때문에,   
항해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이, 다시 펴질 수도, 없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늘,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거,   
그래도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차렸죠,   
제 손이, 다시 펴질 수, 없다는 걸,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제 손을, 가만히, 꺼내어 잡아주셨지요,   
선생님, 죄송해요, 인사도 못, 드리고 와서,   
그때, 복도에서, 만났을 때,   
먼, 길, 떠난다는, 말이라도 전할 걸,   
그래도, 바다에 오길, 잘, 했어요,   
붉은 흙 대신, 푸른, 물이불을 덮으니까,   
꼭, 요람 속 같아요, 그러니 제 걱정, 마세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던, 세상이,   
여기서는 그냥, 출렁거려요, 잡을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제가, 보이세요,   
유리도, 깨질 때는, 푸른, 빛을, 띤다잖아요,   
부서지고, 부서져서, 나중엔,   
저, 모래알들처럼, 작고, 투명해질, 거예요,   
   
흰 물거품을 두 손으로 길어 올렸지만   
손 안에 남은 것은   
한 줌의 모래   
  
아, 이 모래알이 저 모래알에게 갈 수 없다니!

한 아기가 나를 불렀다

돌로 된 아기들을 지나왔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발에 가시가 박혔다  
아기들이 돌 속에서 웃었다  
세상의 고통을 만져본 적 없는 웃음이다  
아기들이 돌 속에서 울었다  
세상의 고통에 적셔본 적 없는 울음이다  
햇빛도 못 보고 죽은 핏덩이들에게  
형상을 주고 이름을 붙여준 이는 누구일까  
돌아기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이름이 적힌 수건을 목에 걸었다  
아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싶었지만  
햇빛과 빗물에 바래 보이지 않았다  
머나먼 옛날 강가에서  
돌아기들은 고사리손으로 탑을 쌓았다  
강을 건너려고 수없이 쌓았다가 무너진 돌탑,  
엎드려 울고 있는 돌아기들에게  
돌로 된 어머니가 나타났다  
울지 마라, 아가야,  
내가 저 강을 건네주마, 너를 낳아주마,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왼손에는 아기를 안은 돌어머니,  
그녀의 두 발과 옷자락이 젖어 있었다  
돌로 된 아기들을 지나왔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발에 가시가 박혔다  
한 아기가 나를 불렀다  
돌 속에서 아장아장 걸어나왔다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양수 속에서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길을 잃었다  
밥을 떠넣고 아기를 낳고 한숨을 쉬고  
시를 쓰고 버스를 기다린 것도 양수 속에서였다  
버스는 나를 멀리 데려가곤 했지만  
버스 차창에 맺힌 빗방울, 나를 적신  
모든 물이 양수였다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자궁 속에서 몸을 씻는 사람들  
자궁 속에서 시체 태우는 사람들  
흰옷 입은 그들 곁에 기웃거리는 개들  
  
장작 값이 모자란 시체는 반쯤 태워져  
개들의 차지가 되거나 나무토막에 묶여 떠돌았다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면서 더 깊은 강으로, 자신에게로  
흘러들었다 기슭 저편에서 떠오른 해는  
자궁 속을 붉게 비추어주었지만  
배들은 기슭 저편에 닿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탯줄과도 같은 지상의 길들 어디선가 끊어지고  
양수는 점점 핏빛이 되어갔다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  
시체 태우는 연기 자궁 속에 자욱했다

숨비소리

이따금 첫 물질을 나갔을 때 생각이 나. 처음엔 너무 무서워 태왁만 꽉 붙잡고 있었지. 갑자기 등 뒤에서 어떤 손이 나를 밀어넣었어. 그런데 바닷물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이상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지. 푸른 피를 흘리는 거대한 짐승 속에서 내 피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 같다고 할까. 그날부터 바다의 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머리를 감았지. 휘이- 휘이- 휘이- 휘이- 숨비고 숨비고 숨비면서 건너는 한 生.   
  
＊   
  
둥근 수경을 통해 본 바다는 둥글지 않아. 잘게 부서진 파도는 유리조각처럼 날카롭지. 투명하지만 차갑고 단단한 물결들. 유리창에 부딪쳐 죽는 새들이 있듯 물결에 부딪쳐 죽는 고기들도 있지.   
  
＊   
  
어제의 피로가 잠수복 속에 아직 남아 있어. 오늘의 피로가 어제의 피로와 만나 피워내는 냄새. 탄산가스. 만성두통. 약간의 구역질. 근육마비. 어깨에 박힌 돌멩이 두 개. 망사리에 가득한 조개들. 돌멩이처럼 흔한, 돌멩이처럼 무거운 조개들. 조개는 조개를 낳고 조개는 조개를 낳고...... 조개를 캐는 동안 몸은 석회질에 점점 가까워지지. 어제의 피로는 오늘의 피로를 낳고 오늘의 피로는 내일의 피로를 낳고...... 그래도 익사할 수 없는 것은 어깨에 박힌 두 날개 때문이야.   
  
＊   
  
매일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지. 검은 물갈퀴는 어둠을 가르고 어제보다 더 멀리 내려갔지. 우리가 죽음의 아가리라고 부르는 그곳까지. 싸이렌들이 빛 속에서 나풀거리는 곳, 몇번이나 넘고 싶었던 그 문턱에서 가까스로 돌아와 휘파람을 불어. 휘이- 휘이- 휘이- 휘이- 내 속에 살고 있는 물새 한 마리.

결정적 순간

일찍이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법이나 빗줄기에 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가을 햇빛에 아름답게 물드는 법에 대해 배워왔다 하지만 이파리의 일생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는 낙법에 달려 있다 어디에 떨어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잎이 아닌 것은 아니다 바람에불려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우연에 몸을 맡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적어도 수십 마일 이상 날아가 고요히 내려앉는법을 알고 있다 그러려면 우선 바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한다 바람이 몸을 들어올리는 순간 바람의 용적과 회전속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팔랑팔랑 허공을 떠돌다 강물위에 내려앉는 낙엽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마지막 한마디를위해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 모른다 한방울의 비가 물 위에희미한 파문을 일으키거나 별똥별이 하늘에 성호를 긋고사라지는 것도 다르지 않다 죽음이 입을 열어 하나의 몸을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이 중요하다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와 빛이 절묘하게 만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하듯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있다 잎맥을 따라 흐르던 물기가 한꼭짓점에서 일제히 끊어지는 순간,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제 발목을 내리쳐야 한다 그러면 짧으면서도 아주 긴순간 한 생애가 눈앞을 스쳐갈 것이다 벌써 절반이 넘는 이파리들이 나무를 떠났다 그들은 떨어진 게 아니라 날아간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처럼 보여도 이파리에게는 오짓 한순간이 주어질 뿐이다 허공에 묘비명을 쓰며날아오르는 한순간이

존 말코비치 되기

7층과 8층 사이 7.5층의 어둠,  
무의식이 다락방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  
  
말코비치, 내 소리 들려요?  
당신 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 있어요?  
추운 고속도로변에 던져져도 좋아,  
단 십오분 동안이라도  
당신의 피와 침 속에 녹아들 수 있다면!  
아, 나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당신 몸 속에 흘러들어  
메뉴판 가득 적힌 당신을 주문하고  
나를 후루룩 마셔버리고 싶어!  
아니면 당신 입 속에 숨어  
질기디질긴 나를 되새김질하거나  
다신 눈 속에 스며  
나를 스르륵 지워버리고 싶어!  
벗어나도 벗어나도 내 속에 갇혀 있는  
나를 건져내고 싶어!  
  
욕조에 빠진 파리처럼  
지푸라기처럼

분홍신을 신고

음악에 몸을 맡기자   
두 발이 미끄러져 시간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서 풀려나온 실은   
술술술술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흘러갔지요   
춤추는 발이   
빵집을 지나 세탁소를 지나 공원을 지나 동사무소를 지나   
당신의 식탁과 침대를 지나 무덤을 지나 풀밭을 지나   
돌아오지 않아요 어쩌면 좋아요   
세상은 나에게 계속 춤추라고 외쳤죠   
꼬리 잘린 고양이처럼 다리를 잘린다 해도   
음악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다니,   
그것도 나에게 꼭 맞는 분홍신을 신고 말이에요   
내 핏속에서 들리는 노랫소리,   
둑을 넘어가는 물소리, 당신에게도 들리나요?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   
이곳은 아무리 춤을 춰도 해가 지지 않아요   
물이 둑을 넘어 흘러내리듯   
내 속의 실타래가 한없이 풀려나와요   
실들이 뒤엉키고 길들이 뒤엉키고   
이 도시가 나를 잡으려고 도끼를 들고 달려와도   
이제 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오래 전 내 발에 신겨진, 그러나 잠들어 있던   
분홍신 때문에   
그 잠이 너무도 길었기 때문에

육각(六角)의 방

이 방 속에  
나는 덜 익은 꿀처럼 담겨 있다  
문이 열리면 후루룩 흘러내릴 것처럼  
  
이 방 옆에  
또다른 방들이 붙어 있다는 게 마음 놓인다  
켜켜이 쌓인 六角의 방들을  
고통이 들락거리며 매만지고 간다  
  
이 방은  
군집할 수 있는 최적의 각도와  
고립할 수 있는 최적의 넓이를 지녔다  
  
내 어깨를 쏘았던 말벌은  
침을 잃었고 나는  
침을 삼키고 오래 앉아 있다  
  
땅 위에 으깨진 말벌집,  
검은 물결무늬를 지닌 한 세계가 출렁거리고  
六角의 방에서  
애벌레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한다  
  
꿀은 아직 익지 않았다

벽과 바닥

빛을 머금은 창이  
바닥에 직사각의 빛을 드리운다  
  
창을 빨아들이기 위해  
  
바닥의 남은 몸은 온통 그늘이다  
  
직사각의 빛 속에  
누군가 삼각팬티를 널어 놓는다  
  
꽃병에 꽂힌 꽃처럼  
삼각팬티는 피어나기가 무섭게 말라간다  
  
명암에 따라 색이 변하는 꽃,  
삼각팬티는 천천히 빛에서 그늘로 간다  
그늘 속에서도 말라간다  
  
결국 방은 어두워지고  
그림자놀이를 하던 벽과 바닥은  
등을 맞대고 있다,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꽃병은 사라지고 꽃만 남았다

대화

(對話)   
  
  
무당벌레와 나밖에 없다  
추위를 피해 이 방에 숨어들기는 마찬가지다  
  
방바닥을 하염없이 기어가다가  
무료한 듯 몸을 뒤집고 버둥거리다가  
펼쳐놓은 책갈피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기억이라도 난 듯  
뒤꽁무니에서 날개를 꺼내 위이잉 털기도 한다  
  
작은 전기톱날처럼  
마음 어딘가를 베고 가는 날개 소리,  
창으로 든 겨울 햇살이 점박이 등을 비추고  
그 등을 바라보는 눈가를 비추면  
  
내 속의 자벌레가  
네 속의 무당벌레에게 말을 건넨다  
조금은 벌레인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는 어떤 것일까  
  
냄새를 피우거나  
서로의 주위를 맴돌며 붕붕거리는 것?  
함께 뒤집혀 버둥거리는 것?  
암술과 수술을 드나들며  
꽃가루를 헛되이 일으키는 것?  
  
어느 구석진 창틀에서 말라가기 전까지  
조금은 벌레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온기는 어떤 것일까  
  
노루꼬리처럼 짧은 겨울 햇살 한 줌

원정의 말

園丁은 겨울을 나는 벌을 위해  
설탕물을 끓여 벌집에 부어주었다  
  
벌집 속에서만 잉잉대는 벌떼처럼  
눈을 틔우지 못한 채 떨고 있던 매화나무,  
언 땅을 파서 묘목을 캐주던 園丁은 벙어리였다  
  
그해 봄날, 매화나무는  
불 꺼진 베란다 구석에서 꽃을 피웠다  
드문드문, 살아 있다는 증표로는 충분하게  
  
뿌리를 적신 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었고  
매화나무는 하혈을 하는지  
시든 꽃잎들이 하르르 물에 떠다녔다  
  
소리 없는 말처럼 붉은 진이 가지에 맺히고  
꽃 진 자리마다 잎이 돋기 시작했다  
역류한 하수구의 물이 그녀를 키우기라도 하는 것일까  
두려웠다, 집을 삼킬 듯 자라는 잎들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의 피로 무성해지는 잎들이  
  
뒤늦게야 벙어리 園丁을 떠올렸다  
묘목을 실어주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의 손말을  
아, 알아듣지 못했다  
화분 속에 겨울 들판을 들이려고 한 나는

마른 연못

물이 빠져나간 거대한 연못,  
언젠가 눈에 박힌 그 풍경 나가지 않네  
  
장화 신은 발들이  
연못 바닥을 저벅저벅 걸어다니네  
올컥 고이는 발자국을  
검고 끈적한 진흙이 삼켜버리네  
  
호미 든 손들이  
땅속 깊이 박힌 연뿌리를 캐네  
숭숭 뿌리 뽑힌 자리마다  
진흙이 뱀처럼 흘러들어 스르르 문을 닫네  
​  
장갑 낀 손들이  
바닥에 흩어진 잔해를 그러모으네  
이토록 태울 게 많았던가  
번제를 올리듯 어떤 손이 불을 붙이네​  
  
장갑 낀 손들이  
바닥에 흩어진 잔해를 그러모으네  
이토록 태울 게 많았던가  
번제를 올리듯 어떤 손이 불을 붙이네​  
  
타오르면서 타오르지 않는 불의 중심,  
명치끝이 점점 뜨거워지네  
눈이 너무 매워 움직일 수가 없네​  
  
뇌수에서 썩어가던 기억의 잎과 줄기가  
몇 줌의 재가 되어가는 동안  
정화 신은 발들이 불을 들러싸고 있네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누구일까, 내 몸을 제물 삼아  
마른 연못에서 불을 피우는 그들은

심장 속의 두방

나를 좀 지워주렴  
거리를 향해 창문을 열고  
자욱한 안개를 방안으로 불러들였다  
안개에 지워진 신호등  
안개는 창문을 넘는 순간 증발해버렸다  
안개조차 그 방에서는 길을 잃었다  
나를 좀 지워주렴  
짙은 안개를 들이키고도  
사물들은 여전히 건조한 눈을 비비고 있었다  
  
나를 좀 채워주렴  
바다를 향해 열린 창문으로  
자욱한 안개가 밀물처럼 스며들었다  
안개에 지워진 수평선  
안개는 창문을 넘는 순간 몸속으로 흘러들었다  
안개조차 그 방에서는 출렁거렸다  
나를 좀 채워주렴  
의자가 젖고 거울이 젖고  
사물들은 어느새 안개의 일부가 되었다  
  
심장 속에 나란히 붙은 두 방은  
서로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두 방을 오가는 것은  
소리없이 서성이거나 출렁거리는 안개뿐

그의 사진

그가 쏟아놓고 간 물이   
마르기 위해서는 얼마간 시간이 필요하다   
사진 속의 눈동자는   
변함없이 웃고 있지만 실은   
남아 있는 물기를 거두어들이는 중이다   
물기를 빨아들이는 그림자처럼   
그의 사진은 그보다 집을 잘 지킨다   
사진의 배웅을 받으며 나갔다   
사진을 보며 거실에 들어서는 날들,   
그 고요 속에서   
겨울 열매처럼 뒤늦게 익어가는 것도 있으니   
평화는 그의 사진과 함께 늙어간다   
모든 파열음을 흡수한 사각의 진공 속에서   
그는 아직 살고 있는가   
마른 잠자리처럼 액자 속에 채집된   
어느 여름날의 바닷가, 그러나   
파도소리 같은 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사진 속의 눈동자는   
물기를 머금은 듯 웃고 있지만   
액자 위에는 어느새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다   
볕이 환하게 드는 아침에는 미움도   
연민도 아닌 손으로 사진을 닦기도 한다   
먼지가 덮으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걸레가 닦으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육교 위의 허공

좁고 가파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빛나는 마천루가 있었지  
육지와 육지를 잇는 다리 위로  
밤길을 건너는 밤길,  
허공을 건너는 허공,  
신호등이나 건널목이 없이도  
그 길을 따라 다른 세계로 건너갈 수 있었지  
지상에서는 잡을 수 없는 두 손이  
때로 어두운 허공 위에서 놀란 듯 만났지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지고  
6차선 도로가 오선지처럼 출렁거리고  
두근거리는 도시의 동맥 속으로  
차들은 피톨처럼 점점이 빛을 뿌리며 흘러갔지  
그러나 경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두 손에 든 허공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서  
다만 숨죽이고 있었으니까, 심해의 물고기처럼,  
시냇가의 반딧불이처럼, 거기가  
도심의 누추한 육교라는 것도 잊은 채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야 하는 것도 잊은 채  
하염없이 공중그네를 타고 있었지  
육지와 육지를 잇는 다리 위로  
밤길을 건너는 밤길,  
허공을 건너는 허공,  
지상에서는 잡을 수 없는 두 손이  
어두운 허공 위에 또하나의 길을 내고 있었지

낯선 편지

오래된 짐 꾸러미에서 나온   
네 빛바랜 편지를   
나는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다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건포도처럼 박힌   
낯선 기호들, 그 속삭임을   
어둠 속에서도 소리 내어 읽곤 했던 날들,   
그러나 어두운 저편에서   
네가 부싯돌을 켜대고 있다 한들   
나는 이제 눈멀어   
그 깜박임을 알아볼 수가 없다  
  
마른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 가슴에는 더 이상 너의 피가 돌지 않고   
네게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온몸이 눈이거나   
온몸이 귀가 되어도   
가 닿을 수 없는 빛과 소리의 길을  
  
오래된 짐 꾸러미 속에   
네 편지를 다시 접어 넣다가   
나는 듣고 말았다   
검은 포도알들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뱅크셔나무처럼

산불이 나야  
비로소 번식하는 나무가 있다  
  
씨방이 너무 단단해 뜨거운 불길에 그을려야만  
씨를 터뜨린다는 뱅크셔나무  
  
제 몸에 불을 붙여서라도  
황무지에 알을 슬고 싶은 뱅크셔나무  
  
장전된 총알들, 그러나  
한번도 불길에 휩싸여본 적 없는 씨방  
  
모든 것이 타고 난 뒤에야  
검은 숯 위로 연한 싹을 내밀고 싶은

옥수수밭이 있던 자리

어제까지 열려 있던 문이 닫혔다   
바람에 소리를 내던 옥수수밭이 사라져버렸다   
옥수수가 사라지면서   
흔들림도, 허공도 함께 베어졌다   
허공은 잘빛을 안을 수 있는 팔을 잃었다   
소리내어 울 수 있는 입술을 잃었다   
갑옷과 투구 부딪치는 소리,   
석탄을 지닌 산줄기가 먼저 폐허가 되듯이   
열매는 실한 순서대로 베어져갔다   
밑둥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밭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성근 열매들은 여분의 삶을 익혀갈 것이다  
  
피 흘리는 허공,   
희고 붉고 검은 옥수수알,   
수확한 옥수수를 자루에 넣는 손,   
푸른 자루를 실은 트럭이 산모퉁이를 돌아간다

누가 내 이름을

어쩌면 좋아요 곧 수업이 시작되는데  
출석부에 내 이름이 없어요  
교무실에 나란히 꽂힌 검은 출석부,  
그 정렬된 세계에서 내 이름이 없어졌어요  
결석이나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누가 내 이름을 지웠을까요  
모판 위의 모처럼 가지런히 박혀 있었는데  
누가 내 책상을 치워버린 것일까요  
어쩌면 좋아요 수업종이 울리고  
선생님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에 숨어야 하죠 교실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하죠 모눈종이 위의 삶을  
당신이라면 콧노래를 불렀을지 모르지요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어두운 복도로 내 등을 떠밀었을지도 모르지요  
뿌리 뽑힌 모처럼 모눈처럼 복도에서  
떨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굉굉하게 쏟아지는 저 햇빛 속으로 걸어나갈까요  
썩은 개천에 종이배라도 띄울까요  
풀밭에 누워 구름이나 하염없이 바라볼까요  
그러면 나를 옮겨 심을 손이  
허공에 홀연히 나타나 들어올려줄까요  
어쩌면 좋아요 나를 부르려는데  
내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름 밖에서 서성대는  
아이 하나, 복도는 너무 길고 캄캄해요  
누가 이 모눈종이 좀 치워 주세요

우리는 낙엽처럼

우리는 낙엽처럼 떠돌고 있어요  
한번도 만난 적 없는, 그러나 한번도  
잊은 적 없는 당신을 찾아서.  
세상은 우리의 무임승차를 허락하지 않아요.  
바람과 안개만이 우리를 데려다주지요.  
오늘은 눈까지 내렸어요.  
죽어가던 흰 말들은 눈 위에서 죽어버렸고  
저녁은 그만큼 어두워졌지요.  
우리는 낙엽처럼 서로 몸을 포개고 잠이 들어요.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지만,  
당신은 인화될 수 없는 필름 속에만 있어요.  
손을 뻗으면 금방 닿을 듯한  
안개 속의 한 그루 나무, 그러나  
그 나무는 애초부터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걸어요.  
안개가 우리를 완전히 지워줄 때까지.  
처음 사랑에 눈을 뜬것도  
피 묻은 손으로 치마를 끌어내린 것도  
안개 속에서였지요.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우리는 낙엽처럼 떠돌고 있어요.  
나무의 일부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호루라기 소리와 억센 팔들을 피해,  
우리는 안개의 일부가 되어야 했어요.  
이제 우리는 강을 건너요.  
한 조각 배를 타고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인 줄도 모른 채.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왔어요.

안개

나는 바늘이다   
하얀 무명의 장막 속으로   
마악 몸을 밀어넣기 시작한다   
나는 종이다   
눅눅해지도록 누워 있다   
더 이상 젖을 수 없을 때까지   
나는 갈매기다   
너무 멀리 날아와버렸나보다   
갯내가 나지 않는다   
나는 박쥐다   
나는 새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   
쥐가 되지 못했다   
나는 맨드라미다   
닭벼슬 같은 내 입술을 그가 삼켜버렸다   
금잔화가 따라 울었다   
나는 느티나무다   
가지 끝으로 누군가의 살 속을 찌르고 있음을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다   
나는 가로등이다   
어둠이 내리기 전   
그는 내 배경이 되어줄 수 없다고 한다   
나는 좌석버스다   
아무도 올라타지 않았는데   
좌석은 이미 만원이다   
나는 자전거다   
나를 타고 간 사람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서 쳇바퀴 돌리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   
  
나는 이미 지워졌다

돼지머리들처럼

하루에도 몇번씩 거울을 보며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입 끝을 집어올린다  
자, 웃어야지, 살이 굳어버리기 전에  
  
새벽 자갈치시장, 돼지머리들을  
찜통에서 꺼내 진열대 위에 앉힌 주인은  
웃는 표정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 이렇게 웃어야지, 김이 가시기 전에  
  
몸에서 잘린 줄도 모르고  
목구멍으로 피가 하염없이 흘러간 줄도 모르고  
아침 햇살에 활짝 웃던 돼지머리들  
  
그렇게 웃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적당히 벌어진 입과 콧구멍 속에  
만원짜리 지폐를 쑤셔넣지 않았으리라  
  
하루에도 몇번씩 진열대 위에 얹혀 있다는 생각,  
웃어, 웃어봐, 웃는 척이라도 해봐,  
시들어가는 입술을 손가락으로 집어올린다  
  
아- 에- 이- 오- 우-  
얼굴을 괄약근처럼 쥐었다 폈다 불러보아도  
흘러내린 피는 돌아오지 않는다  
  
출근길 룸미러 속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머리 하나

구경꾼들이란

구경꾼들이란 으레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 법이죠  
몸 속의 호기심이  
피를 타고 온통 눈으로 몰려드니까요  
특히 죽음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어서  
모르그\*는 어떤 극장보다도 성황이었다죠  
유리관 속에 진열된 죽음을  
줄을 서서 구경하면서  
담배를 피워물고 잡담을 나누는 남자들,  
식물원의 화초처럼 즐기는 여자들,  
막대사탕을 빨며 들여다보는 아이들,  
조명 아래 누운 시체들도  
몰려드는 구경꾼을 보며 웃고 있었을 거에요  
어쩌면 유리관 안에서  
헤어진 옛 애인을 발견할 수도,  
길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발견할 수도,  
자신이 살해한 시체를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모르는 척 지나며  
희미한 발자국만 남기고 흩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구경꾼의 눈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지요  
유리창 너머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을 뿐  
별거 아니군, 하는 표정으로  
죽음의 극장 밖으로 걸어나왔을 뿐  
  
\*19세기 프랑스 파리에 있던 시체전시장. 연간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한다.

구경꾼이 되기 위하여

이십년을 살면서  
한번도 그를 구경하지 못했다  
  
구경하기 전에  
이미 나의 일부였기에  
  
몸 속의 사금파리,  
통증의 운인은 거기 있었던가  
  
일찍이 구경꾼의 묘법을 배웠더라면  
피사체를 향해 셔터를 누르듯  
무감하게 지켜볼 수 있었더라면  
  
그를 이해할 수도  
견딜 수도 있었으리라  
  
구경꾼들이 그에 대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눈 속의 사금파리,  
그 눈동자를 들어내기 전에는

바람과 바람막이

바람막이에 금이 갔다.  
금이 금을 불러와 번지더니  
쩌억 벌어져 쪼개지기 직전이다  
차가 속도를 낼 수록 바람막이는  
이빨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 딱, 딱, 딱, 딱,  
소음을 견디다 못해  
벌어진 틈에 얇은 휴지 한 장 끼워넣는다  
하,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소리를 삼킨 몸이여  
차라리 비명이라도 지르는 게 나았을까  
타악--  
결국 바람을 견디지 못한  
한 조각이 쪼개져 날아갔다, 돌팔매처럼  
바람막이는 금보다 무거운 침묵을 얻게 되었다

삼킬 수 없는 것들

내 친구 미선이는 언어치료사다  
얼마 전 그녀가 틈틈이 번역한 책을 보내왔다  
'삼킴 장애의 평가와 치료'  
희덕아, 삼켜야만 하는 것, 삼켜지지  
않는 것, 삼킨 후에도 울컥  
올라오는 것...... 여러가지지만  
그래도 삼킬 수 있음에 늘 감사하자. 미선.  
입 속에서 뒤척이다가  
간신히 삼켜져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것,  
기회만 있으면 울컥 밀고 올라와  
고통스러운 기억의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삼킬 수 없는 말, 삼킬 수 없는 밥, 삼킬 수 없는 사랑,  
삼킬 수 없는 분노, 삼킬 수 없는 어떤 슬픔,  
이런 것들로 흥건한 입 속을  
아무에게도 열어 보일 수 없게 된 우리는  
삼킴 장애의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다  
미선아, 삼킬 수 없는 것들은  
삼킬 수 없을 만한 것들이니 삼키지 말자.  
그래도 토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음에 감사하자. 희덕.

내부를 비추는 거울

입을 벌리라면 벌리고  
고개를 젖히라면 젖히고  
약물을 머금으라면 머금고  
약물을 삼키라면 삼키고  
옆으로 누우라면 옆으로 눕고  
  
불꽃의 혀를 가진 검은 뱀이  
목구멍을 타고 어두운 바닥으로 내려갔다  
  
침을 삼키지 말고 그냥 흘리세요, 한 마리 개처럼,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뱀을 삼킨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세요, 계속 그렇게, 계속, 흘리세요  
  
거울이 내부를 비추는 동안  
입에 플라스틱 구멍을 물고 누운 채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두 눈 뜨고 들어야 했다  
너무 밝아, 아냐, 너무 어두워, 그래, 거기,  
불꽃의 명도를 조절하며 그들이 나의  
내부를 판독해줄 때까지  
나는 침을 질질 흘리며 옆으로 누워 있었다  
검은 뱀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꿈틀거렸다

정신적인 귀

어디에 두고 왔을까  
두 귀  
  
돋보기가 빛을 모으듯  
소리를 끌어모아 어루만지던 귀  
  
소리의 혈맥을 더듬어  
그 통점과 경락을 찾아내던 귀  
  
허공의 거미줄을 따라  
미세한 움직임에도 흔들리던 귀  
  
어느 순간 먹먹해졌다  
귓바퀴는 멈추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피아노에 갇힌 건반처럼  
정신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난청과 실어증의 나날,  
바람이 헛되이 녹슨 현을 울리고 간다

손바닥이 울리는 것은

길에 거꾸로 쳐박힌 전봇대,  
전선 몇 가닥이 헛뿌리처럼 드러나 있다  
  
물과 양분 대신 전류를 실어 나르던  
저 잿빛 나무는  
서 있는 일에 얼마나 몰두했던지  
곁가지 하나 내지 않고 제 生을 다했다  
  
종일 비가 내리고  
처박힌 전봇대에 아직 전류가 흐르는지  
손바닥이 징-징-울린다  
  
네 悲慘보다도  
내 悲慘을 바라보는 나의 悲慘을 견딜 수 없어  
내리친 것이 너의 뺨이었다니!  
  
손바닥이 울리는 것은  
처박힌 전봇대 때문이 아니  
빗줄기 때문이 아니라  
서 있는 일에만 몰두했던 나의 수직성 때문  
  
그러나 저 잿빛 나무처럼  
내가 실어 나르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으니!

일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의 응급실은  
응급하지 않다  
  
집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가 삐끗해서 실려온 남자,  
주말 야유회에서 옻닭 먹고 옻이 올라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 청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손톱의 메니큐어를 지우는 할머니,  
만성 변비로 장이 꼬였다가  
거짓말처럼 나아서 퇴원을 기다리는 주부,  
젊은 놈한테 흠씬 얻어맞고  
안구검사를 기다리는 늙은 건달  
  
나가 말이여, 왕년에 한주먹하든 놈인디 말여,  
세월에는 장사 읊드라구, 젊은 놈하고 한판 붙었는데,  
와따, 눈에서 불이 화악 나부러야......  
  
멍든 눈가를 문지르며 늘어놓는  
저 늙은 건달의 무용담마저 없었다면  
응급실의 오후는 얼마나 무료했을까  
  
적당히 아플 만큼만 아프고  
적당히 치료할 만큼만 치료하고  
링겔이나 맞으며 월요일을 기다려야 하는 통증들이  
간이침대에 누워서 얘기를 나누는  
일요일 오후의 응급실  
  
이따금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에  
통증은 잠깐씩 되살아났다가 잠이 든다

공포라는 화석

그는 어떤 붕괴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포는 늙지 않는다는 듯  
이 흉터 좀 봐, 하며 팔목을 걷어 보여준다  
무너진 백화점 철골 사이에서  
그가 실려나온 것은 벌써 십년 전 일이다  
그러나 그의 몸엔 공포가 화석처럼 남아 있는지  
어깨를 만지면서 얼굴을 찡그린다  
피 대신 침을 튀기며 그는  
콘크리트 더미에 삼일이나 눌려 있던  
통증을 필사적으로 불러낸다  
망각의 벽을 뚫고  
녹슨 철골이 드러나고  
철골과 콘크리트 더미에 비가 내리고  
빗물을 받아먹으며 견디던 목숨들이 실려나온다  
벽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던 대화에 대해  
그러다 문득 끊어진 목소리에 대해  
자신의 어깨를 들어올려주던 손의 질감에 대해  
실려나오는 순간 처음 본 빛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입 속에는  
오래 되새김질된 공포가 흥건하게 고여 있다  
그것만이 공포를 잊는 길이라는 듯

팔이 된 눈동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꽁치떼 속에 끼여든 한 마리 멸치처럼  
무언가 다른 전파를 보내는 존재가 있다  
유난히 키가 작은 한 사람,  
얼굴은 붉게 일그러지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팔 대신 눈동자를 위아래로 흔드는 사람,  
흙투성이가 된 눈동자로  
열심히 허공을 닦으며 걸어가는 사람,  
그의 움직이지 않는 소매 속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를 반밖에 건너지 못한 사내는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흔들어댔다

도로 위의 성만찬

바퀴는 무심코 밟았다,  
앞서 간 바퀴가 깔아뭉갠 고양이 한 마리를.  
물컹하게 흩어진 살과 피가  
도로 위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고  
성만찬을 나누듯  
  
피와 살을 나누어 갖는 바퀴들.  
쓰레기봉투 앞을 어슬렁거리던  
밤의 제왕이 건네는 마지막 포도주를  
바퀴들은 눈을 꾹 감고 마셔버린다.  
그리고 뭉쳐진 그의 살점을  
이리저리 떼어 삼키며 지나간다.  
이제 바퀴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고양이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핏자국을 전파하는 과속의 전사들,  
바퀴들은 달리고 또 달린다  
마침내 도로 위에 그가  
납작한 가죽 한 장으로 남을 때까지.

거대한 분필

분필은 잘 부러진다, 또는 잘 부서진다  
  
​  
청록의 칠판 위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파발마처럼 달리는  
분필 한 자루  
  
그것이 죽음의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분필을 낭비했다  
  
죽은 이들의 잿가루를 모아서 만든  
거대한 분필을 보았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분필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분필 속에 뒤엉켜 있는 목소리들  
​  
그후로 칠판에 분필을 대면  
어떤 목소리가 끼여들고  
어떤 손이 완강하게 가로막고  
어떤 손이 낯선 분절음을 휘갈기게 한다  
  
선생 노릇 십여년,  
화장을 치르고 난 사람처럼  
손가락에 붇은 분필가루를 씻어내는 동안  
나는 하루하루 조개에 가까워져간다  
  
분필은 잘 부서진다, 또는 부서져 쌓인다  
칠판 위에 곧 스러질 궤적을 그리며

그는 누구인가

질긴 먹이를 씹을 윗니가 없고  
머리에 들이받을 뿔이 없다  
낙타처럼 가죽이 두껍지도 못하고  
뱀처럼 허물을 벗을수도 없다  
다만 먹물을 내뿜는 앞발톱이 있어  
허공을 할퀴거나 먹이를 잡는다  
고사리나 뜯어먹고 살기에는  
피가 너무 뜨겁고  
썩은 고기가 생선을 물리치기에는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한다  
부드러운 털은 불붙기 쉬우나  
그 속에 검은 반점들을 숨기고 있다  
지느러미도 날개도 없으나  
헤엄치거나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꺾인 나뭇가지에 몸을 맡긴다  
눈은 둘이나 한쪽이 유난히 어두워  
빛보다는 어둠에 익숙하고  
눈보다는 더듬이로 길을 찾는다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나  
그 소리 온전히 알아듣는 이가 없고  
위험에 처할 때는 몸을 조그맣게 말아  
달팽이처럼 보이나  
하나의 집에 갇혀 살지는 못한다  
때로는 제 그림자를 베어먹고  
그 속에 제 몸을 감추기도 한다  
  
누구인가  
동물도감에도 곤충도감에도 나오지 않는 그는

와온에서

산이 가랑이 사이로 해를 밀어 넣을 때.   
어두워진 바다가 잦아들면서   
지는 해를 품을 때.   
종일 달구어진 검은 뻘흙이   
해를 깊이 안아 허방처럼 빛나는 순간을 가질 때.  
  
해는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도솔가를 부르던 월명노인아.   
여기에 해가 셋이나 떴으니 노래를 불러다오   
뻘 속에 든 해를 조금만 더 머물게 해다오  
   
저녁마다 일몰을 보고 살아온   
와온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떨기꽃을 꺾어 바치지 않아도   
세 개의 해가 곧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찬란한 해도 하루에 한 번은   
짠물과 뻘흙에 몸을 담근다는 것을 알기에  
  
쪼개져도 둥근 수레바퀴.   
짜디짠 내 눈동자에도 들어와 있다  
  
마침내 수레가 삐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한다  
  
와온 사람들아.   
저 해를 오늘은 내가 훔쳐간다

욕탕 속의 나무들

저 나무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늙은 왕버들 한 그루가 반쯤 물에 잠겨있다   
더운 김이 오르는 욕탕  
마을 어귀 아름드리 그늘을 드리우던 그녀가  
오늘은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울퉁불퉁한 나무껍질이 더 검게 보인다  
그 많던 잎사귀들은 어디에 두고   
빈가지만 남은 것일까  
왕버들 곁으로 조금 덜 늙은 왕버들이 다가와  
그녀의 등과 어깨를 천천히 밀어준다  
축 늘어진 배와 가슴도, 주름들도,  
주름들 사이에 낀 어둠까지도 환해진다  
나무껍질 벗기는 냄새에  
나도 모르게 두 왕버들 곁으로 걸어간다  
냉탕에서 놀던 어린 버들이 뛰어오고   
왕버들 사대代,  
나란히 푸른 물속에 들어가 앉는다  
큰 굽쇠를 향해 점점 작아지는 굽쇠들처럼   
나는 당신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는 몸들,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친다   
오래전 왕버들의 새순이었던 것을 기억해 낸다

포만감과 허기

꿀을 다 딴 나비들처럼  
자매가 다리를 두드리며 장미정원에 앉아있다  
  
- 아유, 배불러.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  
  
87세 언니의 말에  
74세 동생이 배를 토닥이며 대꾸한다  
  
- 그래도 언니는 그 배에서 여섯이나 빼냈잖수?  
난 이 나이 되도록 아직 꽉 찬 배야  
   
아이를 셋이나 데려다 길렀는데도  
그녀의 포만감은 쉽게 가지시 않는 모양이다  
  
그래도 남은 배가 있는지  
꽃마다 멈춰서서 코를 대는 그녀,  
포만감 속에 숨어있던 허기가 킁킁거린다  
아직 꿀을 다 따지 못한 나비처럼

어떤 그물

나무들이 공중 가득 펼쳐놓은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   
잠시 팔닥거리다 날아간다   
  
나무 그물은 상하는 법이 없어   
물고기 냘아오른다   
비늘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열렸다 닫히는 그늘 아래로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들   
  
누군가 물을 건너가는지   
흰 징검돌 몇 개 보였다 안보였다 하고   
그물 위로 흘러가는 물결 속에는   
  
저렇게도 많구나   
나무들이 잡았다 놓아 준 물고기들이

맑은 날

​  
  
남은 한줌마저 다 털렸다  
그래도 허허 웃는다  
아니다 울고 있지 않은가  
하늘을 긁어대다 닳아버린 손톱이다  
그래도 한결같이 바람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  
움켜쥐고 있던 먹구름 한줌  
나부끼고 나부끼고 나부껴서 가벼워진 몸에  
오목눈이가 날아와 앉는다  
온몸이 휘청, 한다  
새가 날아간 뒤에도 오래 흔들린다  
갈대고 마른 깃털로 이루어진 몸이다  
갯벌에 뿌리 뻗은 채 날고 있다  
석양에 하염없이 부서지는 은빛 날개다

섶섬이 보이는 방-이중섭의 방에 와서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게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껍데기처럼 입을 다물던 방,  
게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게를 그리는 아고리\*와  
소라껍데기를 그릇 삼아 상을 차리던 발가락군\*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꿈 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섶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 한 날 많았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게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다  
게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껍데기에 세 든 소라게처럼

물소리를 듣다

우리가 싸운 것도 모르고  
큰애가 자다 일어나 눈 비비며 화장실 간다  
뒤척이던 그가  
돌아누운 등을 향해 말한다  
  
당신...... 자? ......  
저 소리 좀 들어봐...... 녀석 오줌 누는 소리 좀  
들어봐...... 기운차고...... 오래 누고......  
저렇도록 당신이 키웠잖어...... 당신이......  
  
등과 등 사이를 흘러가는 물소리를  
이렇게 듣기도 한다  
  
담이 결린 것처럼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를 낯설어할 때  
어둠이 좀처럼 지나가주지 않을 때  
새벽녘 아이 오줌 누는 소리에라도 기대어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너야 할 때

기억한다, 그러나

기억한다   
벼랑 위에서 풀을 뜯던 말의 목선을   
그러나 알지 못한다   
왜 그토록 머리를 깊게 숙여야 했는가를   
벼랑을 기어오르는 사나운 해풍이   
왜 풀을 뜯고 있는 말의 갈기를 흔들었는가를   
서럭서럭 풀 뜯던 소리,   
그때마다 바다는 더 시퍼렇게 일렁였는데   
왜 나는 그게 울음이라고 생각했는지   
끈은 보이지 않았지만   
왜 나는 말이 묶여 있다고 생각했는지  
  
기억한다   
한없이 평화로웠던 말의 눈동자를   
그러나 알지 못한다   
눈동자에 비친 풀이 왜 말의 입 속에서 짓이겨져야 했는지를

노루

마음이 궁벽한 곳으로 나를 내몰아  
산속에서 자주 길을 잃었다  
달리다보면 손은 수시로 뿔로 변하고  
발에는 단단한 발굽이 돋았다  
발굽 아래 무엇이 깨져나가는지도 모른 채  
밤길을 달리다 문득 멈추어선 것은  
그 눈동자 앞이었다  
겁에 질린 초식동물의 눈빛,  
길을 잃어버리기는 나와 다르지 않았다  
헤드라이트에 놀라 주춤거리다가  
도로 위에 쓰러진 노루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다  
저 어리디어린 노루는  
산속에 두고 온 스무살의 나인지도,  
말없이 사라진 사람인지도,  
언젠가 낳아 함부로 버린 사랑인지도 모른다  
나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어둠의 일부가 되어 외쳤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개의 뿔과 네 개의 발굽으로  
불행의 속도를 추월할 수는 없다 해도  
어서 일어나 남은 길을 건너라  
저 울창한 달래와 머루 덩굴 속으로 사라져라  
누구도 너를 찾아낼 수 없도록

절, 뚝, 절, 뚝,

다친 발목을 끌고 향일암 가는 길  
그는 여기 없고  
그의 부재가 나를 절뚝거리게 하고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절, 뚝, 절, 뚝,  
아픈 왼발을 지탱하느라  
오른발이 더 시큰거리는 것 같고  
어둔 숲그늘에서는  
알 수 없는 향기가 흘러나오고  
흐르는 땀은 그냥 흘러내리게 두고  
왼발이 앞서면 오른발이 뒤로,  
오른발이 앞서면 왼발이 뒤로 가는 어긋남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음을 알고  
해를 향해 엎드릴 만한 암자 마당에는  
동백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 푸른 열매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안개 젖은 수평선만 바라보다가  
절, 뚝, 절, 뚝,  
내려오는 길 붉은 흙언덕에서  
새끼 염소가 울고  
저녁이 온다고 울고  
흰 발자국처럼 산딸나무 꽃이 피고

캄캄한 돌

메카의 검은 돌은  
원래 흰색이었다고 해요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손에 움켜쥐고 나온 돌,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입 맞추고 만지는 동안  
고통을 빨아들여 캄캄한 돌이 되었다죠  
  
내게도 검은 돌 하나 있어요  
그 돌은 한때 물속에서 아름다웠지요  
   
오래전 해변을 떠나며  
무심코 주머니에 넣고 온 돌,  
그러나 그토록 빨리 빛바랠 줄은 몰랐어요  
내가 고통을 견디는 동안  
고통이 나를 견디는 동안  
돌 또한 나를 말없이 견디어주었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돌을 만지는 게 두려워졌어요  
돌을 열 수도, 닳게 할 수도 없으면서  
돌의 본성이 너무 깊이 박힌 손,  
내가 만지는 것마다 돌이 되어버릴 것 같았지요  
   
빛바랜 돌을 바라보며 떠올려봐요  
돌이 물속에서 빛나던 때를  
검은 물기 위에 어룽거리던 무지개를  
   
그 찰랑거리던 아침이 내게도 있었겠지요  
메카의 검은 돌이  
오래 전 흰색이었던 것처럼

한 손에 무화과를 들고

그가 내게로 걸어왔을 때  
무화과는 금방이라도 쪼개질 것처럼 보였다  
  
초가을 저녁 이만한 향기는 드물어서  
말없이 무화과를 받아들었다  
  
실타래 모양의 속꽃들,  
붉게 곤두선 혀들은 뭐라고 했던가  
   
부르튼 입술에서 한없이 풀려나오는  
사랑의 말들  
   
뭉클뭉클 흘러드는 이 말을  
어찌 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속에서 누군가 중얼거린다  
눈부신 열매들이란 좀 멀리 있는 편이 좋다고  
   
그러나 한 손에 무화과를 들고  
그가 천천히 걸어왔을 때   
  
무화과는 이미 쪼개져 있었다  
태초부터 그 입술은 나를 향해 열려 있었다

밤 강물이여

낯선 물결이 반짝인다  
바로 눈앞에서, 또는 아주 먼 곳에서  
  
몇시간째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누가 흐르는지 알 수가 없다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어디론가 흘러가는 기억의 포말들  
  
밤 강물이여  
여기, 나를, 내려놓는다  
  
비로소 그를 미워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곳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아무리 나를 깨우러 오지 않고  
  
이틀쯤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마음의 공복만으로도 배가 부른  
  
몸 속 깊이 잠들어 있던 강물이 깨어나  
물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곳  
  
밤 강물이 고요한 것은  
더 깊이 더 멀리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의 출구

그 물을 기억한다  
  
먼지와 거품을 끌고 가던 물,  
시든 물풀을 누더기처럼 걸치고  
엉금엉금 기어가던 물,  
더이상 흐른다고 말할 수 없던 물,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땀과 눈물과 오줌에만 젖어들던 물,  
쾌활했던 물줄기 잦아들고  
자기도 모르는 고요에 갇혀 있던 물,  
숨 막히는 그 고요야말로 소용돌이였음을  
너무 늦게야 알게 된 물,  
하루하루 진창에 가까워져도  
물만, 물만, 남아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물,  
검은 눈동자처럼 타들어가던 물  
  
검은 눈동자 속에  
지는 해가 가득 들어와 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의 우물  
  
저 물의 出口를 따라 여기로 흘러왔다

기적소리

강의 허리를 가르며 기차가 지나간다  
화물뿐인 생을 싣고  
이따금 기적소리와 매연을 내뿜으며  
  
저 기적소리마저 없었다면  
이 도시는 얼마나 고요했을 것인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강물은 그 무게가 힘겹다는 듯 일렁이고  
낡은 철교에 핀 들꽃이 툭 떨어지고  
사람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  
어디론가 실려가는 화물의 표정을 지으며  
  
화물보관소 선반에 얹혀 있다가  
다시 흔들리며 실려가는 화물, 화물, 화물들  
  
사랑은 너무 멀리 있고  
기적소리는 하루에 몇번씩 나를 울리고  
"You are not what you own."  
  
철교 위에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써갈긴 낙서처럼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아니고  
다만 달리는 기차에 실려가고 있을 뿐  
  
그런데 나를 누구에게 부쳐야 하나  
머지않아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올 화물 하나  
  
​

반딧불이를 보았으니까

켓마, 울지 마, 괜찮을 거야,  
반딧불이를 보았으니까,  
오늘 저녁엔 평화가 찾아올 거야,  
너의 벗은 발에도, 미얀마의 밤하늘에도,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울지 마,  
눈물을 닦고 저 반딧불이를 봐,  
희미하게 깜박이는 게 꼭 우리들 같잖아,  
부서진 말을 하다가 입을 자주 다물고  
강가에 앉아 풀벌레소리를 듣는 너와 나,  
우리는 여기서 저 풀벌레들에 더 가까운지도 몰라,  
하지만 난 네 부서진 말을,  
너는 내 부서진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듣지,  
같은 슬픔에서 나온 말이니까,  
어둠속에서 빛을 내는 반딧불이도  
두 다리를 부벼 울음소리를 내는 귀뚜라미도  
맨발이기는 우리와 마찬가지,  
그러나 켓마, 울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오늘 저녁엔 반딧불이를 보았으니까,  
우리의 깜박이는 불빛을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도 보았을 거야,  
부서진 장난감과 쓰러진 너무들,  
그러나 아이들의 벗은 발에도 평화가 올 거야

두고 온 집

오래 너에게 가지 못했어.  
네가 춥겠다, 생각하니 나도 추워.  
문풍지를 뜯지 말 걸 그랬어.  
나의 여름은 너의 겨울을 헤아리지 못해  
속수무책 너는 바람을 맞고 있겠지.  
자아, 받아!  
싸늘하게 식었을 아궁이에  
땔감을 던져넣을 테니.  
지금이라도 불을 지필 테니.  
아궁이에서 잠자던 나방이 놀라 날아오르고  
눅눅한 땔감에선 연기가 피어올라.  
그런데 왜 자꾸 불이 꺼지지?  
아궁이 속처럼 네가 어둡겠다, 생각하니  
나도 어두워져.  
전깃불이라도 켜놓고 올 걸 그랬어.  
그래도 이것만은 기억해.  
불을 지펴도 녹지 않는 얼음조각처럼  
나는 오늘 너를 품고 있어.  
봄꿩이 밝은 곳으로 날아갈 때까지.

동작의 발견

물방울들은 얼마나 멀리 가는가  
새들은 어떻게 점호도 없이 날아오르는가  
  
그러나 그녀의 발은 알고 있다  
삶은 도약이 아니라 회전이라는 것을  
구멍을 만들며 도는 팽이처럼  
결국 돌아오고 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의 손은 알고 있다  
삶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가깝다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몇 시간째 서 있으면  
어떤 움직임이 문득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동작은 그렇게 발견된다는 것을  
  
동작은 동작을 낳고 동작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춤을 낳고 춤은 허공을 낳고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 길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녀는 아는가  
돌면서 쓰러지는 팽이의 낙법을  
동작의 발견은 그때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들리지 않는 노래

날개와 발톱이 있다면  
당신은 새 - 여자  
  
꼬리와 지느러미가 있다면  
당신은 물고기 - 여자  
  
몸이 조금씩 변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물에 비친 모습을 보았지  
당신은 머리를 빗어내리며 노래를 불렀지  
  
물거품에 떠가는 노래  
오래전 당신이 부르던 노래  
아기를 업어 재우며 부르던 노래  
슬픔의 베틀 앞에 앉아 부르던 노래  
  
피에서 솟구친 노래는 어떻게 떨어져내리나  
모래언덕을 잃어버린 파도는 어떻게 출렁거리나  
  
사랑을 잃고  
그 때문에 목소리마저 잃은 당신  
침묵이 가장 무거운 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도 있었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  
낡은 거푸집을 헤치고 날아오르느라  
날개가 부러진 흔적이 있다면  
당신은 새 - 여자  
  
찢긴 지느러미를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물고기 - 여자

한 아메바가 다른 아메바를

손보다는 섬모가 좋다  
인간다움이 제거된 부드러운 털이 좋다  
둥글고 잘 휘어지는 등이 좋다  
구불구불 헤엄치는 무정형의 등이 좋다  
휩쓸고 지나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온순한 맨발이 좋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매순간 새롭게 생겨나는 위족이 좋다  
때로 썩어가는 먹이를 구하지만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은 다시 내보내는 식포가 좋다  
맑은 물에도 살고 짠물에도 살며  
너무 많은 물은 머금지 않는 수축포가 좋다  
일정한 크기가 되면  
둘로 쪼개지는 가난한 영토가 좋다  
둘로 나누지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서 좋다  
  
그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찾아온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한 아메바가 다른 아메바를 끌어안았던 태고의 신비,\*  
그 저녁의 온기를 기억해낸 것뿐이다  
섬모와 섬모가 닿았던 감촉을 다시 느끼고 싶었을 뿐이다

상처 입은 혀

너는 혀가 아프구나,  
어디선가 아득히 정신을 놓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깨문 것이 혀였다니  
아, 너의 말이 많이 아프구나  
  
무의식중에라도 하고 싶었던,  
그러나 강물처럼 흐르고 또 흘러가버린,  
그 말을 이제야 듣게 되는구나  
고단한 날이면 내 혀에도 혓바늘처럼 돋던 그 말이  
오늘은 화살로 돌아와 박히는구나  
  
얼마나 수많은 어리석음을 지나야  
얼마나 뼈저린 비참을 지나야  
우리는 서로의 혀에 대해 이해하게 될까  
  
혀의 뿌리와 맞닿은 목젖에서는  
작고 검고 둥글고 고요한 목구멍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말이 말이 아니다  
  
독백도 대화도 될 수 없는 것  
비명이나 신음, 또는 주문이나 기도에 가까운 것  
  
혀와 입술 대신  
눈이 젖은 말을 흘려 보내는 밤  
손이 마른 말을 만지며 부스럭거리는 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이생에서 우리고 주고받을 말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 네 혀가 돌아오더라도  
끝내 그 아픈 말은 들려주지 말기를  
  
그래도 슬퍼하지 말기를,   
끝내 하지 못한 말은 별처럼 박혀 있을 테니까

라듐처럼

​  
어떤 먼 것  
어떤 낯선 것  
어떤 무서운 것에 속한 아름다움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강물과 격랑이 필요하다  
  
이 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니 출입을 금합니다  
  
돌을 외투주머니에 채우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버지니아 울프처럼  
  
말의 원석에서 떨어져 내리는  
글자들처럼  
  
식탁 아래 떨어진 빵부스러기를  
끌고 가는 개미들처럼  
  
부스러기만으로 배가 부르다고 했던  
가난한 가나안 여자들처럼  
  
허기 없는 영혼처럼  
불꽃 없는 빛처럼  
  
마리 퀴리가 처음으로 추출해낸  
0.1g의 라듐처럼  
  
희고 빛나는 것들  
그러나 검게 산화되기 쉬운 것들

창문성

저 집은 왠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저 집은 감미로운 불빛을 가졌군.  
 저 집은 우울한 내면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지.  
 저 집은 저녁 다섯 시에 가장 아름다워.   
  
 그녀는 집의 표정을 잘 읽어낸다  
 창문성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이 있다는 듯이  
 한 집 한 집 눈으로 창문을 두드린다   
  
 풍경을 삼키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는  
 내면을 감추기도 하고 들키기도 하는  
 저 수많은 창문들은  
 집의 눈빛일까 입술일까 항문일까   
  
 물론 그녀는 알고 있다  
 창문성이 창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창문과 문의 관계, 창문과 벽의 관계, 창문과 지붕의 관계, 창문과 또 다른 창문의 관계, 청문과 계단의 관계, 창문과 커튼의 관계, 창문과 하늘의 관계, 창문과 빛의 관계, 창문과 어둠의 관계, 창문과 새의 관계, 창문과 나무의 관계, 창문과 사람의 관계, 창문과 마을의 관계, 창문과 마음의 관계, 창문과 시간의 관계, 창문과 창문 자신의 관계 들이 투명한 구멍의 스크린에 비추어내는 형상이라는 것을  
  
그녀의 산책은 자꾸 길어지고  
창문들은 매일 다른 표정을 들려주고  
창문 너머 그들은 불현듯 타인의 얼굴로 찾아오고

다시, 다시는

문을 뜯고 네가 살던 집에 들어갔다  
문을 열어줄 네가 없기에  
  
네 삶의 비밀번호는 무엇이었을까  
더 이상 세상에 세 들어 살지 않는 너는 대답이 없고  
열쇠공의 손을 빌려 너의 집에 들어갔다   
  
금방이라도 걸어 나갈 것 같은 신발들  
식탁 위에 흩어져 있는 접시들  
건조대 위에 널려 있는 빨래들  
화분 속에 말라버린 화초들  
책상 위에 놓인 책과 노트들  
  
다시 더러워질 수도 깨끗해질 수도 없는,  
무릎 꿇고 있는 물건들  
  
다시, 너를 앉힐 수 없는 의자  
다시, 너를 눕힐 수 없는 침대  
다시, 너를 덮을 수 없는 담요  
다시, 너를 비출 수 없는 거울  
다시, 너를 가둘 수 없는 열쇠  
다시, 우체통에 던져질 수 없는, 쓰다 만 편지  
  
다시, 다시는, 이 말만이 무력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무엇보다도 네가 없는 이 일요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저 말라버린 화초가 다시, 꽃을 피운다 해도   
  
그것이 상처이든 고통이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라는 생각이지만  
미치게 공감되는 말들이......  
다시, 다시는, 이 말만이 무력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벽 속으로

어느 날 흰 벽이 찾아왔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저 눈동자  
  
돌연한 흰 벽의 시선에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리기 시작한다  
  
물렁물렁한 반죽처럼 던져진  
수직의 늪  
  
온몸을 휘감아들일 것 같은 흡반과  
손에 잡힐 것 같은 밧줄과  
당장이라도 밀고 들어올 것 같은 바퀴들로  
술렁거리는 벽  
  
그래, 몸의 힘을 빼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거야  
벽 속으로  
  
저 열린 눈동자 속으로

탄센의 노래

1.  
이것은 불의 노래,  
노래할 때마다 등불이 하나씩 켜져요  
불은 번져가고  
몸이 점점 뜨거워져요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노래를 불러요  
강물도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사랑이여, 도와줘요  
비의 노래를 불러줘요 비를 불러줘요?  
  
2.  
이것은 비의 노래,  
노래할 때마다 불꽃이 하나씩 꺼져요  
비가 내리고  
몸이 점점 식어가요  
강물도 가라앉기 시작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 소나기가 당신을 적실 때까지  
사랑이여, 사라지지 말아요 노래를 불러줘요  
  
3.  
그러나 노래의 휘장은 찢겨지고  
비에 젖은 잿더미만 창백하게 남아 있는 밤  
불과 비도  
어떤 노래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밤

불 켜진 창

불빛을 훔치려는 사람처럼   
문이 아닌 창 쪽으로 가서 집 안을 들여다본다   
  
남편과 큰아이는 장기를 두고 있고   
접시에 남은 과일은 아직 물기 마르지 않았고   
주전자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다   
작은아이는 자는가   
  
나는 한마리 나방인 듯이   
창문에 부대껴 서서 생각한다   
그 익숙한 살림살이들의 낯설음에 대하여   
부르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의 아득함에 대하여   
내가 없는 세상의 온기 또는 평화에 대하여   
  
큰아이가 자꾸 시계를 올려다본다   
그러나 한마리 나방인 듯이   
오늘은 창 밖 어둠속에 나는 숨어서   
오래오래 들여다본다   
  
불 켜진 버스처럼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은   
그 창문을

잉여의 시간

이곳에서 나는 남아돈다  
너의 시간 속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기에  
  
오후 네 시의 빛이  
무너진 집터에 한 살림 차리고 있듯  
빛이 남아돌고 날아다니는 민들레 씨앗이 남아돌고  
여기저기 돋아나는 풀이 남아돈다  
  
벽 대신 벽이 있던 자리에  
천장 대신 천장이 있던 자리에  
바닥 대신 바닥이 있던 자리에  
지붕 대신 지붕이 있던 자리에  
알 수 없는 감정의 살림살이가 늘어간다  
  
잉여의 시간 속으로  
예고 없이 흘러드는 기억의 강물 또한 남아돈다  
  
기억으로도 한 채의 집을 이룰 수 있음을  
가뭇없이 물 위에 떠다니는 물새 둥지가 말해준다  
  
너무도 많은 내가 강물 위로 떠오르고  
두고 온 집이 떠오르고  
너의 시간 속에 있던 내가 떠오르는데  
  
이 남아도는 나를 어찌해야 할까  
더 이상 너의 시간 속에 살지 않게 된 나를  
  
마흔일곱, 오후 네 시,  
주문하지 않았으나 오늘 내게로 배달된 이 시간을

다시, 십년 후의 나에게

십년 후의 나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는 그보다 조금 일찍 내게 닿았다   
  
책갈피 같은 나날 속에서 떠올라   
오늘이라는 해변에 다다른 유리병 편지   
오래도록 잊고 있었지만   
줄곧 이곳을 향해 온 편지   
  
다행히도 유리병은 깨어지지 않았고   
그 속엔 스물다섯의 내가 밀봉되어 있었다   
스물다섯살의 여자가   
서른다섯살의 여자에게 건네는 말   
그때의 나는 첫아이를 가진 두려움을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한마리 짐승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또하나의 목숨을 제 몸에 기를 때만이   
비로소 짐승이 될 수 있는 여자들의 행복과 불행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 자란 만큼 내 속의 여자들도 자라나   
  
나는 오늘 또 한통의 긴 편지를 쓴다   
다시, 십년 후의 나에게   
내 몸에 깃들여 사는 소녀와 처녀와 아줌마와 노파에게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 늑대여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말 대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갈피 같은 나날 속으로,   
다시 심연 속으로 던져지는 유리병 편지   
누구에게 가 닿을지 알 수 없지만   
줄곧 어딘가를 향해 있는 이 길고 긴 편지

심장을 켜는 사람

심장의 노래를 들어보실래요?  
이 가방에는 두근거리는 심장들이 들어 있어요  
  
건기의 심장과 우기의 심장  
아침의 심장과 저녁의 심장  
  
두근거리는 것들은 다 노래가 되지요  
  
오늘도 강가에 앉아  
심장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답니다  
동맥과 동맥을 연결하면  
피가 돌 듯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지요  
  
나는 심장을 켜는 사람  
  
심장을 다해 부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통증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심장이 펄떡일 때마다 달아나는 음들,  
웅크린 조약돌들의 깨어남,  
몸을 휘돌아나가는 피와 강물,  
걸음을 멈추는 구두들,  
짤랑거리며 떨어지는 동전들,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지나가는 자전거바퀴,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기적소리,  
  
다리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얼굴은 점점 희미해지고  
  
허공에는 어스름이 검은 소금처럼 녹아내리고  
  
이제 심장들을 담아 돌아가야겠어요  
오늘의 심장이 다 마르기 전에

기슭에 다다른 당신은

당신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막다른 기슭에서라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고 느낄 때  
산이나 개울이나 강이나 밭이나 수풀이나 섬에  
다른 물과 흙이 섞여 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기슭에 다다른 당신은  
발을 멈추고 구름에게라도 물었어야 했다  
산을 내려오고 있는 산에게  
길을 잃고 머뭇거리는 길에게 물었어야 했다  
  
파도에 몸이 무작정 젖어드는 그곳을  
우리는 기슭이라고 부르지  
  
신이나 짐승과 마주치곤 하는 산기슭  
포클레인이 모래를 퍼 올리고 있는 강기슭  
  
풀벌레 날아다니는 수풀기슭  
기슭이라는 말에는 물기나 소리 같은 게 맺혀 있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겨난 비탈 끝에는  
어떤 기슭이 기다리고 있는지  
  
빛이 더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래도 당신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무서움의 시작 앞에 눈을 감지는 말았어야 했다

내 것이 아닌 그 땅 위에

주춧돌을 어디에 놓을까  
여기쯤에 집을 앉히는 게 좋겠군  
지붕은 무엇으로 얹을까  
벽은 아이보리색이 무난하겠지  
저 회화나무가 잘 보이게  
남쪽으로 커다란 창을 내야겠어  
동백숲으로 이어진 뒤뜰에는 쪽문을 내야지  
그 옆엔 자그마한 연못을 팔 거야  
곡괭이를 어디 두었더라  
돌담에는 마삭줄이나 능소화를 올려야지  
앞마당에는 무슨 꽃을 심을까  
대문에서 현관까지 자갈을 깔면 어떨까  
저 은행나무 그늘에는  
나무 의자를 하나 놓아야지  
식탁은 둥글고 큼지막한 게 좋겠어  
  
오늘도 집을 짓는다  
내 것이 아닌 그 땅 위에, 허공에  
  
생각은 돌담을 넘어  
집터 주위를 다람쥐처럼 드나든다  
집을 이렇게 앉혀보고 저렇게 앉혀보고  
벽돌을 수없이 쌓았다 허물며  
마음으로는 백 번도 넘게 그 집에 살아보았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그 땅에는  
이미 다른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무언가 부족한 저녁

여기에 앉아보고 저기에 앉아본다  
컵에 물을 따르기도 하고 술을 따르기도 한다  
  
누구와 있던 어디에 있던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저녁이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마음에 드는 저녁이다  
  
저녁에 대한 이 욕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교차로에서, 시장에서, 골목길에서, 도서관에서, 동물원에서  
오래오래 서 있고 싶은 저녁이다  
  
빛이 들어왔으면,  
좀더 빛이 들어왔으면, 그러나  
남아 있는 음지만이 선명해지는 저녁이다  
  
간절한 허기를 지닌다 한들  
너무 밝은 자유는 허락받지 못한 영혼들이  
파닥거리며 모여드는 저녁이다  
  
시멘트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검은 나방들,  
나방들이 날아오를 때마다  
눅눅한 날개 아래 붉은 겨드랑이가 보이는 저녁이다  
  
무언가, 아직 오지 않은 것,  
덤불 속에서 낯선 열매가 익어가는 저녁이다

어둠이 아직

얼마나 다행인가  
눈에 보이는 별들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별들을 온통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둠을 뜯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  
별은 어둠의 망토에 달린 단추  
별은 어둠의 거미줄에 맺힌 밤이슬  
별은 어둠의 상자에 새겨진 문양  
별은 어둠의 웅덩이에 떠 있는 이파리  
별은 어둠의 노래를 들려주는 입술  
  
별들이 반짝이는 동안에도  
눈꺼풀이 깜박이는 동안에도  
어둠의 지느러미는 우리 곁을 스쳐 가지만  
우리는 어둠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지  
뜨거운 어둠은 빠르게  
차가운 어둠은 느리게 흘러간다지만  
우리는 어둠의 온도와 속도도 느낄 수 없지  
  
알 수 없기에 두렵고 달콤한 어둠,  
아, 얼마나 다행인가  
어둠이 아직 어둠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

길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그린 것인지  
나무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또는 길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길과 나무는 서로에게 벽과 바닥이 되어왔네  
  
길에 던져진 초록 그림자,  
길은 잎사귀처럼 촘촘한 무늬를 갖게 되고  
나무는 제 짐을 내려놓은 듯 무심하게 서 있네  
  
그 평화를 누가 베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의 도끼는  
때로 나무를 길 위에 쓰러뜨리나니  
파르르 떨리는 잎사귀와 그림자의 비명을  
여기 다 적을 수는 없겠네  
  
그가 그린 어떤 길은 벌목의 상처를 지니고 있어  
내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하네  
굽이치며 사라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네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평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 까마득히 멀어지는 풍경,  
그 쓸쓸한 소실점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나는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 하네

어떤 나무의 말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2014)]

제 마른 가지 끝은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습니다,  
더는 쪼개질 수 없도록.  
제게 입김을 불어넣지 마십시오.  
당신 옷깃만 스쳐도  
저는 피어날까 두렵습니다.  
곧 무거워질 잎사귀일랑 주지 마십시오.  
나부끼는 황홀 대신  
스스로의 棺이 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부디 저를 다시 꽃 피우지는 마십시오.

뿌리로부터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제는 뿌리보다 줄기를 믿는 편이다  
  
줄기보다 가지를,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믿는 편이다  
  
희박해진다는 것  
언제라도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지 끝의 이파리가 위태롭게 파닥이고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뿌리로부터 달아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뿌리로부터 달아나려는 정신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허공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뿌리 대신 뿔이라는 말은 어떤가  
  
가늘고 뾰족해지는 감각의 촉수를 밀어올리면  
감히 바람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소의 뿔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  
그러나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들  
  
오늘의 일용할 잎과 꽃이  
천천히 시들고 마침내 입을 다무는 시간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미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풀의 신경계

풀은 돋아난다  
일구지 않은 흙이라면 어디든지  
  
흙 위에 돋은 혓바늘처럼  
흙의 피를 빨아들이는 솜뭉치처럼  
날카롭게 때로는 부드럽게  
   
흙과 물기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풀의 신경계는 뻗어간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풀은 풀과 흔들리고 풀은 풀을 넘어 달리고 매달리고  
풀은 물결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한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을 때까지  
  
풀의 신경섬유는 자주 뒤엉키지만  
서로를 삼키지는 않는다  
다른 몸도 자기 몸이었다는 듯 휘거나 휘감아들인다  
가느다란 혀 끝으로 다른 혀를 찾고 있다  
   
풀 속에서는 풀을 볼 수 없고  
다만 만질 수 있을 뿐  
   
제 몸을 뜯어 달아나고 싶지만  
뿌리박힌 대지를 끝내 벗어나지 못해  
소용돌이치는 풀,  
그 소용돌이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고  
나는 자꾸 말을 더듬고  
매순간 다르게 발음되는 의성어들이 끓어오르고  
  
풀은 너무 멀리 간다  
더 이상 서로를 만질 수 없을 때까지

휠체어와 춤을

그래요.  
그건 차라리 울음에 가까웠어요.  
당신의 발도  
흑인가수의 노랫소리도  
흙 묻은 신발을 벗듯 울음을 털고 있었죠.  
스텝을 배운 적은 없지만  
휠체어에 앉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은 노련한 선장처럼 웃었지요.  
세상의 파도란 파도는 다 겪어본 듯한  
고요한 얼굴,  
음악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의 발은 바닥을 울리며 번져갔지요.  
찢어진 땅을 꿰매는 풀처럼  
갈라진 파도를 합치는 바람처럼  
한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을 데려왔어요.  
우리의 팔이 가까워질 때마다  
당신은 땀에 젖은 얼굴로 지옥에서 돌아오고  
우리의 팔이 멀어질 때마다  
당신은 먼 천국에서 웃고 있었지요.  
작고 둥근 바퀴가  
당신의 두 발을 대신해 돌곤 했어요.  
낯선 우리를 태운 방주는 아주 멀리 도망갔지요.  
그래요.  
당신이 가르쳐준 스텝은.  
울음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 몸을 흔들면  
그대로 춤이 되던 그날 기억은.  
바다 저편  
당신은 지금도 춤을 추고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파도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나요.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말들이 돌아오고 있다  
  
물방울을 흩뿌리며 모래알을 일으키며  
바다 저편에서 세계 저편에서  
  
흰 갈기와 검은 발굽이  
시간의 등을 후려치는 채찍처럼  
밀려오고 부서지고 밀려오고 부서지고 밀려오고  
  
나는 물거품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 해변에 이르러서야  
히히히히잉, 내 안에서 말 한마리 풀려 나온다  
  
말의 눈동자,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파도 속으로 사라진다  
  
가라, 가서 돌아오지 마라  
이 비좁은 몸으로는  
지금은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수만의 말들이 돌아와 한 마리 말이 되어 사라지는  
시간  
흰 물거품으로 허공에 흩어지는 시간

당신과 물고기

아가미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가미가 팔딱거릴 때마다  
물고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한답니다  
아, 당신에게는 정교한 턱이 있군요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있고  
수천 가지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화의 결정적 흔적 말이에요  
삶이라는 질긴 고기를 질겅질겅 씹으며  
이빨을 드러내 보이는 당신,  
하지만 물고기의 가시와  
당신의 등뼈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실은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물에서 뭍으로 옮겨 오기까지  
당신의 종족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요  
팔과 다리 없이도  
지느러미가 지느러미를 만지던 걸 기억하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웃을 때 파도 소리가 나는 것은  
당신 안의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파닥였기 때문  
화가 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당신 안의 상자해파리가 눈을 톡 쏘고 달아났기 때문  
그토록 목이 마른 것은  
당신 안의 물고기가 물 밖에 있기 때문  
그런데도 당신은 끝내 기억해내지 못하는군요  
아가미와 지느러미의 시절을

호모 루아

\*  
  
  
호모 파베르이기 전에  
호모 루아, 입김을 가진 인간  
   
라스코 동굴이 폐쇄된 것은  
사람들이 내뿜은 입김 때문이었다고 해요  
부드러운 입김 속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과 세균과 독소가 들어 있는지  
거대한 석벽도 버텨낼 수 없었지요  
   
오래전 모산동굴에서 밤을 지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허공에 하얀 입김을 피워올리며  
밤새 노래를 불렀지요  
노래의 투명성을 믿던 시절이었어요  
노래의 온기가  
곰팡이를 피우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몸이 투명한 동굴옆새우들이  
우리가 흘린 쌀뜨물에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입김을 가진 자로서 입김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허공에 대한 예의 같은 것  
   
얼어붙은 손을 녹일 수도  
유리창의 성에를 흘러내리게 할 수도  
후욱, 촛불을 끌 수도 있지만  
목숨 하나 끄는 것도 입김으로 가능해요  
참을 수 없는 악취  
몇 마디 말로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도 있지요  
   
분노가 고인 침으로  
쥐 80마리를 죽일 수 있다니,  
신의 입김으로 지어진 존재답게 힘이 세군요  
그러니 날숨을 조심하세요  
입김이 닿는 순간 부패는 시작되니까요  
   
\* Homo Ruah: ‘Ruah’는 히브리말로 ‘입김’을 뜻함

밀랍의 경우

밀랍은 더 이상 희지 않고  
향기롭지 않으며  
손으로 만지거나 두드릴 수 없다  
  
어떤 불길이 밀랍을 녹여버렸기 때문이다  
  
밀랍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아카시아꽃 향기, 벌들의 날갯소리, 햇살과 바람,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밀랍은 밀랍일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밀랍 자체보다  
밀랍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다  
  
뜨거운 밀랍은  
이제 어디로든 흘러내릴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반죽될 수 있다  
  
한 자루의 초가 되거나  
한 조각의 비누가 되거나  
한 사람의 밀랍인형이 되거나  
밀랍은 서서히 굳어가며 다른 어떤 것이 된다  
  
그래도 밀랍은 밀랍일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은  
밀랍 자체보다  
밀랍이 곧 녹거나 닳아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취한 새들

청포도주 얼룩과 토사물들이  
키와 갈고리에서 흩어지며 날 씻었다네  
—아르튀르 랭보, 「취한 배」  
  
멀지 않은 곳에서  
어린 새들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  
  
비둘기의 발걸음으로 다가와  
까마귀의 날갯짓으로 끝이 나는 사건들  
새의 떼죽음도 그런 사건들 중 하나  
출근길의 교통사고처럼 곧 잊혀지고 마는 일   
  
점호도 없이 일제히 날아오르던  
새들은 어디로 갔나  
곡식알처럼 흩뿌려져도 부딪치는 법이 없던 새들은  
   
마가목 열매 때문이었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발효된 열매,  
붉고 둥근 칼집 속의 칼날이 새들의 영혼을 쪼개버렸다   
  
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앞에  
기우뚱거리는 날개를 미처 접지 못한 새들  
   
자라기도 전에 날개가 꺾여버린  
하늘의 익사체들,  
새들에게 치사량의 알콜은 얼마쯤 될까  
   
취한 새들은 곤두박질쳐서  
벽에, 유리창에, 전선에, 다른 새들의 몸에 부딪쳤을 것이다  
찢어진 북소리처럼 날갯소리 들렸을 것이다  
   
그 순간 새들은  
하늘의 착란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지  
땅에 뒹구는 마가목 열매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물에 취한 배도 있으니  
포도주의 얼룩으로만 씻겨지는 몸도 있으니

그날 아침

너는 잔에 남은 붉은 포도주를  
도로에 다 쏟아버렸다  
  
몇 방울의 피가 가로수에 섞이고  
유리조각들이 아침 햇살에 다시 부서졌다  
빛의 쐐기들이 눈에 박혔다  
  
핏자국마다 이슬이 섞여  
잠시 네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래전 너와 함께 듣던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른 풀 위로 난 바퀴 자국,  
황급히 생을 이탈한 곡선이 화인처럼 찍인 아침  
  
몇 가지 소지품이 우리에게 인도되었다  
외투와 시계와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와 십자가 목걸이가  
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전부였다  
  
우리는 복도에 우두커니 앉아  
너의 부재 증명을 기다렸다  
정말 너는 사라진 것인지,  
그들이 발급해준 서류를 믿을 수가 없었다  
  
시체보관실 문이 열리고  
너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외투는 입고 가렴,  
네가 가야 할 먼 길이 추울지도 모르니

피부의 깊이

마치 잠이 든 것 같았다 너는  
확신에 찬 꿈을 꾸면서  
어디 먼 곳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네 눈과 뺨과 팔과 다리를 쓸어내리니  
손끝을 파고드는 냉기가  
싸늘한 돌멩이를 만지는 것 같았다  
  
피부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네 삶을 봉인한 자루 속에서  
다른 세계의 빙산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 침묵의 벽을 탕 탕 쳐보아도  
단 한 마디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내도  
단 한 줄기 물도 녹아내리지 않았다  
나사로여,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아무리 소리쳐도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너를 만진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쥐었다  
희노애락으로 출렁거리는 표면,  
오직 너의 잠든 얼굴만이 잔잔하였다   
  
아, 피부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불투명한 유리벽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찰칵,  
네 얼굴이 켜졌어  
누가 기억의 스위치를 누른 것일까  
  
그러나 이내 네 얼굴은 꺼지고  
사방에서 깨진 유리 알갱이들이 모여들었지  
  
네가 쓰다 만 페이지,  
자동차 바퀴가 멈춘 곳에서 유리벽은 자라나  
점점 불투명해지고 단단해졌어  
  
새소리가 나를 일으키지 못하고  
눈부신 햇살도 유리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아, 여기는 어디일까  
난파된 배처럼 가라앉는 아침  
  
거기 춥지 않아? …… 어둡지 않아? …… 무섭지 않아?  
  
성에 낀 유리벽을 향해 하염없이 중얼거렸지  
까마득한 곁에 누운 너를 향해  
  
감긴 네 눈을 다시 감겨주고  
닫힌 네 입술을 다시 어루만져주고  
굳은 네 손과 발을 다시 쓸어주고  
식은 네 가슴에 흰 꽃을 다시 놓아주듯이  
  
그렇게 몇 시간을 누워 있었을까  
  
간신히 몸을 일으켜 욕실로 갔어 물을 틀었어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며 흘러내리고  
성에 낀 유리벽이 천천히 녹아내렸어 희미한 네 얼굴처럼

묘비명

석수장이에게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다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저편의 어둠 속에서도  
네가 사랑했던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어눌하게 새겨진 글자 속으로  
비바람이 다녀가고  
그럴 때 마다 말은 조금씩 어두워졌다  
  
누군가 심어두고 간 튤립이 흙 속에서  
손을 내밀 듯 꽃을 피우고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의 눈망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흙 속에 뿌리내린 네가

그들이 읽은 것은

교도소는 장례식장과 청과물시장 사이에 있었다  
썩어가는 것과 시들어가는 것 사이에  
  
두 개의 초소와 세 개의 철문  
호송버스와 승용차  
열리는 문과 열리지 않는 문  
푸른 수의와 검은 재킷  
스무 살의 학교와 학교인 감옥  
『밤의 대통령』과 『유리병 편지』  
꽃봉우리와 노다지  
소낙비를 맞은 기억과 매를 맞은 기억  
보름달과 스무 권의 노트  
어머니를 떠올리는 남자와 어머니였던 여자  
울먹이는 말과 고개 숙인 생각  
환한 방에 대한 상상과 어두운 방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와 애인의 얼굴  
느릅나무와 플라타너스  
불가능한 대화와 불충분한 대화  
비에 젖은 창문과 빗물조차 들어올 수 없는 복도  
우산을 든 손과 들지 않은 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과 시인은 함께 읽었다  
비에 젖은 몇 편의 시를

마비된 나비

그는 사라지려는 것처럼 연주하고  
  
사라지면서 연주하고  
  
사라진 후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식물적인 죽음

창으로 빛이 들면  
눈동자는 굴광성 식물처럼 감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숨소리는 견딜 수 없이 가빠졌다  
  
삶의 수면 위로 뻐끔거리는 입,  
병실에는 그녀가 광합성으로 토해놓은 산소들이  
투명한 공기방울이 되어 떠다녔다  
  
식물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공기방울에서는 수레국화 비슷한 냄새가 났다  
  
천천히 시들어가던 그녀가  
침대 시트의 문양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빛을 향해 열렸던 눈과 귀가 닫힌 문처럼 고요해졌을 때  
  
이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도 사물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한 떨기 죽음으로 완성된 그녀  
  
죽음이 투명해질 때까지  
죽음을 길들이느라 남은 힘을 다 써버린 사람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수레국화 한 송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겨우 존재하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폐에서 물 좀, 물 좀, 빼주세요.  
숨 막혀서 못 견디겠어요.  
도와줘요, 제발.  
폐 속에는 물이 아니라 피가 흥건해요.  
깊은 바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익사하고 싶지 않아요.  
숨만 제대로 쉴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요.  
영영 눈을 감아도 좋아요.  
숨만 차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마루에 기대앉아 쉴 수 있을 텐데.  
나는 원해요, 한 줌의 산소를.  
아니, 원하지 않아요, 심장의 규칙적인 몸부림을.  
산소공급기를 꽂고도 헐떡거리는 심장.  
이런 심장으로 어떻게 더 버틸 수 있겠어요.  
어제도 뜬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이 고통스러운 노래는 언제쯤 고요해지려는지.  
귓속에서 수군거리는 그들.  
쿵쿵거리는 발걸음들.  
유리창 사이에서 타닥거리는 나방.  
멀리서 우는 물푸레나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  
침대에서 쪼그린 채 견뎌야 하는 수많은 밤들.  
희미하게 밝아오는 창문들.  
이제, 그만, 그만, 묻을 닫고 싶어요.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저 검은 바다를 얼마나 건너야 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모진 것은 숨 쉬는 일이예요.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곳과 이곳

지금 그곳에 내가 있다면  
사흘째 폭설이 내리는 그곳에 있다면   
   
그러나 이곳은 사흘째 비가 내리고  
나는 그곳에서 혼자 걷고 있는 상상을 하고  
   
설원을 헤매는 동안  
시간은 접시의 물처럼 자꾸 증발하고  
   
이곳이 오늘의 비등점이라면  
수없이 들끓고도 도달할 수 없는 비등점이라면   
   
그곳에 내리는 눈은  
끓는 물에 뛰어드는 순간 녹아버리고  
   
그곳이 오늘의 결빙점이라면  
수없이 얼어붙고도 도달할 수 없는 결빙점이라면  
   
이곳에 내리는 비는  
얼음에 닿는 순간 얼어버리고  
   
그곳과 이곳 사이에는   
결빙점과 비등점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눈과 비와 얼음과 물과 현기증이 있는지

흙과 소금

소금이 햇빛에 반짝였다  
태고의 기억이 떠올랐다는 듯  
  
​수표면의 기억을 흰 눈썹처럼 지닌 바위들  
아주 먼 옛날  
소금호수는 바다의 일부였다고 한다  
​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소금호수를 걸어 다녔다  
아가미도 지느러미도 없이  
몇 번은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깨지면서  
​  
썩지 않는 것들의 냄새,  
돌처럼 단단해진 소금기둥들,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들려오는 노래,  
소금밭 위로 떠가는 구름,  
또는 낡은 신발 끝에 하얗게 묻어나는 시장기  
​  
소금 결정을 조금 떼어 입에 넣었다.  
희고 짜디잤다  
흙 알갱이들이 따라 들어와 혀끝에 버석거렸다  
  
소금은 녹고 흙만 남았다

그러나 밤이 오고 있다

질주하는 차들은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로변에 누워 있는 것은  
식당의 환풍구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 때문이다  
그 식당은 가장 늦게 문을 닫는 편이다  
음식 냄새가 시장기를 자극하지만  
무디어져가는 감각과 의지를  
그렇게라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냄새에 따라 어떤 음식일지 상상해보면  
식탁을 가졌던 시절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한다  
필요 없는 것들로 불룩한 아이의 주머니처럼  
상상의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 찬다  
음식에서는 이내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하나밖에 없는 담요는 개를 감싸주고  
담요에 싸인 개가 살아 있는 담요가 되어주지만  
밤이 오기 전에  
온기와 냄새를 좀더 비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커피가 식기 전까지 세상은 그럭저럭 마실 만했다  
그러나 밤이 오고 있다  
여우의 눈동자를 지닌 밤이 오고 있다  
물론 그녀는 밤에 움직이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  
길 잃은 개들과 고양이들, 또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달아나는 여우들,  
술 취한 남자들이 갈기고 간 오줌 냄새와  
변태성욕자들, 또 다른 노숙의 달인들에 간해  
동물적인 감각으로 익혀온 바가 있다  
그러니 어젯밤이 지나갔듯이 오늘밤도 지나갈 것이다  
갈라진 시멘트의 혈관에서 냉기가 흘러나온다  
그녀는 자벌레처럼 몸을 굽혔다 뻗는다  
벌거벗은 한 뼘의 땅 위에  
약간의 빛과  
굴광성의 영혼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려는 듯  
환풍구를 향해 길게 숨을 들이쉰다  
잠든 개를 천천히 쓰다듬는다  
이 온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견딜 만하다고 중얼거리면서

명랑한 파랑

한 개의 청바지는 열두 조각으로 만들어진다  
또는 열다섯 조각 열일곱 조각  
  
안팎이 다르게 직조된 靑처럼  
세계는 흑백의 명암을 선명하게 지니고 있어  
  
질기디질긴 그 세계는  
일부러 찢어지거나 해지게 만드는 공정이 필요해  
  
한 개의 청바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에 푸른 물이 들어야 하는지,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이 만든 청바지 속에 들어가보지 못했지  
  
그들의 자리는 열두 조각 중 하나,  
또는 열다섯 조각 중 하나, 열일곱 조각 중 하나  
  
명랑한 파랑을 위해  
질기디질긴 삶을 박고 있을 뿐  
미싱 위에서 부표처럼 흔들리며 떠다니고 있을 뿐  
  
푸른 혓바닥처럼 쌓여 있는 피륙들  
조각과 조각이 등을 대고 만나는 봉제선들  
주머니마다 말발굽처럼 박히는 스티치들  
우연처럼 나 있는 흠집이나 구멍들  
뜨겁게 돌아가는 검은 선풍기들, 검은 눈들  
방독면을 쓰고 염색약을 뿌리는 사람들  
탈색에 쓰이는 작은 돌멩이들  
세탁기에서 나와 쭈글쭈글 말라가는 청바지들  
  
다리미실을 지나 한 점 주름 없어지는 세계  
마침내 라벨을 달고 포장을 마친  
명랑한 파랑

아홉번째 파도

오늘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여기 닿았다   
바다 저편에서 밀려온 유리병 편지  
  
2012년 12월 31일  
유리병 편지는 계속되는 波高를 이렇게 전한다  
  
42피트 …………… 쌍용자동차  
75피트 …………… 현대자동차  
462피트 …………… 영남대의료원  
593피트 …………… 유성  
1,545피트 …………… YTN  
1,837피트 …………… 재능교육  
2,161피트 …………… 콜트-콜텍  
2,870피트 …………… 코오롱유화  
  
부서진 돛대 끝에 매달려 보낸  
수많은 낮과 밤, 그리고 계절들에 대하여  
망루에서, 광장에서, 천막에서, 송전탑에서, 나부끼는 손들에 대하여  
떠난 자는 다시 공장으로, 공장으로,  
남은 자는 다시 광장으로, 광장으로, 떠밀려가는 등에 대하여  
밀려나고 밀려나 더 물러설 곳 없는 발들에 대하여  
15만 4,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電線 또는 戰線에 대하여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불빛에 대하여  
사나운 짐승의 아가리처럼  
끝없이 다른 파도를 몰고 오는 파도에 대하여  
결국 산 자와 죽은 자로 두동강 내는 아홉번째 파도에 대하여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젖은 종이들, 부서진 문장들  
  
그들의 표류 앞에 나의 유랑은 덧없고  
그들의 환멸 앞에 나의 환영은 부끄럽기만 한 것  
  
더 이상 번개를 통과시킬 수 없는  
낡은 피뢰침 하나가 해변에 우두커니 서 있다

삼 분과 삼 분의 일

신호등 앞에서 그를 떠올린다  
삼 분도 되기 전에 파란불로 바뀌는 신호등 앞에서  
  
인생의 삼 분의 일을  
이스라엘군 초소 앞에서 기다린다는 시인을  
검문을 받기 위해 종일 뙤약볕에 서 있는 그를  
또 다른 삼 분의 일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아 있다고 외치는 데 바치고  
침묵과 절규로부터 살아남은 삼분의 일만이  
시인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을  
  
삼 분과 삼 분의 일 사이에서  
한 생애가 흘러가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길을 건넌다  
그를 거기 남겨두고  
세계의 밑바닥에, 우리 자신의 밑바닥에 남겨두고

수레의 용도

저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이 수레가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걷지 못하고  
우리는 아침 먹을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침을!  
  
아침 일찍 한 소년이  
수레에 어머니를 태우고 거리를 돌며 소리쳤다  
조금은 절박하게  
  
행인들이 동전을 던져 넣을 때마다  
수레 속의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머릿수건을 감싸쥐었다  
  
덜컹거리며, 덜컹거리며, 우유병처럼 실려가는 어머니  
어머니에게 아침을!  
어머니에게 아침을!  
  
소년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저만치 언덕을 오르는 두 사람이 보였다  
  
오르막에서 소년이 수레를 밀어올리느라 낑낑거리자  
보다 못한 어머니가 수레에서 내리셨다  
  
소년과 어머니는 언덕을 넘었다  
조금은 경쾌하게, 빈 수레를 밀어올리며

여우와 함께 살기

여우가 아이를 물곤 하지만  
이 나라의 법은 여우 사냥을 금하고 있다  
붉은 야생동물이 남아 있다는 것이  
어떤 관용의 증표라도 되는 듯  
사람들은 뒷마당을 들락거리는 여우에게 관대하다  
외국인이 유난히 많은 도시에서  
여우처럼 근근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길들일 수도 내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세금을 내고 도서관에 가고 갤러리에 가고 산책을 한다  
밤마다 들리는 여우 울음소리에 익숙해져 간다  
바비큐 파티를 하고 고기를 남겨두지 않으면  
정원을 온통 헤집어놓는 여우도,  
취객처럼 꼬리를 흔들며 흥얼거리는 여우도,  
지하철에 올라타는 여우도 있다  
문명화된 여우도 도심에서는 종종 길을 잃는다  
이 유쾌하고 호기심 많은 이웃은  
거리에서 마주쳐도 도망치는 법이 없다  
행인을 물그러미 바라보다가  
불 꺼진 가게 앞을 기웃거리다가  
도로를 유유히 가로질러 방책 너머로 사라지는 여우,  
런던의 밤길을 걷다 보면  
내가 길 잃은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우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면서  
과묵한 이웃의 시선에서 점점 많은 것을 읽어내고  
여우를 만나면 인사를 잊지 않는다  
안녕, 여우!  
이따금 여우가 집 안으로 뛰어들고  
죽은 쥐나 고양이를 현관에 물어다 놓지만  
그래도 여우가 없는 풍경이라니,  
여우가 사라진 삶이라니,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오래된 숲으로 걸어간다

그의 뒷모습

그 도시를 떠나기 전  
벼룩시장에서 헐값에 산 중고의자를 버리러 갔다  
의자 하나 버리러 거기까지 가야 한다니,  
정말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나라라고 투덜거리며  
쓰레기처리장을 물어 물어 찾아갔다  
아랫배가 터진 의자는 톱밥을 쿨럭쿨럭 쏟아냈다  
직전에 버려진 의자는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다  
냉장고는 냉장고끼리, 에어컨은 에어컨끼리,  
세탁기는 세탁기끼리, 가전제품들은  
허공에 플러그를 꽂은 채 폐기될 순서를 기다렸다  
죽은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시계들은  
손가락으로 각기 다른 시각을 가리켰다  
썩을 수 없는 것들은 완고한 얼굴을 가졌다  
저편에는 썩어가는 것들의 거대한 묘지,  
산처럼 쌓인 쓰레기 위로  
트럭은 색색의 비닐봉지를 울컥울컥 토해냈다  
신선한 쓰레기 주위로 갈매기들과 까마귀들이 몰려들었다  
썩은 고기를 찾아 비닐봉지를 쪼아대는 부리들,  
격렬하게 부딪치는 흰 날개와 검은 날개,  
끼룩끼룩, 까악까악, 울음소리도 공주에서 뒤엉켜 나뒹굴었다  
진동하는 악취에 차들은 쓰레기를 부려 놓자마자 달아났다  
그곳에서는 모든 길이 일방통행이었다  
  
해가 뉘엿 넘어가는데  
의자 하나 버리러 갔다가 보고 말았다  
그의 뒷모습을  
흰 날개와 검은 날개로 가득한 묵시록의 하늘을

신을 찾으러

검은 부츠를 그곳에 두고 왔다  
뒤늦게 신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너무 오래 신어서 이젠 없어도 된다고 대답했다  
  
낡은 벽장 제일 아래 칸,  
신은 지금도 어둠에 갇혀 있을까  
  
신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조용히 빛나는 눈과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합창 소리,  
백합 한송이를 쬐며 온화하게 웃는 사람들  
  
신을 벗어야 신을 만날 수 있는  
불꽃나무의 영토를 그들은 알고 있을까  
  
아일린은 말했지  
신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고  
지상의 하루하루, 피 흘리는 싸움 속에 있다고  
데이비드는 바울에 대해 말했지  
다마스커스의 빛에 눈멀어 말에서 떨어진 사람  
신의 신으로 십 년 넘게 떠돌았던 사람  
질그릇으로 빚어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때로는 질그릇에서 엎질러진 물 같은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젖지 않게 된 사람  
  
그곳의 하늘에는 북극광이 흘러가고 있었다  
처음 본 빛이었다  
  
빛은 어디서 오는가,  
빛은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했지만  
삶은 검은 부츠처럼 낡아가고  
꿈에서나 중얼거린다  
그곳에 가야 하는데 신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대장간에서의 대화

1  
망치와 모루가 만나는 것은 등을 돌릴 때뿐이군요.   
그것도 궁합이라면 궁합이지요.  
  
 2  
화덕에서 달군 쇠를 메질하고  
담금질하고 메질하고 담금질하고 메질하고  
그렇게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3  
수많은 철의 자식들이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이 뜨거운 아궁이 속에서.  
망치와 모루 사이에서.  
  
 4  
모루의 둥근 뿔은 어디에 쓰지요?  
그건 주로 굽은 쇠를 두드릴 때 사용합니다.  
  
 5  
칼과 낫은 여섯 번,  
쇠스랑은 아홉 번 담금질을 합니다.  
날을 가진 것들은 대체로  
불과 물,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지지요.  
  
 6  
강철 속에 불의 심장을 가두기 위해서는  
물이, 차가운 물이 필요해요.  
  
 7  
땀을 많이 흘리시는군요.  
신도 대장간에서는 땀을 흘립니다.

진흙의 사람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점을 친다지  
접시에 반지, 기도서, 물, 진흙, 동전을 담아  
눈을 가린 술래에게 하나를 집게 하는데  
반지를 집으면 곧 결혼하게 하고  
기도서를 집으면 수도원에 가게 되고  
물을 집으면 오래 살게 되고  
진흙을 집으면 곧 죽게 되고  
동전을 집으면 엄청난 부자가 된다지  
내가 집어든 것은 진흙,  
차갑고 축축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손끝에 느껴질 때  
그것이 죽음이 만져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조금 놀라기도 하지  
그러나 우리는 오래 전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그 감촉을 느끼곤 하지  
물로 씻어낼 때마다 조금씩 닳아가는 진흙 마스크를  
잘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루를 시작하지  
아일랜드에 가지 않아도  
반지, 기도서, 물, 진흙, 동전을 담은 접시는  
식탁이나 선반 위에 늘 놓여 있지  
내가 집어든 것은 진흙,  
그것으로 빚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진흙이 마르는 동안 갈라지는 슬픔 또한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눈 어두운 진흙의 사람,  
그러니 내 손이 진흙을 집어들더라도  
부디 놀라지 말기를!  
가렸던 눈을 다시 뜬다 해도  
나는 역시 한 줌의 진흙을 집어들 것이니!

밤 열한 시의 치킨샐러드

더블린의 밤, 불 켜진 집이라고는  
취객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푸드점뿐이었다  
커다란 체스판 무늬의 바닥은  
방금 물청소를 끝낸 듯 반짝거렸고  
나는 지친 말처럼 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스판 저쪽의 한 남자,  
리본 달린 머리띠를 둘러 여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바라보며  
치킨샐러드를 천천히 되새김질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고  
치킨샐러드를 먹던 남자는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울다 웃다 울다 웃다 울다 웃다  
두 남자는 마침내 끌어안고 키스를 길게 나누었다  
남자의 혀와 남자의 혀가 엉기는 동안

국경의 기울기

국경은 수평으로 된 수직,  
통로인 동시에 장벽이 되기도 하는 곳  
  
새떼는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비행기는 쉽게 착륙할 수 없는 곳  
  
하수구의 물은 뒤섞여 흘러가지만  
생수 한 병은 자유롭게 건너갈 수 없는 곳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누군가를 배신하기 위해  
배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위험하거나 안전한 장사를 위해  
불법체류를 위해  
금지된 국경을 상징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단지 권태를 달래기 위해  
저 너머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에 충실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  
총탄을 피해 달아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 탄 아들 때문에  
손녀를 둘이나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상과 천국의 국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옥수수를 구워 팔거나 돼지 껍데기를 튀겨 팔거나  
멜론맛 오렌지맛 포도맛 과일빙수를 얼려 팔거나  
갓 태어난 강아지새끼를 손에 들고 팔거나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열 개나 메고 다니며 팔거나  
그 무엇도 팔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종이컵을 손에 들고 늘어선 차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비스듬한 표정으로  
국경을 향해 서 있거나 걸어가는 사람들

언덕이 요구하는 것

그 도시는 언덕길이 유난히 많았지요  
언덕길을 오르내리다 지치면  
바닷가 벤치에 앉아 갈매기들에게 빵을 뜯어주었어요  
갈매기들과 비둘기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바람이 땀을 식혀주기를 기다렸지요  
광장의 간디 동상이 지팡이를 짚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갈 때  
그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 걷고 또 걸었어요  
금지된 소금을 만들러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가다가 잘 생긴 거지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 걸었어요  
따뜻한 저녁이라도 한 끼 사고 싶었지요  
하지만 거지들은 걸어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언덕이 나오자 모퉁이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할 수 없이 언덕의 요구에 따라 혼자 걷기 시작했어요  
언덕은 계속 걷고 싶게 만들어요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걷다보면 구불구불한 내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 전체가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되요  
너무 속도를 내다가는 바다에 풍덩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새 가로등이 켜지고  
언덕을 향한 내 등 뒤로 그림자가 길어져요  
언덕이 오래된 성당처럼 가파르고 순결하게 느껴질 때  
낯선 도시에서의 며칠이  
내가 끌고 온 긴 그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문득 뒤를 돌아보고 싶을 때  
그 도시의 어스름은 이렇게 속삭였지요  
  
언덕이 요구하는 것은  
발끝을 위로 향하고 걸으라는 것과  
숨 가쁜 순간을 몇 번이고 넘기라는 것, 그리고  
남기고 온 발자국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

등장인물들

그들은 더 이상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  
연극이 끝났으므로  
  
분장 인물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  
  
다리 저는 여자, 순정한 매춘부,  
사랑에 빠진 남자, 잔인한 살인청부업자,  
교활한 상점 주인에서 천진한 소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될 수 있고  
비로소 아무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곳  
  
무대에서는 널빤지와 걸레도 소품이 된다  
그러나 무대 밖에서는  
다시 널빤지와 걸레로 돌아가야 한다  
  
연극보다 더 극적인 삶이 벌어지는 뒷골목에서  
운명이 흘리고 간 빵가루를 주워 먹으며  
  
때로는 우두커니 서 있는 그들  
포충망 속의 나비처럼 파닥거리는 그들  
  
모든 게 연극에 불과하다면  
삶은 지퍼백처럼 얼마나 간편한 것인가  
하지만 막이 언제 열리고 닫힐지  
다음에 누가 등장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투명한 비닐 속에서   
여전히 진지하게 대사를 읊조리는 등장인물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다  
연극 같은 삶이 끝났으므로

흑과 백

흑은 백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다가  
담장에 비스듬히 세웠다  
사다리가 된 백은 무표정해졌다  
  
흑은 다리를 번쩍 들어 사다리를 오르고  
백은 흑의 신발에 묻은 흙을 지금지금 삼켰다  
흑이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동안  
백은 기어다니는 개미들을 세는 데 열중했다  
개미 몇 마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기도 했다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어?  
그러나 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흑은 다시 백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다가  
강가에 이르러 백을 물에 띄웠다  
뗏목이 된 백은 흑을 태우고 강을 건넜다  
백의 등에는 강물이 점점 스며들었다  
  
강 저편에 무엇이 있어?  
그러나 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을 건너자 흑은 백을 나무에 비스듬히 세웠다  
조금씩 말라가며 백은 표정을 되찾았다  
이번에는 사다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또 어디로 가지?  
백이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흑과 백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회색의 점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흑은 다시 백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다가  
붉은 벽돌집 앞에 멈추었다  
백은 알고 있었다 이번엔 문이 될 차례라는 것을  
  
백은 붉은 벽의 일부가 되었다  
흑은 백의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잡아당겼다

조롱의 문제

조롱은 새를 품은 채 날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철망 사이의 공기 함량이 너무 적었다  
조롱의 문제는 무거움보다 조밀함에 있었다  
가늘고 촘촘한 정신을 두른 조롱은  
새의 눈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동안 조금씩 녹슬어갔다  
녹슬어간다는 것은  
느리게 진행되는 폭발과도 같아서  
붉게 퍼지는 말들이 조롱을 갉아먹었다  
조롱은 녹슨 방주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새가 가진 것은 조롱 속의 허공,  
새가 할 수 있는 일은 울음소리를 흘려보내  
조롱 안과 밖의 공기를 드나들게 하는 것이었다  
닻줄 구멍에서 닻줄을 끌어내듯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개를 파닥이는 것이었다  
물론 조롱에게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조롱 밖의 권한이었다  
물과 모이를 갈아주는 손은  
이내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닫힌 문으로 절망은 더 잘 들어왔지만  
철망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그들을 견디게 했다  
희박해지는 공기 속에서

아주 좁은 계단

낡은 벽을 쪼개자  
벽과 벽 사이로 아주 좁은 계단이 보인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이 계단은  
거대한 나선계단의 일부일까  
소용돌이치는 내면을 감아오르는 덩굴식물처럼  
  
붉은 벽, 쓰러진 나무 그림자  
푸른 벽, 서 있는 나무 그림자  
  
벽은 쪼개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균열로 내파된 것인지 모른다  
쓰러진 나무 그림자와 서 있는 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누군가 놓고 간 사과 한 알,  
계단을 오른 흔적을 사과로 남겨두는 사람도 있구나  
그는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어쩌면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는지 모른다  
구원처럼  
계단 위에서 굴러내린 사과일지도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계단도 잠시 숨을 고른다  
계단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일곱 계단 위에 다시 사과 한 알,  
빛에 한결 가까워졌다  
벽에 갇힌 나무 그림자들로부터 멀어졌다

방과 씨방 사이에서

오후 두 시  
방은 갑자기 씨방처럼 줄어든다  
  
두 개의 씨앗이 등을 맞대고 있는  
방  
서로의 숨소리에 놀라 눈을 감게 되는  
방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수평선과 지평선 사이에서  
붉은 꽃과 검은 그림자 사이에서  
찰랑거리는 피와 응고된 피 사이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와 멀어지는 소리 사이에서  
점화와 암전, 환영과 환멸 사이에서  
  
방과 씨방 사이에  
몇 번의 여름과 겨울이 지나고  
오후 두 시  
씨방은 갑자기 방처럼 늘어난다  
  
강한 빛에서 놓여난 눈동자가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고  
시계는 힘겹게 세 개의 바늘을 돌리기 시작한다  
  
다시 쐐기풀을 짜야 할 시간이다

추분 지나고

그가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를 보여줄 수 없지만  
그가 없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없군요  
   
물이 증발한 종이 위의 희미한 얼룩  
   
어둠이 등뼈에 불을 붙이고  
등줄기가 타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눅눅한 생각에서 피어오르는 냄새  
벽을 어지럽히는 그을음  
금이 간 거울  
수도꼭지에서 똑 똑 떨어지는 물방울  
재채기처럼 쏟아지는 기억  
시간을 갉아먹는 몇 개의 바늘  
  
이제 밤이 길어지리라는 것을 알아요   
  
어둠이 등뼈를 다 태울 때까지  
낮도 밤도 없이 길고 긴 잠을 잘 수 있었으면  
   
밤이 지나면  
독수리가 간을 쪼러 다시 찾아오겠지만

눈먼 집

그 집이 폐허게 가까워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주인이 문과 창문을 모두 막아버리고 떠났지요  
  
깨진 유리창 대신  
벽들과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메운 창문들,  
지붕이 새기 시작하고  
무성해진 풀이 문틈으로 삐져나오고  
벽들이 차례로 썩어갔습니다  
  
마른 벽에 흰 곰팡이  
젖은 벽에 검은 곰팡이 피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 폐허 한 채가 완성되었군요  
  
밤마다 쥐떼를 이끌고 길을 나서는 그 집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해  
다음 날 아침이면 다른 곳에서 발견되곤 하는 그 집  
  
폐허가 걸어다니는 소리를  
사람들은 잠결에 듣기도 하지요  
폐허가 번져가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 집을 열고 들어갈 용기도 없답니다  
  
푸석푸석한 눈동자,  
더 이상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눈동자,  
폐허는 바로 그 멀어버린 눈동자에서 시작되었지요

나를 열어주세요

옆구리에 열쇠구멍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예, 거기에  
열쇠를 꽂아주세요.  
아니면 태엽이라도 감아주세요.  
여기 계속 서 있는 건  
아무래도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걸음이라도 걸어야 살 것 같아요.  
열쇠를 찾을 수 없다고요?  
당신의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있잖아요.  
손가락만큼 좋은 열쇠는 드물죠.  
때로는 붓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는 손,  
지문의 소용돌이를  
열쇠구멍의 어둠에 가만히 대보세요.  
예, 드디어 열렸군요.  
이제 구멍 밖으로 걸어갈 수 있겠네요.  
태엽을 넉넉히 감아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테니까.  
내 구두에는 스프링이 달려 있어  
통, 통, 튀어 올랐다가도 이내 가라앉고 말지요.  
혹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눈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줄 아세요.  
당신의 인형이라는 것도 잊은 채  
땅에 코를 박고 허둥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일으켜줄 어떤 손을 기다리면서.

장미의 또 다른 입구

오늘은 장미 한 송이를 걸어보았습니다.  
열세 개의 문을 통과했지요.  
꽤 은밀한 구석이 많은 꽃이더군요.  
한 잎 한 잎 지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향기가 후욱 끼쳐왔습니다.  
꽃잎이 다 누운 뒤 남은 암술에는  
노란 꽃가루들이 곡옥처럼 반짝였습니다.  
꽃가루 음절들이 만든 문장을  
저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해독되지 않는 침묵이  
장미를 장미로 만드는 원천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걷고 난 뒤에도  
걷지 않은 길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  
열에 들뜬 손가락은  
유리조각처럼 흩어진 꽃잎을 만지며  
장미의 또 다른 입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들어간 적 없는 향기로운 방,  
그러나 표정을 잃어버린 장미는  
어떤 문도 불빛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꽃잎에서 저 꽃잎으로,  
이 꽃잎에서 또 다른 꽃잎으로,  
베인 손가락은 피를 흘리며 서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장미가 남은 향기를 다 토해낼 때까지

눈과 얼음 [파일명 서정시(2018)]

사흘 내내 폭설이 내리고  
  
나뭇가지처럼 허공 속으로 뻗어가던 슬픔이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고드름이 떨어져나갔다  
내 몸에서  
  
시위를 떠난 투명한 화살은  
아파트 20층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제 사람들은 내 슬픔과 치욕을 알게 되리라  
  
깨진 얼음 조각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밟으며  
지나가리라  
  
얼음 조각과 얼음 조각이 부딪칠 때마다  
얼음 조각이 태어나고  
  
부드러운 눈은 먼지와 뒤엉켜 눈멀어가리라

파일명 서정시

그들은 〈서정시〉라는 파일 속에 그를 가두었다  
서정시마저 불온한 것으로 믿으려 했기에  
  
파일에는 가령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머리카락 한 줌  
손톱 몇 조각  
한쪽 귀퉁이가 해진 손수건  
체크무늬 재킷 한 벌  
낡은 가죽 가방과 몇 권의 책  
스푼과 포크  
고치다 만 원고 뭉치  
은테 안경과 초록색 안경집  
침묵 한 병  
숲에서 주워온 나뭇잎 몇 개  
   
붕대에 남은 체취는 유리병에 밀봉되고  
그를 이루던 모든 것이 〈서정시〉속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서정시들과 함께  
  
그들은 이런 것조차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화단에 심은 알뿌리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서 온 편지가 몇 통인지  
숲에서 지빠귀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옷자락에 잠든 나방 한 마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하루에 물을 몇 통이나 길었는지  
재스민 차를 누구와 마셨는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대출받았는지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저물 무렵 오솔길을 걷다가 왜 걸음을 멈추었는지  
차로 국경을 넘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 사랑의 나날 중에 대체 무엇이 불온하단 말인가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가졌다는 것  
마음의 뿌리를 돌보며 살았다는 것  
자물쇠 고치는 노역에도  
시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파일명 〈서정시〉에서 풀려난  
서정시들은 이제 햇빛을 받으며 고요히 반짝인다  
  
그의 생애를 견뎌온 문장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온다, 맨발로, 그림자조차 걸치지 않고

새로운 배후

새로운 배후가 생겼다  
그들은 전화선 속에서 숨죽여 듣고 있다가  
이따금 지직거린다, 부주의하게도  
  
그는 엿들으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쩌면 그는 아주 선량한 얼굴을 지녔을지 모른다  
절제된 표정과 어투를 지닌 공무원처럼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처럼  
이삿짐센터 직원이나 택배 기사처럼  
무심한 얼굴로 초인종을 눌렀는지도 모른다  
  
문 뒤에 서 있는 투명인간들  
주차장 입구에서 현관문 앞에서 복도와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듯 지나는 낯선 얼굴들  
  
개 한마리가  
마악 내려놓은 쓰레기봉투를 킁킁거리다 사라진다  
  
그러나 배후는 배후답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날 귓바퀴를 타고 들어와  
잠복 중인 발소리  
  
새로운 배후가 생긴 뒤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귀가 운다  
피 흘린다  
풀벌레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운다  
한겨울에도 운다  
끈질기게 끈질기게 고막을 파고든다   
  
쉬잇, 그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늑대들

늑대들이 왔다  
  
피냄새를 맡고  
눈 위에 꽂힌 얼음칼\*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얼음을 핥을수록 진동하는 피비린내  
눈 위에 흩어지는 핏방울들  
  
늑대의 혀는 맹렬하게 칼날을 핥는다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감각을 잃은 혀는 더 맹목적으로 칼날을 핥는다  
치명적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먹는 것은 먹히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저녁이 왔고  
피에 굶주린 늑대들은 제 피를 바쳐 허기를 채웠다  
  
늑대들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하이에나들

둠둠둠둠 둠둠둠둠   
  
그들이 몰려온다  
하이에나들이 누 떼에 접근한다  
  
둠둠둠둠 둠둠둠둠둠둠둠둠  
  
누 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한쪽에 뒤쳐진 어린 누 한 마리가 오늘의 먹잇감,  
도망치는 것은 무엇이든 문다  
한번 입에 문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누의 정강이와 성기를 물고 늘어지는 하이에나들  
  
둠둠둠둠 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  
  
흙먼지 속에서 버둥거리던 누는 쓰러지고  
정강이에서는 피가 흐르고  
  
둠둠둠둠 둠둠둠둠 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  
  
누가 끝내 잡아먹힌   
  
​어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

종이감옥

그러니까 여기, 누구나 불을 끄고 켤 수 있는 이 방에서, 언제든 문을 잠그고 나갈 수 있는 이 방에서, 그토록 오래 웅크리고 있었다니  
  
묽어가는 피를 잉크로 충전하면서  
책으로 가득 찬 벽들과  
아슬아슬하게 쌓아놓은 서류 더미들 속에서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이 의자에서 저 의자로 옮겨다니며  
종이 부스러기나 삼키며 살아왔더니  
  
이 감옥은 안전하고 자유로워  
방문객들은 감옥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지  
간수조차 사라져버렸지 나를 유폐한 사실도 잊은 채  
   
여기서 시는 점점 상형문자에 가까워져간다  
입안에는 말 대신 흙이 버석거리고  
종이에 박힌 활자들처럼  
아무래도 제 발로 걸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썩어문드러지든지 말라비틀어지든지  
  
벽돌집이 순식간에 벽돌무덤이 되는 것처럼  
종이벽이 무너져내리고  
잔해 속에서 발굴될 얼굴 하나  
  
종이에서 시가 싹트길 기다리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낡은 방에서, 하루에 30분 남짓 해가 들어오는 이 방에서, 위태롭게 깜박거리는 것이 형광등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다니

나날들

나날들이 나달나달해졌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 있자는 말을 들었다  
  
축생도에 속한 존재들은  
오늘도 우글거리다 우리로 돌아갔다  
그 자리에는 무수한 비늘들과 털들이 흩어져 있다  
잘린 지 모르고 여전히 날름거리는 혓바닥도 몇 있다  
  
-이봐, 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어.  
  
-저는 매 순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구제 불능이에요. 미쳤다고요.  
  
-당신은 대체 그 말을 믿습니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어디 끝까지 해보자구.  
  
-어짜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널 용서한 건 아니야.  
  
-아, 어지러워 죽겠어요.  
  
달팽이관에서 흘러나온 돌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절망은 길가의 돌보다 사소해졌다  
아직 사람으로 남아 있느냐고 누군가 물었다  
  
축생도의 우기가 너무 길다  
축축한 빨랫감들이 내뿜는 냄새를 견딜 수 없다  
  
좀처럼 마르지 않는 나날들이다

정직한 사람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가 묵처럼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매일 다른 얼굴이 주어지는 아침,  
오늘의 얼굴은 어제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짓말은 굳어갈수록  
독기를 잃은 뱀의 말에 가까워진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거지말과 비밀의 차이도 알고 있다  
  
깊은 슬픔이 어떻게  
거짓말 없이 전달될 수 있을까  
  
연민보다는 차라리 거짓말이 낫고  
말의 순도보다는 말의 두께가 중요한 순간이 있으니  
독기를 잃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도 있으니  
  
누구도 그것을 거짓말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확정된 진실조차 없기에  
  
정직함이 불가능해진 세계에서  
정직함에 대한 부정직한 이해만이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필사적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피가 묵처럼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는

붉은 텐트

울지 마세요  
그리고 어서 들어오세요  
붉은 텐트 속으로  
  
여자들은 모두 여기 와서 피를 흘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피에 젖은 깃발처럼  
상처 입은 새처럼  
바람에 파닥거리는 붉은 텐트 속으로  
  
바닥에 흩어진 딸기를 밟고 가는 사람들이여  
이 절벅거리는 슬픔을 보세요  
  
으깨진 살과 부르튼 입술로 노래하는 이여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보세요  
  
노래는  
숨결을 모아 소리의 화환을 만드는 것  
  
귀를 틀어막고 총총걸음으로 지나는 사람들이여  
이 오래된 노래를 들어 보세요  
  
사이렌의 노래를  
  
우리는 저마다 기울어지는 난파선이니  
깜빡이는 불빛으로 다른 난파선을 비추는 눈동자이니  
가라앉는 손을 잡는 또 하나의 손이니  
  
어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우리의 피로 빚어진 붉은 텐트 속으로

Rhythm 0

여기 72개의 사물이 놓여 있습니다.  
  
장미, 향수, 빵, 와인, 깃털, 꿀, 가위, 못, 쇠막대, 외과용 수술칼, 권총, 총알 한개, 채찍, 사슬, 망치, 톱, 립스틱, 스카프, 거울, 유리잔, 카메라, 책, 머리핀……  
  
이 사물들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과 고통만이 내게 속한 것입니다.  
  
자아, 당신을 끌어당시는 사물이 있나요?  
당신 속의 두려움과 욕망에 따라 무엇이든 선택하세요.  
테이블 위의 사물들로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잘라낼 수도 있고 머리에 총을 겨눌 수도 있어요.  
장미 가시로 나를 찌를 수도 있고 향수를 뿌릴 수도 있어요.  
내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고  
내 유뱡을 만지거나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다리 안쪽에 칼을 꽂거나 목에 상처를 내어 피를 마실 수도 있어요.  
나를 해치거나 죽인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물론 한때라도 죽고 싶었거나 죽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시간 후 어떤 모습으로 있개 될지 궁금하군요.  
  
조각상처럼 숨죽인 육체 위로  
당신의 행위가 남긴 흔적,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래요, 나는 극단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새벽 두시, 퍼포먼스는 끝나고  
나는 주술에서 풀려난 인형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류의 리듬도 허락되지 않은 새벽에.

괴테의 떡갈나무

그들은 수용소의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  
괴테의 떡갈나무만 남겨두고  
  
신의 숲에서 떡갈나무를 베어낸 죄로  
연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을까  
  
생산적으로 파괴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막사 옆에 남겨진 떡갈나무  
  
오페레타의 박자에 맞춰 작업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허기에 젖은 그 눈동자들에게  
괴테의 떡갈나무란 무엇인가  
  
머리카락으로 짠 카펫 위에서  
인피로 만든 전등갓 알서 책을 읽는 사령관 아내에게  
괴테의 떡갈나무란 무엇인가  
  
차라리 저 나무를 베어다오  
  
차라리 저 음악을 멈춰다오  
  
차라리 저 책을 불태워다오  
  
일찍이 신의 아들이라 칭송받던 떡갈나무여  
어떤 나무의 운명도 이처럼 참혹하지는 않았으니  
네 갈잎으로 두 눈을 가려다오  
  
더 많은 빛을!  
  
괴테가 남긴 마지막 말은  
너무 많은 어둠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을까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당신은 그곳을 세계의 항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악이 모여서 배출되는 곳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  
이것이 인간인가, 되묻게 하는 곳  
지금도 시커먼 괄약근이 헐떡거리는 곳  
  
산더미처럼 쌓인 채 썩어가는  
안경들, 신발들, 머리카락들, 두개골들,  
썩지 않는 고통의 연료들  
  
고통 속에서  
더 큰 고통 속으로 걸어들어간 사람들  
  
눈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발들은, 얼굴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살과 뼈와 피를 망각으로 밀어넣기 위해  
오늘도 발전기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기계로도  
이 시퍼런 물을 다 퍼낼 수가 없습니다  
  
짜디짠 유언들이 방파제에서 말라가고  
밀려오는 파도는 매번 다른 착지선을 기록합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그러나 구조된 자 역시 구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지만  
당신은 결국 가라앉은 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표류하는 기억과 악몽에 뒤척이다가  
당신이 가라앉은 곳  
  
우리는 그곳을 세계의 항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표 하나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사이에서

들린 발꿈치로

그들은 죽은 개를 묻듯 우리를 묻었습니다.  
커다란 구덩이에, 시체 위에 시체를,  
우리는 썩어가면서도 누군가의 등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죽은 줄도 모르고 아따금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여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달맞이꽃이 피어도  
달거리 동안 피를 흘려도  
우리는 짐승들을 받고 또 받아야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짐승, 남자라는 짐승, 군인이라는 짐승,  
그들은 죽은 개를 던지듯 우리를 함부로 내던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반쯤 썩어문드러진 입술로 묻습니다.  
​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하며 일어납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길을 나섭니다.  
  
들린 발꿈치로  
한번도 온전히 제 땅을 밟고 서보지 못한 발꿈치로   
  
여기가 어디지요?  
우리가 흘린 피가 강물에 흥건하고  
폐허가 된 참호에는 어린 병사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들린 발꿈치로 강을 건넙니다.  
젖은 옷은 더 이상 젖지 않습니다.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낮익은 능선과 돌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향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들린 발꿈치로 동구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기가 어디지요?  
죽은 줄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  
어디선가 날아온 나비 한마리를   
잃어버린 영혼인 듯 따라갑니다, 들린 발꿈치로.

난파된 교실

아이들은 수학여행 중이었다  
교실에서처럼 선실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가만히 있으라.  
그말에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앉아 있었다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나사들처럼 부품들처럼  
주황색 구명조끼를 서로 입혀주며 기다렸다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공장의 유니폼이라는 것도 모르고  
물로 된 감옥에서 입게 될 수의라는 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끝까지 어른들의 말을 기다렸다  
움직여라,움직여라.  
누군가 이 말을 해주었더라면  
몇 개의 문과 창문만 열어주었더라면  
그 교실이 거대한 무덤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은 수학여행 중이었다  
파도에 둥둥 떠다니는 이름표와 가방들  
산산조각 난 교실의 부유물들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지만  
배를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한낱 무명의 목숨에 불과했다  
  
그들이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 순간까지도  
몇 만 원짜리 승객이나 짐짝에 불과했다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지만  
싸늘한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햇빛도 닿지 않는 저 깊은 바닥에 잠겨 있으면서도   
끝까지 손을 풀지 않았던 아이들  
구명조끼의 끈을 잡고 죽음의 공포를 견뎠던 아이들  
아이들은 수학여행 중이었다  
죽음을 배우기 위해 떠난 길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교실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책상 밑에 의자 밑에 끼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리와  
유리창을 탕, 탕, 두드리는 손들.  
그 유리창을 깰 도끼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문턱 저편의 말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2015년 1월 27일, 열아홉살의 증인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광주고등법원 법정 201호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재판  
  
-증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말해주십시오.  
  
증인 A: 아침 여덟시 오십칠……갑자기 배가……자판기와 소파……쏟아지……복도 쪽으로……캐비넷……구명조끼를 꺼내……친구들은……기다리고……문자를 보냈……가만히 있어…… 우현 갑판 쪽……커튼을 찢어……루프……여학생들……물이……바닷물이……탈출……아홉시 오십분……갑판 위로……헬기……해경……아무도……아무도……  
  
증인 B: 저……저, 저는……3층 안내데스크 근처……배가 기우는……미끄러져……벽에 부딪쳤……피가……매점에서……화상을 입은……좌현 갑판……비상구……열려 있어……승무원들……우리……대기하라고만……비상구……친구 셋이……끝내……아홉시 사십오……물이……차올랐……잠수를……4층 갑판 쪽으로……헬기 소리가……탈출 후에야……해경……와 있다는 걸……  
  
-증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증인 B: 할 말…… 말이 있지만……그만……그래도……할 말이……해야 할 말이……정신없이……살아나오긴 했지만……우리 반에서……저 말고는……아무도……구조되지 못했……친구들도……살 수 있었을……아무도……저 말고는 아무도……  
  
간신히 벌린 입술 사이로 빠져나온 말들이 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말들이 있다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리는 말. 모래 한줌의 말. 혀끝에서 맴돌다 삼켜지는 말. 귓속에서 웅웅거리다 사라지는 말. 먹먹한 물속의 말. 해초와 물고기들의 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말. 암초에 부딪치는 순간 산산조각 난 말. 깨진 유리창의 말. 찢긴 커튼의 말. 모음과 자음이 뒤엉켜버린 말. 발음하는 데 아주 오래 걸리는 말. 더듬거리는 혀의 말. 기억을 품은 채 물의 창고에서 썩어가는 말. 고름이 흘러내리는 말. 헬리콥터 소리 같은 말. 켜켜이 잘려나가는 말. 잘린 손과 발이 내지르는 말. 핏기가 가시지 않은 말. 시퍼렇게 멍든 말. 눌린 가슴 위로 내리치는 말. 땅. 땅. 땅. 땅. 망치의 말. 뼛속 깊이 얼음이 박힌 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말. 감전된 말. 화상 입은 말. 타다 남은 말. 재의 말.   
  
그래도 문은 열어두어야 한다  
입은 열어두어야 한다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바다 저 깊은 곳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말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이 도시의 트럭들

돼지들은 이미 삶을 반납했다  
움직일 공간이 없으면 생각도 사라지는지  
분홍빛 살이 푸대자루처럼 포개져 있다   
  
트럭에 실려가는 돼지들은  
당신에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가  
   
짝짓기 직전 개들의 표정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의 눈망울에서  
당신은 어떤 비애를 읽어내는가  
아니, 그 표정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도시의 트럭들은  
너무 많이 싣고 너무 멀리 간다

혈거인간

이 도시의 지하는 생각보다 깊어요  
뿌리들이 나무를 지탱하듯  
빌딩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지하세계 덕분이지요  
   
몇 그램의 절망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곳  
   
어두운 계단과 구멍들 사이로  
기적처럼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내일을 꿈꿀 필요가 없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산소 없이 살 수 없지만  
너무 많은 산소에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는  
썩은 공기로 숨 쉬는 법을 배웠어요  
   
인간이라는 비루한 감옥에 갇혀 살기는  
지상이나 지하나 마찬가지,  
물론 지하세계에도 시장과 학교와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투명인간처럼 살지만  
그렇다고 빛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는  
전구들이 태양을 대신하지요  
빛의 찌꺼기들은 모두 여기로 와요  
   
아직은 쓸 만한 전구들이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방  
   
우리에겐 더 깊고 투명한 집이 필요해요  
검은 흙 속으로 끝없이 뻗어가는 흰 뿌리들처럼  
   
지상으로 난 환기구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흙 묻은 밥을 먹었다

한끼의 밥이 완성되려면…… 물이 나와야 하고 (오늘 오후부터), 전기가 들어와야 하며, 깨진 그릇들 속에서 성한 걸 찾아 씻어놓아야 한다. 지금 이 밥이 완성될 때까지 모두 세차례의 지진이 있었다. 끝내 마지막 지진을 피해 식탁 밑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밥이다.  
 그런데…… 물도 전기도 집도 없이 피난소에서 한줌의 주먹밥과 한모금의 물로 연명할 이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내일은 학교 대피소엘 들러봐야겠다.  
  
쌀밥 한그릇이 놓여 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밥을 먹는 동안에도 또다른 지진이 있었는지  
부서진 흙이 밥 위에 떨어져내렷는지  
그릇들은 다시 쟁강거리고  
책장에서 남은 책들이 쏟아져내렸는지  
벽시계가 곤두박질치며 시곗바늘이 멈추어버렸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흔들리는 나날 밖에서 희미한 파동을 느낄 뿐  
  
밥그릇을 들고 있는 이여  
쌀과 밥 사이의 까마득한 거리를 알고 있는 이여  
  
나도 오늘은 흙 묻은 밥을 먹는다  
  
집 앞에 내놓은 깨진 기왓장과 벽돌들을 아무도 수거해가지 않는다  
머지않아 또다른 벽과 담장이 그것을 덮칠 것이기에  
  
뿌리 뽑힌 나무들, 이파리마다 흙이 묻어 있다  
  
부서져내리는 흙에는 국경이 없다  
이 흙 묻은 밥에도

미래의 구름

플루토늄,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구름은 이제 이런 원소들로 만들어집니다.  
구름 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름의자에 앉아보십시오.  
당신은 비행기 대신 구름을 타고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일론 섬유로 만들어진 구름은  
당신을 아주 멀리 데려다줄 것입니다.  
다만, 목적지의 방향과 속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바람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방사능 수치 1.67마이크로시버트,  
어제 저녁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앙은 전깃줄을 따라 퍼져가고  
소문은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도마다 창궐합니다.  
기형아가 태어나고  
네모난 해바라기 꽃이 피어나고  
머리가 둘 달린 돌고래가 해변으로 떠밀려 오고  
그래도 LED 불빛 아래 채소들은 초록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구름기둥,  
저 구름의 제조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늘에 새를 심었습니다.  
이제 새들은 하늘 밖으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희고 부드러운 구름에 갇혔습니다.

새를 심다

공중에 새를 심었다  
  
이제 하늘 밖으로 날아갈 수 없는 새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모종처럼  
작고 가벼운 날개를 파닥거린다  
  
날아도 날아도 그 자리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한 문장을 리트윗하고  
윗, 윗, 윗, 윗, 알 수 없는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누가 나를 언팔 했는지 짬짬이 살피고  
한시도 쉬지 않고 지저귀는 그들 속에 함께 지저귀며  
  
3억 9천 9백만 마리의 새들은  
공중에 심어진 줄도 모르고 트윗을 날린다  
국경을 넘어  
시차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기치 않은 때에 날아오는 메시지들,  
순식간에 퍼지는 루머들,  
누군가 퍼나르는 시나 소설의 몇 문장들,  
일용할 양식을 낱알처럼 쪼아대며  
새들은  
140자 안에서 허락된 자유를 누리고  
단문을 점점 좋아하게 되고  
공백과 기호들을 풍성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지  
  
새들은 오늘도  
윗, 윗, 윗, 윗, 트윗, 트윗, 트윗, 한다  
지상의 작은 방앗간에서

아누가 하늘을 만든 후

치통을 낫게 하는 아시리아의 주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누가 하늘을 만든 후  
하늘이 대지를 만들고  
대지가 강을 만들고  
강이 연못을 만들고  
연못이 벌레를 만들었다  
  
 이렇게 태어난 벌레는 신에게 가서 먹을 것을, 파괴할 것을 달라고 했다. 신은 벌레에게 과일을 주었지만 벌레는 인간의 치아를 달라고 했다. 아누가 하늘을 만든 후 얼마나 많은 벌레가 연못에서 태어났을까.  
  
 이제 인간은 치통을 달래기 위해 더이상 주문을 외우지 않는다. 신 대신 의사를 길러낼 학교를 세우고 벌레를 퇴치할 병원을 지었다. 약품과 물자를 나르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었고, 커다란 배와 비행기를 발명했다. 그에 따라 대형선박의 난파와 비행기의 참사가 발명되었다. 아누가 하늘을 만든 후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사라졌을까.  
  
아누가 하늘을 만든 후  
하늘이 비행기를 삼키고  
비행기가 인간을 삼키고  
인간이 화염을 삼키고  
화염은 하늘을 삼켰다

다리를 건너는 다리들

오십년은 저렇게 엎드려 있었을 것이다  
명상에 잠긴 듯한 자세로  
강 이편과 저편에 다리를 걸치고  
다리는 수많은 다리들을 건네주었을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들  
다리를 건너는 다리들  
  
다리들은 대체로 건너는 일에만 몰두한다  
이따금 오래 서 있다가 물로 뛰어드는 다리도 있지만  
그것이 우울한 조명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야간 조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조명보다 다리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늘어난 통행량이나 물류량을 들기도 한다  
새 다리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은 다리 입구에서 종일 통계를 낸다  
일일 평균 통행자 수나 선박 통과 현황은  
다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수요 예측을 위해 줄거나 부풀려지는 숫자들,  
통계다운 불확실성에 힘입어  
머지않아 새로운 다리가 들어설 것이다  
  
우울해 보이지 않는 조명을 달고  
더 많은 다리들에게  
더 넓은 등을 내줄 다리가 완성될 것이다  
  
다리들은 건너는 일에만 더욱 몰두할 것이고  
낡은 다리는 두 다리를 거두지 못한 채 늙어갈 것이다  
  
현대식 교량을 건널 때마다 회고주의자가 된다고 했던 시인처럼

어떤 분류법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 된 하이데거는 나치스에 당했지만, 일년도 되지 않아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후임 총장은 당과 협의해 교수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전혀 불필요한 교수  
반쯤 불필요한 교수  
필요 불가결한 교수  
  
물론 하이데거는 전혀 불필요한 교수로 분류되었다. 1944년 11월 그는 국민 돌격대에 소집되었다. 독일이 패전하고 프라이부르크에 프랑스 점령군이 들어왔을 때, 나치정화위원회는 그의 교수직을 박탈했다. 그의 집과 책들 역시 압수되었다. 프랑스 군정은 나치에 대한 하이데거의 행적을 '당에 복종하지 않는 형태로 동참했다'고 결론 내렸다.  
  
전혀 불필요한 교수  
반쯤 불필요한 교수  
필요 불가결한 교수  
  
요즘 대학에서도 이 분류법은 유효하다. 나치스 대신 자본주의하는 장갑을 낀 손ㅇ로 교수를 감별해낸다. 필요성 보다는 불필요성을 가려내기 위한 분류법.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전혀 불필요한 교수로 분류된다. 책상이 사라지고 연구실이 사라지고 학과가 사라지고 단과대학이 사라지는 것도 종이 한장으로 가능하다. 그들이 그린 조직도 속에서, 그들이 정한 분류법 속에서  
  
K는 하루하루 진화하고 있다  
반쯤 불필요한 교수에서 전혀 불필요한 교수로

마크 로스코

적갈색 위에 옅은 빨간색이 스며들 때  
적갈색 위에 검은색이 번져갈 때  
  
면은 또 하나의 면을 향해 나아간다  
안간힘으로  
색이 색을 찢고 나오고  
색면들 사이로  
불에 타버린 입술은 무어라 달싹거리고  
  
마음을 소등한 자에게만 보이는  
희미한 빛은   
끝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적갈색에게로 가는 검은색,  
그가 죽음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벽이 간신히 못을 삼키듯  
검은색 위에 더 짙은 검은색이 내려앉을 때  
검은색이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될 때

나평강 약전(略傳)

그는 얼마간의 가축을 키웠다   
  
병아리들을 부화시켜 마당에 놓아먹였고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해   
얼룩 염소 한 마리를 사다가 젖을 짜 먹였다   
  
염소가 언덕에서 풀을 뜯을 때   
가만히 앉아 무슨 생각인가를 한없이 하는 사람이었다  
  
염소가 풀을 다 뜯은 후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언덕의 풀처럼 나지막하고 바람에 잘 쓸리는 사람이었다  
   
닭 키우는 걸 좋아했지만   
죽은 닭은 잘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갓 낳은 달걀과   
마악 짜낸 염소젖,   
생전에 그가 식구들에게 건네준 전부였다   
  
그보다 따뜻한 것을 알지 못한다

숨은 숨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숨은 것이다  
잦아들던 숨소리와 함께  
  
숨은 숨이다  
  
입속에 남은 한마디 끝내 하지 못한 채  
물숨을 삼켜 버린 해녀처럼  
병실의 공기란 공기는 다 빨아들여 몸에 가두었다  
  
입술이 닫히고  
혀가 싸늘하게 굳어 가고  
  
숨도 숨통도 숨결도 숨소리도 차디찬 입술 속에 얼어붙었다  
세상에서 가장 완강한 문이 있다면  
저 입술  
  
숨은 얼마나 깊이 숨어 버린 것일까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 것일까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아주 먼 곳으로  
  
숨은 숨이여  
숨은 신보다 더 아득한 숨이여

단식광대에게

당신은 단식을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무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당신은 도망치고 있습니까?  
  
삶으로부터  
식어가는 밥알과  
미역국의 마늘냄새로부터  
링거액과 주삿바늘과 약봉지로부터  
사랑하는 피붙이들과  
호기심에 찬 눈동자들로부터  
동전들과 지폐들로부터  
즐겨 부르던 노래와  
끝내 하지 못한 말로부터  
어슬렁거리는 개들과  
광장으로 몰려가는 사람들러부터  
떠도는 비눗방울들로부터  
꽃병에서 시들어가는 몇송이 꽃들로부터  
  
도망자 야곱처럼  
피난민으로 소년병으로 탈영병으로 필경사로 실업자로 도망치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도망치다 마치매 도망자의 삶을 완성하려는 당신  
  
당신은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단식은 당신이 택한 마지막 도망의 형식입니까?  
  
그 출구가 당신 눈에는 보입니까?

자기만의 틀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당신의 틀니가  
결국 당신보다 오래 살아남았어요  
  
스물여덟개의 이빨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캐스터네츠  
  
그러나 무언가 씹을 때 들려오는 음악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요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지셨군요  
헌 입천장과 잇몸을 짓누르던 재갈로부터  
입속에 절벅거리던 침으로부터  
누대에 걸쳐 이어져온 저작(咀嚼)의 노동으로부터  
윗니와 아랫니로 직조한 삶의 태피스트리로부터  
   
어느날 당신이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컵 속의 물에 잠긴 틀니는  
제 소명을 다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자루의 초가 다 탄 뒤에  
한 사람의 생이 다 지나간 뒤에  
마침내 살과 밀랍이 녹아내린 자리에  
   
빈 눈동자처럼 남아 있는  
틀니와 촛대  
   
당신을 가만히 내려놓은 틀니,  
그 피 흘리지 않는 잇몸과 닳지 않는 이빨들은 말합니다  
   
살아 있는 자,  
씹고 씹고 또 씹어야 한다 씹어 삼켜야만 한다  
자기만의 틀니에 이르기까지

어떤 피에타

한개의 씨앗에서  
삶과 죽음은 두개의 떡잎처럼 돋아났다  
  
내가 생일을 맞이한 날에  
아버지의 죽음은 무럭무럭 자라나 심연을 완성했다  
  
아버지가 받아 안았던 딸이  
중년이 되어 아버지의 시신을 받아 안은 그날에  
  
한 열매가 대지로 돌아간 그날에  
  
씨앗의 심연이여,  
이것은 어떤 피에타인가

슬픈 모유

엄마라는 타인의 고통 속에서  
나는 태어났어요  
감자덩굴에 매달린 작은 감자알처럼  
  
노래로 치욕을 견뎌낸 여인,  
그녀가 낳은 핏덩이는  
세상에 던져진 채 간신히 살아남았지요  
  
슬픈 모유를 먹으며 자라는 동안  
나의 심장소리는 점점  
엄마의 심장소리를 닮아갔어요  
  
거리에 떠도는 영혼에게 잡혀갈까봐  
벽 쪽으로 꼭 붙어서 걷고  
두려울 때는 아무도 모르게 노래를 불러요  
  
상처 입은 비둘기의 울음처럼  
먼 고향의 파도소리처럼  
가만히 숨결을 모아 소리의 꽃다발을 만들지요  
  
노랫소리에 벽과 문이 열리고  
이젠 혼자서도 밤길을 걸을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영혼 없이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내 몸에서는 매일 감자 싹이 자라요  
질 속에 박힌 감자에서  
덩굴이 뻗어나와 나를 휘감아버릴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 슬픔의 돌덩이를  
그만 내 몸에서 꺼내주세요  
  
당신의 정원에는 꽃이 만발하지만  
감자꽃은 왜 없나요  
감자꽃으로는 왜 꽃다발을 만드는 사람이 없나요  
  
오늘도 먼지와 잡담의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와요  
  
마침내 노래를 멈춘 엄마 곁으로  
  
엄마를 어디에 묻어야 하나요  
고향까지는 너무 멀어요  
  
바다가 사막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곳까지는  
  
\* 슬픈 모유(the milk of sorrow): 페루 영화, 클로디아 로사 감독.

주름들

이 해변에 이르러  
그녀는 또 하나의 주름에 도착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녀가 드디어 웃었다  
죽은 남편을 잠시 잊은 채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늙은 소녀  
  
그녀의 주름 속에서 튀어오른 물고기들은 이내  
익숙한 고통의 서식지로 돌아갔다  
​  
주름은 골짜기처럼 깊어  
펼쳐들면 한 생애가 쏟아져나올 것 갔았다  
​  
열렸다 닫힐 때마다  
주름은 더 깊어지고 어두워지고  
주름은 다른 주름을 따라 더 큰 주름을 만들고  
​  
밀려오는 파도 역시  
바다의 무수한 주름일 것이니  
​  
기억이 끼어들 때마다  
화음은 불협화음에 가까워지고  
그 비명을 끌어안으며 새로운 화음이 만들어졌다​  
  
파도소리처럼  
  
오늘 그녀가 도착한 또 하나의 주름처럼

금환일식

몇 번의 일식이 지나고  
몇 개의 검은 구멍이 분화구처럼 남았다  
빛이 희박해진 것은 그래서였다  
  
이십 년이라는 시간이  
몇 번의 일식과도 같은 것이라니  
  
그녀는 자신의 삶을  
부드러운 월식에 빗대고자 했으나  
아주 격렬한 일식이 되어버렸다고 중얼거렸다  
  
玄冬의 나날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  
그녀는 인생의 한 계절이  
사라졌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는지 모른다  
  
서랍에 처박혀 있는 반지는  
빛을 잃은 지 오래  
  
흑과 백이 분명한 사건,  
검은 해 뒤에서 뿜어져나오는 광선,  
그 둥근 빛을 누군가는 금환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건네준 반지였다  
  
다행이다, 다음 금환일식은 159년 뒤에나 찾아온다고 한다

여기서는 잠시

난 여기가 맘에 드는구나  
삶의 오물통과 마주하기 좋은 곳이야   
  
금지된 열매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구나  
  
죽어가는 존재들도  
여기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지  
  
건기에 물이 다 말라도  
잠베지 강의 폐어가 폐로 숨을 쉬며  
몇 달을 진흙 속에서 살 듯이  
  
네 생각보다 남은 숨이 길다는 걸 명심해라  
어찌되었든 숨을 쉰다는 게 중요해  
  
불을 지펴볼까  
불쏘시개가 될 만한 낙엽들을 가져오렴  
마른 싸릿가지나 덤불도 좋다  
  
난 여기가 마음에 드는구나  
삶의 누더기를 말리기 좋은 곳이야  
  
남아 있는 것들로 차린 음식과  
마른 우물에서 퍼온 물로  
아직 몇 끼니는 견딜 수 있을 것 같구나  
  
죽어가는 존재들도  
여기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지  
  
불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마지막 산책

우리는 매화나무들에게로 다가갔다  
이쪽은 거의 피지 않았구나,  
그녀는 응달의 꽃을 안타까워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듯  
입 다문 꽃망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땅은 비에 젖어 있었고  
우리는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병실로 돌아왔다  
통증이 그녀를 잠시 놓아줄 때  
꽃무늬 침대 시트를 꽃밭이라 여기며  
우리는 소풍 온 것처럼 차를 마시고 빵조각을 떼었다  
오후에는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며  
문장들 속으로 난 숲길을 함께 서성이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죽음, 이라는 말 근처에서  
마음은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피지 않은 꽃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침묵에 기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기에  
입술도 가만히 그 말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응달의 꽃은 지금쯤 피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산책을 나가지 못했다  
시간의 들판에서 길을 잃었는지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길을 잃은 것은 나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그의 시신을 태운 뼛가루는  
정확하게 두 팔의 무게만큼 부족했다  
  
평생 두 팔 없이 살았던 고통의 무게만큼  
  
질량 보존의 법칙은  
마지막 장소에서도 어김없이 지켜졌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뼛가루  
  
고통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불꽃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작은 함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신으로부터는 너무 멀고  
불행으로부터는 너무 가까웠던 사람  
  
먼지 속에서 태어나  
먼지로 돌아간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물이 뼛가루를 적셨고  
그가 살지 못한 날의 햇빛이 잠시 내려앉았다  
  
저울의 바늘이 조금 움직였다  
  
그는 당신이 모시떡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 두 손이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느님은 부사를 좋아하신다

'쓰다'라는 동사의 맛이 항상 쓴 것은 아닙니다  
"보다' 라는 동사는 때로 조사나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라는 부사를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빨리' 라는 조사도 조심하세요  
'항상' 이라는 부사야말로 항상 주의해야 할 물건이지요  
하느님이 부사를 좋아하시는 건 사실이지만요  
  
양치기가 사제보다 더 숭고할 수 있는 건  
바로 부사 때문이지요  
양치기가 어떻게 양들을 불러 모았는지  
그때 눈빛이 어땠는지  
목소리는 얼마나 다정했는지  
해질 무렵 어둠은 얼마나 천천히 걸어왔는지  
양들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돌아왔는지  
돌아오는 길에 데이지가 얼마나 많이 피어 있었는지  
부사로 이루어진 그런 순간들말이에요  
  
부사는 희미한 그림자 같아서  
부사 곁에서는 마음도 발소리를 낮춘답니다  
  
'천천히'라는 부사는 얼마나 천천히 어두워지는지요  
'처음'이나 '그저'라는 부사 뒤에서 망설이는 동사들을 보세요  
동사들이 침묵하는 건 부사들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떤 부사를 말음하기 전에는 오래오래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느님, 부사들을 좋아하시는 당신은 정작  
내 속에서 길을 잃으셨군요

산책은 길어지고

그의 왼손이 그녀의 오른손과 스치고  
그녀의 그림자가 그의 그림자와 겹쳐질 때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산책은 길어지고  
둘 사이에 끼어든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란히 걷는 것은  
아주 섬세한 행위랍니다  
너무 앞서지도 않고 너무 뒤서지도 않게  
거리와 보폭을 조절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다  
모든 걸음은 어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뚝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흰 실과 검은 실을 구분할 수 없는 시간이 오면  
그때서야 서로를 알아보게 될까  
  
산책은 길어지고  
흩어진 발자국들은 말을 아끼고  
어둠은 남은 발자국들을 다 지우지는 못하고

저녁의 문답

-지금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싹 난 지팡이를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까지.  
  
-저기 걸어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저녁에 길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  
  
-녹슨 선로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둠 또는 안개.  
  
-이 오르막길은 언제나 끝이 납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비둘기와 뱀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진실은 비둘기와 뱀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자음들은 어떻게 발음해야 합니가?  
-모음을 침처럼 섞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싹 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것입니까?  
-더이상 싹이 나지 않을 때까지.

남겨진 것들

올빼미가 토해낸 팰릿에는  
소화 안된 털과 뼈들이 뭉쳐 있다지  
  
밤에 먹어치운 먹이 중에는  
분해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을 테니까  
철사나 전선처럼 질긴 것들도 있었을 테니까  
  
​오랫동안 뭉쳐진 기억들은 점점  
희고 길어진다  
  
​이미 나뭇가지의 일부가 된 마른 고치처럼  
  
​나비가 날아간 후에도  
꽃이 시든 후에도  
올빼미도, 그도, 사라진 지 오래인 지금에도, 저렇게,  
  
​낡은 이불 홑청 사이로 삐져나온  
희고 긴 솜뭉치처럼

향인香印

북경의 시계골목에서 향인을 찾아다녔다.  
19세기까지 그 향시계를 썼다는 기록이 있지만  
저잣거리 어디에도 이를 아는 이가 없었다.  
  
문자의 본이 새겨진 틀에 향가루를 넣어 태우면  
향이 타들어가면서 글자 모양이 나타나나는 시계.  
  
예컨대 재로 된 문장 하나.  
  
"내가 나의 꽃들을 얻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타고 남은 재로 시간을 재는 시계라니!  
향이 타들어가는 동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니!  
  
날이 저물도록 향인을 찾아 헤매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  
  
어릴 적 예배당에 앉아 있는 동안  
옷핀으로 마룻장 틈을 긁어 일으키던 먼지와 보푸라기의 시간.  
시간의 재처럼 드러나던 마룻장 저편의 어둠.  
  
그 먼지와 보푸라기의 시간을 일으켜 나는 어디로 가려 했을까.  
  
어둠의 광맥은 점점 깊어져  
그후로 슬픔의 시를 내다 파는 것이 내 일이 되었다.  
  
마룻장이 아니라 내 속의 어둠을 향해  
깊게, 더 깊게, 언어의 곡괭이를 박아 넣어야 했다.  
  
"내가 나의 꽃들을 얻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따금 향기로운 문장 앞에 숨을 멈추고  
마지막 재와 먼지와 보푸라기로 쓸 문장을 생각한다.  
  
향인(香印).  
  
향기와 재가 되어 사라진 시계.

앵무조개

앵무새의 부리를 닮은   
앵무조개.   
새의 성정을 타고나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는   
앵무조개.   
한 번도 짠물을 벗어나지 못한   
앵무조개.   
그러나 모래에 처박혀서만은 살 수 없는   
앵무조개.   
날개도 빨판도 없이 물결에 둥둥 떠다니는   
앵무조개.   
구십 개의 촉수로 먹이를 찾고, 위험할 때는 어룽거리는 물그림자에 얼룩의 몸을 숨기는   
앵무조개.   
나선형의 껍데기 속에 격벽의 방들을 만들어가는   
앵무조개.   
그것만이 성장의 징표라는 듯 더 많은 방 속에 더 신선한 공기를 채우는   
앵무조개.   
방 속에 하늘을 품은   
앵무조개. 언제라도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앵무조개.   
그러나 끝내 날아가지는 못하는   
앵무조개.   
발에 매달고 다니는 껍데기 속에 알을 부화시키는   
앵무조개.   
새끼들이 떠나고 나면 유유히 길 떠나는   
앵무조개.   
  
Argo. 그리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배 이름.   
  
신성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앵무조개  
  
인간의 말 따위는 받아먹지 않아도

나이-톰보-톰보

나이-톰보-톰보,  
세계 너머에 대한 상상이 시작되는 곳  
  
나이-톰보,톰보, 그곳은 바닷가에 있지  
거룩한 산에 다다른 영혼이 뛰어내리는 바위,  
바다에 옛 노래가 울려퍼지면  
그제야 죽음이 임한 걸 알게 된다지  
  
나이-톰보-톰보, 그곳은 사막에 있지  
알타이족은 영혼이 사막을 건너간다고 믿었지  
사막에 옛 노래가 울려퍼지면  
그제야 죽음이 임한 걸 알게 된다지  
  
나이-톰보-톰보, 그곳은 마루에 있지  
인도 소라족은 망자의 영혼이 마룻바닥을 통해 지하세계로 내려간다고 믿었지  
그 영혼을 도우려고 뿔고둥을 함께 불었지  
  
나이-톰보-톰보, 그곳은 벌판에 있지  
시베리아에서는 야생 순록 가죽으로 된 북을 쳤다지  
추운 벌판을 건너는 영혼에게는  
야생 순록처럼 튼튼한 안내자가 필요하니까  
  
나이-톰보-톰보, 그곳은 숲에 있지  
부시먼족의 영혼은 기린을 따라갔다지  
울창한 숲을 통과하려면  
목이 길고 참을성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니까  
  
나이-톰보-톰보,  
노래만이 따라갈 수 있는 곳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나희덕  
  
  
숲길에서 우연히 주워든 나뭇가지 하나  
  
잎과 열매가 아직 남아 있는,  
굽이치며 뻗어간 궤적과 부러진 흔적을 지닌,  
이 나뭇가지는 어디서 왔을까  
  
혹시 몰라,  
우주목에서 떨어져내린 가지일지도  
  
그걸 주워 북을 만들면 평생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된다지  
  
북을 만들 수는 없어도  
어떤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  
숲길에 서서 귀를 기울인다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노래의 힘으로 죽음의 사막을 건넜던  
알타이 샤먼들처럼  
  
새를 삼킨 것 같은,  
새를 따라 날아오를 것 같은, 이 느낌은

대각선의 종족

대각선의 종족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지  
  
높은 담에서 뛰어내리는 고양이는  
대각선을 날렵하게 완성하고  
급브레이크 자국은  
휘어진 대각선이 있음을 알게 하네  
벽에 기대놓은 사다리는  
대각선이 잠시 쉬는 것처럼 보이고  
구릉과 산비탈은  
조금씩 완만한 대각선이 되어가는 중이네  
사람의 벌거벗은 몸에도  
산맥과 구릉, 깊은 골짜기들이 있지  
대각선으로 뻗어올린 다리와  
수직을 지탱한 다리의 각도는 위태롭고  
머리를 감싸쥔 팔과  
공중으로 뻗은 팔 사이에는  
빛이 대각선으로 쏟아져내리고 있네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로  
빠른 빗금을 치며 날아오르고  
지붕의 기울기에 따라  
빗물은 다른 속도로 흘러내리네  
오늘은 바람이 꽤 강하게 부는 것 같군  
  
바다로 불려가는 갈대들을 봐  
무언가 잃지 않고는 대각선이 될 수 없지  
낙엽들은 나무를 잃고  
나는 오래된 계곡 하나를 잃었지만  
그렇다 해도 기억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진 않겠어  
  
  
다만 비스듬히, 비스듬히, 말하는 법을 배울 거야  
후드득 떨어지는 빗방울과  
길게 성호를 긋고 사라지는 별똥별에 대하여  
수많은 대각선의 날들, 날개들, 그림자들, 핏자국들에 대하여  
대각선의 종족이 남긴 유언들에 대하여

대각선의 길이

안전해 보이는 사각형도  
대각선 하나만 그으면 두쪽이 나지  
  
한 변과 다른 변 사이에 생긴  
또 하나의 빗변,  
아이는 열심히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고 있고  
너는 대각선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고  
  
내가 빗금처럼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하지 않은 두개의 점이기 때문  
  
ㅡ한 변의 길이와 다른 변의 길이는 반드시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아직도 같습니까?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내리긋는 동안  
  
어디론가 불려가는 것들  
불려가면서 다른 존재를 불러오는 것들  
종종걸음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가로질러 아주 멀리 가는 것들  
짧은 궤적을 남기며 사라지는 것들  
  
수직선 위에 놓인 두 점 사이의 거리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 P와 점 Q의 좌표  
기울기가 03이고 점(-3, 10)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아이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 뒤에도  
너는 여전히 대각선으로 보이는 곳에 오래 서 있고

108그램

제조 시 무게 300그램  
건조 시 무게 192그램  
  
그는 108그램의 수분 또는  
번뇌를 일찌감치 날려버리고  
이토록 간결하고 견고한 형식에 도달했다  
  
도무지 뉘우침 없는 표정으로  
  
빨아야 할 것들에 대해  
무엇으로도 빨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지방산, 수산화나트륨, 계면활성제에 대해  
치대고 치대는 것만이 허락된 운명에 대해  
푸석한 얼굴로 닳아갈 날들에 대해  
  
192그램의 세탁비누는 아무 말이 없다  
  
자신은 직육면체의 후른 기름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렇게 마악 깨어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때가 내게도 있었다  
  
한 대야의 물속에 푸른 영혼을 처음 담그던 때가

서른세 개의 동사들 사이에서

빛의 옥상에서  
서른세 개의 날개를 돌려라  
  
오가 가다 오르다 내리다 흐르다 멈추다 녹다 얼다 타오르다 꺼지다 보다 듣다 생각하다 말하다 삼키다 뱉다 잡다 놓다 울다 웃다 주다 받다 묻다 답하다 밀다 당기다 열다 닫다 떠오르다 가라앉다 부르다 사라지다 넘다  
  
서른세 개의 동사들 사이에서  
하나의 파도가 밀려가고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니  
세상은 우리의 손끝에서 부서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니  
  
기다리지만 말고 서른세 개의 노를 저어 찾아라  
세계의 손끝에서 마악 태어난 당신을